



새 氣風의 振作으로 斬新한

우리는 태권도의 숨결이 2,000여년 동안 민족의 脈絡과 더불어 왔음을 矜持로
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지를 바탕으로 지난 10個 星霜에 우리 固有의 民俗武
藝인 태권도의 세계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지난 2월
5일 미국 “패사디나”에서 있었던 IOC 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가 88년 서울올림픽
의 시범종목 채택이라는 貴重한 結實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시범종목은
메달집계는 비록 없다 하더라도 各國 선수 선발규정과 대전방식은 正式種目과 똑
같으며 이 기회를 최대한 活用함으로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새로운 里程標를 세우
게 될것 입니다. 태권도가 이처럼 짧은 期間內에 全世界 수 백종의 스포츠 中에
서 올림픽 프로그램 종목 23개 다음의 24번째 위치를 차지한 것은 올림픽史上 前
例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국기 태권도는 名實 共に 국제스포츠 사회
의 寵兒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事實은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 까지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제 5 회세계선수권 대회에 무려 54개국에서 관계임원을 파견하
였으며 36개국의 선수 229명이 競演함으로서 立證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의 이 時點에서 종주국 250만 태권도인 여러분과 함께 잠시 숨을 가다듬고, 지나
간 우리의 足跡을 省察함으로서 外的인 成長에 비하여 內實을 기하는 점에 부족
한 바가 없었는지 反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自己省察의 當爲性은 어느 時代나
社會를 막론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創出하고 또 勸善수법하여 향도의 역할을 하는
집단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는 준엄한 역사의 敎訓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스스로 진작하여야 할 몇가지 새로운 氣風을 強調하고자 합니다.

첫째, 全 태권도인이 올림픽 유치 국민의 긍지를 表象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
자는 것입니다. 질서를 존중하며 단정하고 예절바른 태권도인상의 정립이야 말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根幹이되는 것입니다.

태권도人象을 正立하자

국 기 원 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김 운 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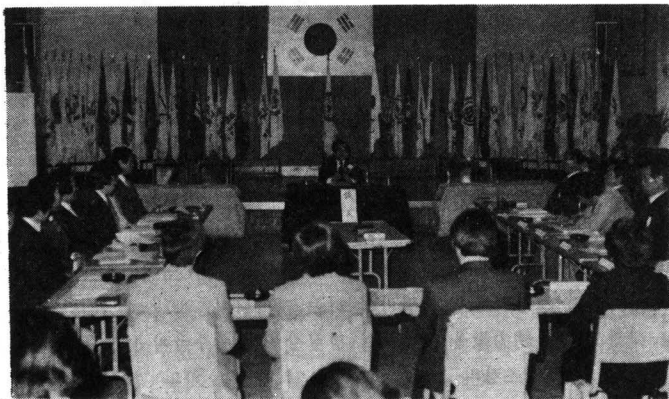
둘째는, 人和協同의 風習을 深化하자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先進 어느 나라 사람 셋이 모이면 줄을 서고 합창을 하며, 또 토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不和와 反目을 습관처럼 되풀이 한다는 自己卑下를 서슴없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폐의 不正의要素를 一新하여야겠습니다. 셋만 모이면 生産的이고 肯定的인 업적을 위해 상호 협동·단결하는 태권도인을 원하고 있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태권도인의 總力量을 結集하여 명실상부한 중주국의 면모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공산 집단의 각종 획책은 스포츠계에 까지 그 마수가 뻗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해 놓은 범세계적 태권도의 擴散을 와해시키고 붕괴하려는 불은 공작을 企圖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망상을 타파하고 오히려 우리의 正統·有一性을 전세계에 과시하려면 오직 태권도 중주국의 質·量 兩面에 걸친 면모를 일신하는 길 뿐이라고 믿읍니다.

나는 이러한 일련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구랍에 있었던 81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태권도 아카데미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철학과 태권도인상의 정립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친 연구와 이를 토대로 국내외사범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과학화라는 관점에서 태권도의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方向提示가 250만 태권도인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할때 비로써 참된 스포츠인의 기품을 지닌 참신한 태권도인상의 정립은 물론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치가 확고부동하게 되리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



태권도 아카데미 신설 !

후생복지기금 적립 추진 !

심사제도 및 경기규정의 합리화 !

1981년도 대의원 정기총회가 '81년 12월 19일 오전 11시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수 많은 태권도인과 KBS, MBC TV 및 신문기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렸다.

재적 대의원 21명 중 충남을 제외한 20명의 대의원은 김운용회장의 주재하에 태권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열띤 토의에 들어갔다.

이날, 참석한 지방별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박해만(중앙), 권경욱(중앙), 김순배(중앙), 이금홍(중앙), 송용섭(서울), 김일권(부산), 이종호(대구), 윤치영(인천), 안종웅(경기), 김성

태(강원), 김 용(충북), 장한철(전북), 조태열(전남), 예조해(경북), 박용용(경남), 고익조(제주), 정찬모(대학), 박창덕(중고), 주상일(국교), 이학선(여성).

이날 회의는 노우중 운영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어 성원 보고가 있었고 의장인 김운용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회장은 "81년도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82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여 '88년 올림픽까지 전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월달에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제 5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연맹 총회를 치루며,

또 미주 구락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는 대륙별 대회가 열릴 것이며, 이것은 83년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 2회 월드컵게임과 연결되며 '88년 올림픽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국기원에 태권도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해외에서 유학오는 수련생교육과 지도자 강습 및 기술개발 등을 전담하게할 계획입니다."고 새해의 「비전」을 펼쳤다.

이어서 지난 제 2차이사회에서 전무이사로 선임된 황춘성전무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보고했다. 이 보고에 의하면 황춘성 전무이사와 박희도이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선되었다. 다음에는 황춘성 전무이사의 전차총회회의록 낭독이 있었다. 그 주요 골자는 전차 총회의 건의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전년도 노상석 대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를 그 기능에 따라 협회에 6개, 국기원에 4개로 분할하고 장학금은 국민학생 6명이 18만원, 중교생이 10명에 50만원, 대학생 4명에 32만원을 각각 지급했으며 태권도 경기용구개발은 세계연맹기술위원과 절충하여 태권도 경기용구에 대한 품목 규격등을 정하고 협회가 실험 실습을 통하여 알맞게 만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차총회의 또다른 건의사항이었던 전국규묘대회에 중앙에서 심판을 파견해줄 것과 지도자 및 심판 강습의 지방개최에 대해서는 건의사항대로 처리가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전년도 회의초록의 낭독에 이의가 없으므로 식순에 의해 감사보고가 진행되었다. 인창근감사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198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는 적정하다고 인정하면서 몇가지 주석사항을 붙였다. 이에 의하면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취약성을 들면서 협회의 운영에 찬조금 수입의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의 기능을 기획, 재무, 기술, 홍보등의 전문분야로 분류하여 주지적인 활동을 전년도에 이어 재강조했다.

이와같은 감사보고에 이의가 없으므로 198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토의에 들어갔다. 황춘성전무의 제안설명에 주상일 대의원의 동의

에 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1982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에산안 토의로 넘어갔다. 황춘성전무의 제안설명에 따른 국내대회 8회, 국제대회 2회, 예산규모 1억9천3백2십만원의 수입·지출사항을 이종호 대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어 임원보선을 토의했을 때 박용용대의원의 제의에 따라 부회장보선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기타사항을 토의하는 가운데 조태열대의원은 심사추천을 시·도지부에서 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기원의 재확인 절차 지시가 있어 행정이 복잡하게 운영되므로 이를 간소화시켜 출정을 요청하여 회장은 국기원 실무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또 송봉섭대의원은 심사규정의 시행세칙의 보완을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심사시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각급 연맹의 심사권 행사가 시·도지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대하여 회장은 현재 국기원에서 심사규정을 재정비하고 있으니 광범위한 토의로 현실에 맞는 세칙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사에 관해서는 참석한 대의원이 모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용대의원은 서울시의 송봉섭대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면서 지방협회의 심사문제가 현실화되기를 바랐다. 또 정창모대의원은 자 연맹이 재정면에서 곤란을 받고 있음을 감안해서 연맹과 시·도지부가 공존할 수 있는 배려를 요청했다. 이어 권경욱대의원은 국가단위 심사집행을 중앙협회가 담당하도록 발언했으며 박용용대의원은 연맹에서 지방별로 심사를 집행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된다고 했으며 주상일대의원은 태권도심사 수입금이 태권도 발전에 합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할 때, 연맹의 수입이 적으므로 연맹발전에 협조해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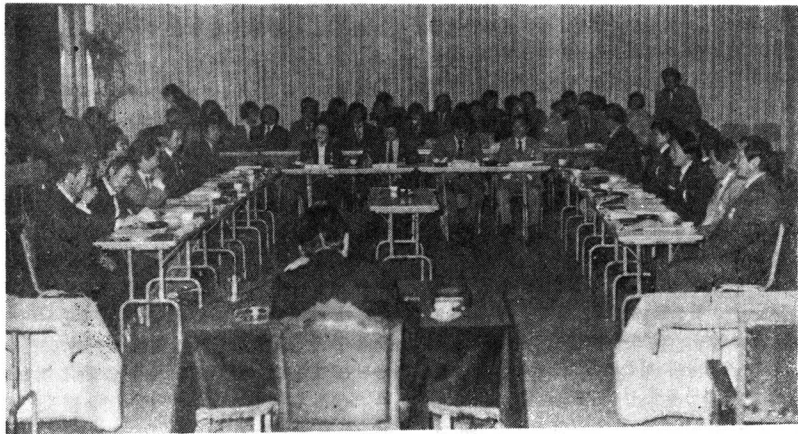
격론이 오가는 가운데 고익조대의원이 심사문제는 금전적인 문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근

본적인 제도문제로써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종호대의원및 안중응대의원의 재청, 삽청으로 김운용회장은 심사규정 제정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일단 마무리 지었다. 한편 송봉섭대의원은 82년도부터 심사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 회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하자 김회장은 보조금 인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태열대의원은 일선지도자 중에 공인단이 없는 사범의 구제책을 내놓아 주기를 바라자 심사규정 제정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국제대회에 지방임원들의 파견을 고려해달라는 건의에 김회장은 체육회해의 파견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임원을 차출해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치영대의원은 전국 소년체전에 국민학교 태권도경기가 채택되도록 건의하면서 대학진학자가 많아지도록 대학태권도부 증설에도 노력해 달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기금적립등의 방법으로도 태권도 대학 설립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대하여 회장은 국기원에 태권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이를 발전시켜 교육을 시키는 기반으로 다져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주상일대의원의 국민학교부의 소년체전 채택, 윤치영대의원의 경기장에서서의 질서 확립, 이학선대의원의 미래지향적인 대동단결의 강조발언, 박창덕대의원의 고등학생 출전회수 제한 철폐등 건설적인 의견제시가 있는 가운데 회의는 좀 전의 열띤 논조에서 점차 차분하게 장래를 설계하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대한체육회 10층 당당 창밖에서는 80년대 제 2의 도약을 위한 태권도인의 단합된 마음을 축하하는 함박눈이 쌓이고 있었다. 이제 지난날의 불협화음을 저 눈에 씻어버리고 새길을 가게 될 것이다. 태권도는!

화기로운 폐회에 이어 뉴 서울 호텔에서 오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수많은 태권도인들은 다가오는 '86아시아게임과 '88 올림픽을 향한 각자의 마음가짐을 교환하면서 오랜 겨울가뭄 끝의 서설을 즐겨워 했다.



1981년도 제2차 이사회

황춘성 전무 이사, 박희도 이사 신규 선임

구랍 12월 15일 정오 코리아나 호텔 22층 회의실에서 81년도 제 2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재적이사 11명중 8명이 참석, 8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8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심의, 중앙 대의원 선출, 임원보선과 사무국 처무 규정 승인등을 의결하였다. 황춘성 협회사무국장은 81년도 사업보고에서 국내대회 16회를 통해 5,632명이 출전하였고 국제대회는 월드게임 태권도종목에 14개국이 참가해 한국이 10체급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1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했다. 한편 심판강습회를 서울에서 2회 지방에서 3회를 개최, Ⅱ급 45명, Ⅲ급 631명에 대하여 심판자격증을 발급했다. 또 해외 10개국에 56명을 파견했다고.

이어서 인창근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인감사는 보고에서 대한태권도협회 규약 제16조에 의한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8월의 중간 감사에서 지적한 퇴직금과목의 특별회계처리, 사무국 처무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했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82년도 예산안 1억9천3백여만원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81년도 결산보고는 박승복이사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장인 한봉수 부회장의 제의에 따라 82년도 사업계획안 목표에 86년 아시안게임에 태권도 종목채택 추진을 추가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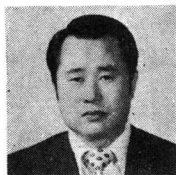
82년도 수지에산안에 대한 승인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한편, 대의원 총회에 파견될 중앙대의원 4명의 선출은 김희장의 제의에 따라 협회의 박해만 전문위원장, 권경옥 부의장, 김순배 국기원부원장, 이금홍 세계연맹 기술위원장이 결정되었다. 다음은 사무국 처무규정 및 위임전결배규의 승인이 있었다.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준해서 작성하고 법률고문에게도 자문을 얻었다는 황춘성 사무국장의 설명에 한봉수 부회장은 12월말까지 각 이사가 검토해서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동의하여 결정되었다. 잇달아 현재 공석중인 이사의 보선안이 상정되어 황춘성 사무국장이 전무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박희도장군이 이사로 증원되었다.

한편, 도장 단체가임비를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비현실적인 각종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새로 전무이사에 선임된 황춘성전무는 지난 62회 전국체전에서 불미스러운 일과 문교부 체육국의 국기원 행정감사 결과 및 전문위원회의 고등정계 조치등의 기타 보고를 했다. 또한 인창근 감사는 82년도 사업계획의 지출예산액인 1억9천3백만원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6천여만원이 부족한 점을 밝히고 협회발전을 위하여 이사들에게 찬조금 협조를 부탁하였다. 의장인 김운용회장은 폐회선언에서 지금까지의 이사들의 협조에 대하여 깊은 치하를 한다면서 앞으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위하여 계속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마의웅감사가 배운 오찬을 겸해 진행되었다.



제5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황

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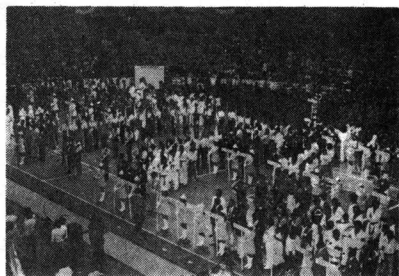
(협회 전무이사)

10 체급 中 8 체급 석권! 5연패의 위업달성을 안고 개선!

1982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南美 「에파돌」의 「파이야필」시에서 제 5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10개의 전 체급에 출전한 한국대표선수단은 지난 1월 18일부터 한달간의 합숙훈련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고 각자의 특수기술을 개발하는 등 맹훈련을 했기 때문에 종주국의 기량을 발휘하겠다는 긍지를 지닌채 2월 18일 오후 7시 10분 KAL 08기 편으로 장도에 올랐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유럽, 북남미, 아프리카, 중동의 전 대륙연맹이 대거 참가하여 무려 54개국에서 대표를 파견하고 36개국의 229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세계대회 중 최대 규모였다.

장시간의 항공여행 끝에 미국의 뉴오크공항에 도착, 숨들릴 사이도 없이 남미행 「에파돌·에어라인」으로 바뀌타고 현지적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에파돌에 도착하고자 했다. 2월 19일 「파이야필」시에 당도하여 호텔에 짐을 풀기까지는 15명의 선수단은 열대의 뜨거운 태양도 잊은채 여행의 바쁜 일정에 몸을 맡겼다.

그러나 선수들은 긴 노정의 피로도 잊은채 새벽같이 기상, 스스로 컨디션 조절과 체중유지에 신경을 쓰며 경기에 대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나는 세계연맹총회에 한국측 회의대표와 한국 선수단의 섭외라는 임무를 겸하고 있어 선수등록과 함께 회의대표등록을 했다. 2월 22일 오후에는 「오로 베르데」호텔에서 대표자회의가 있었으며 저녁에는 기술위원회의도 있었다. 한편 밤 9시에는 「대도레스토랑」에서 각팀들이



대회가 열린 콜리세오·세라도 스포츠 홀은 입추의 여지가 없는 성황을 이루었다.

모여 「콰데일」파티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에 대전추첨이 있었는데 모두들 한국팀을 기피하는 인상을 받았다. 대진운이 좋으면 메달획득이 가능한 선수들도 초반에 우리선수와 경기를 벌이면 메달에의 꿈이 좌절되기 때문이라라. 대회 개막 하루전인 2월 23일은 몹시 바빴다. 이어 10시부터는 세계연맹의 실행위원회가 있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의 주요 업무보고와 새로운 임원선출 및 차기 제 6회 세계대회의 개최지를 덴마크로 정하는 등의 일을 결정했다. 이번 임원선출에서 김운용 총재와 부총재인 미국의 「롤란드·디마르코」씨와 서독의 「하인츠·막스」씨가 유임되었다.

한편 사무총장에는 배종호씨가 승인되었으며 실행위원 선임권을 총재에게 위임했다. 이어서 차기 제 6회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결정했다. 스페인, 덴마크, 호주 등 3나라가 정합했는데 최종 결선투표에서 26:21로 덴마크가 스페인을 누르고 행운의 개최지로 낙착되었다,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경기 “물”의 협의에서는 중전대로

한편, 경기일정은 24일에 프리라이급과 헤비급, 25일에 핀, 라이트, 미들의 3계급을 26일에는 밴텀, 웰터, 라이트헤비급을, 그리고 마지막 날인 27일에 페터와 타이트·미들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저녁에는 참가국 선수단의 시가행진도 있었다.

드디어 2월 24일 아침 10시 물리세오 세라도 실내체육관에서 개최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에파들의 문교부장관, 파이아펠 시장 등 각계 유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세계연맹의 총회와 실행위원회에 참가했던 국제스포츠 지도자들이 배석했다.

대회 개막을 알리는 광파르와 함께 에파들 공군의장대원들이 대회를 앞세우고 입장했다. 그 뒤를 이어 에파들의 중학교 아가씨들이 든 참가국별 피켓을 따라 각국 선수단이 위풍당당하게 입장했다. 에파들의 육해공군 군악대들의 연주 속에 개최식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머우기 남녀학생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흥겹게 어우러진 민속 춤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쏟은 선수들의 땀을 식히기에 충분하리 만큼 울동적이었고 흥겨웠다.



대회 전날 가두행진을 하는 한국 선수단

1점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팔다리 보호구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 “물”의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더욱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대회 첫날 프라이급 경기에서 전용환 선수는 1차전에서 「리비아」선수를 맞아 「윈·사이드」한 게임운영으로 낙승했다. 이어서 「에파돌」선수와 「멕시코」선수를 파죽지세로 연전연승하여 결승전에서 자유중국의 「첸·치아수」선수와 대접전을 벌여 관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압도적인 발기술로 우승, 한국팀이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헤비급경기에서는 마상현선수가 「아르헨티나」선수와 「쿠라카오」의 선수를 맞아 체력과 체격의 열세를 기술의 우위로 극복하고 이번 대회 헤비급 우승자인 서독의 “웅”선수를 3차전에서 맞아 결국 머리하나가 더 큰 체격과 체력의 차이에 밀려 분패했다. 앞으로 우리는 신체조건이 우수한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구미인들에 못지 않는 체력을 양성, 최중량급의 불명예를 씻어야 하겠다. 대회 2일째인 25일의 경기에서는 최경량급인 핀급과 라이트급, 미들급경기가 있었다. 핀급경기에서 우리의 김기호선수는 참으로 불운했다. 핀급 1차전에서 스페인의 「에밀리오」선수를 압도적으로 「리드」하다가 주심의 「갈려！」 선언을 못들은 김선수는 「들어 찍기」 기술로 상대의 얼굴을 강타, 「에밀리오」선수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바람에 반칙패를 당해 분루를 삼킨 채 퇴장한 것이다. 여기에 격분한 우리 선수단은 심판부에 항의를 하였으나 결국은 심판의 판정에 절대 복종

하여야 한다는 설득에 분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선수단은 최경량급과 어제 있던 최중량급에서의 불운을 합심단결하여 극복하기로 결심하고 남은 경기에서는 연전연승함으로써 이역만리 남미에 「코페아」 선풍을 일으킨 것이다. 라이트급경기에 출전한 박오성선수는 이번 선수들의 주장으로 굶은 일에 앞장서와 칭찬을 들은 모범선수이다. 그는 1차전에서 이태리선수를 격파하고 이번에 처녀 출전한 일본선수와 멀리 네덜란드에서 온 파란논의 선수에게 낙승하여 준결승에서 프랑스의 「뷔도」선수를 격었다. 이어 속개된 결승에서도 스페인의 「후앙·포살레」선수를 가볍게 물리치고 영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미들급의 김상천선수는 준결승에서 미국의 강적 「얼·테이코」선수를 능숙한 경기운영으로 리드하여 압승하고 이어 벌어진 결승전에서도 바테인의 「라시드·하스다」선수의 집요한 근접전을 피해 유려한 발기술을 발휘하여 승리했다. 대회 이틀을 끝내고 우리 선수단원은 3개의 금메달에 만족하지 말고 남은 5개체급에서 모두 우승하기로 다짐했다.

3일째인 26일은 밴텀, 웰터, 라이트·헤비급 경기가 벌어졌다.

밴텀급 경기에 출전한 김종기선수는 지난 3회와 4회 세계대회에서도 우승한 막강한 전력을 바탕으로 세계선수권 3연패를 노리는 「호프」였다. 김선수는 준결승에 오르기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선수를 가볍게 눌렀다. 준결승에서 네덜란드의 「플레스」를 완벽한 경기운영으로 격고 결승전에서 맞은 스페인의 「베니토」선수에게도 전방석화같은 연속공격으로 압승, 이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히는 영광을 누렸다. 또 웰터급의 박천재선수도 강력한 「다크·호스」였던 멕시코의 「오스카·크루즈」선수를 맞아 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역투, 판정승함으로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투혼을 칭찬받았다. 이어 있는 라이트·헤비급에서도 『우리의 하용성선수는 평소의 점잖은 듯한 그의 용모와는 달리 맹렬한 「대시」로 승승장구하여 준결승에서 스페인의 「화르가스」를, 결승전에서 에집트의 「파신」을 각



페더급 장명삼선수의 수상식.

각 켜고 중량급의 강자로 군림했다.

2월 27일 대회 마지막 날을 맞아 벌어진 페더급과 라이트·미들급에서는 한국선수단의 어제까지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대선수들이 많이 위축되어 보였다. 페더급에서는 장명삼선수가 비교적 작은 체격으로 키 큰 외국인선수들을 상대로 가르치려는 듯, 재빠르고 강력한 공격「파워」를 구사하여 혼술을 빼었다. 그는 페루·콜롬비아·자유중국 선수들을 연전연파하면서 결승에 진출 멕시코의 「브랑요」선수를 연속하여 강타, 비틀거리게 하면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어 관중들의 환호에 보답했다. 또 라이트·미들급에서는 정국현선수가 이태리, 수리남, 프랑스 선수 등을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 서독의 「가르트너」선수에게 호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벌어진 결승전에서도 정선수는 「홀·그라운드」인 에파들의 「캉가」선수를 일방적으로 공략 대망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3월 27일 밤 9시 모든 경기가 끝나고 폐회식에서는 금메달 8개를 획득한 한국이 종합우승을 하여 5연패의 영광을 차지했다. 종합전적 2위에는 금 1, 은 1을 차지한 에파들이, 종합 3위는 금 1 동 2을 따낸 서독이 각각 입상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나라는 모두 13개국에 달하여 태권도의 실력평준화를 절실히 느꼈다.

이번 대회는 열정의 기풍으로 널리 알려진 남미대륙의 「에파들」에서 개최된 점이 특이하였고 또 우리 선수들이 열대의 작열하는 기후조건하에서도 태권도 중추국의 면모를 충분히 보임으로써 국위선양의 한 몫을 단단히 해내었다고 본

이번 대회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음양으로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언론규부회장님은 선수단을 위해 「파이야릴」의 호텔마다 뒤져 주방시설이 있는 일류호텔을 선정해 주시어 우리 선수들의 영양섭취에 깊은 배려를 하셨고 또 미국을 경유할 때에도 새벽 2시에 맞으러 나오시어 하마터면 「L.A」의 더아가 될 뻔한 우리를 예약호텔로 안내해 주셨다. 에파들주재 이법재, 강병우 두 사범은 이번 대회 준비에 노고가 컸다. 그들의 태권도에 대한 정열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런 한국 사범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한 한국인의 일이 빛나리라고 생각해 본다. 또 콜롬비아의 이경득사범을 비롯하여 가는 곳마다 현지 사범들이 친절히 대해 준 점을 잊을 수 없다. 아무쪼록 김두원단장과 안영택감독, 김인수·강선장 코치를 위시한 선수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이트·헤비급 하용성선수도 금메달 획득

한편 대회의 폐막후 선수단 일행은 콜롬비아로 비행하여 친선대회와 시범을 보였다. 콜롬비아에서는 이나라 제 2의 도시인 메데린시 종합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가졌다. 메데린시에는 콜롬비아인들로 구성된 태권도 협회가 있어 이나라 태권도 보급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번 한국대표선수단의 콜롬비아 방문으로 현지에서는 대대적인 태권도 붐이 일어났다. 우리 선수단은 메데린시 종합경기장에서의 시범을

마치고 이어서 안팩오 퀴오 국립대학에서 태권도부원들을 지도했다. 3월 3일 콜롬비아를 출발한 선수단은 미국의 「로스·앨젤리스」를 경유, 디즈니랜드의 견학을 한 후 3월 7일 귀국했다.

다음은 이번 대표선수단의 합숙훈련에 답지한 성원품이다.

5회 세계대회 한국대표 선수단 성원품

업운규 : 100,000원

이금홍 : 100,000원

중교연맹 : 50,000원

이석원 : 20,000원

윤성열기자 : 굴 1상자

김순배 부원장 : 사과 1상자

이승국 : 굴 1, 사과 1

노상석 : 음료수 2Box

이영근 : 박카스 4Box

해군대표선수단 : 사과 1Box, 음료수 1Box

5공수선수단 : 음료수 1Box, 과일 1Box

바레인선수단 : 굴 1Box

리비아선수단 : 음료수 2Box, 과일 1Box

3공수 : 박카스 2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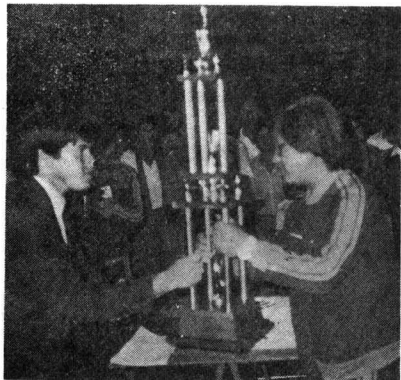
박오성씨 : 굴 1Box

해병대 예비역 대표 강선만 : 과일 2Box

간석체육관 : 박카스 3Box

동성고교 : 과일 1Box, 음료수 1Box

루생고 : 주스 2Box



콜롬비아 메데린시에서 친선경기를 끝내고 메데린시 태권도협회장이 안영택 감독에게 기념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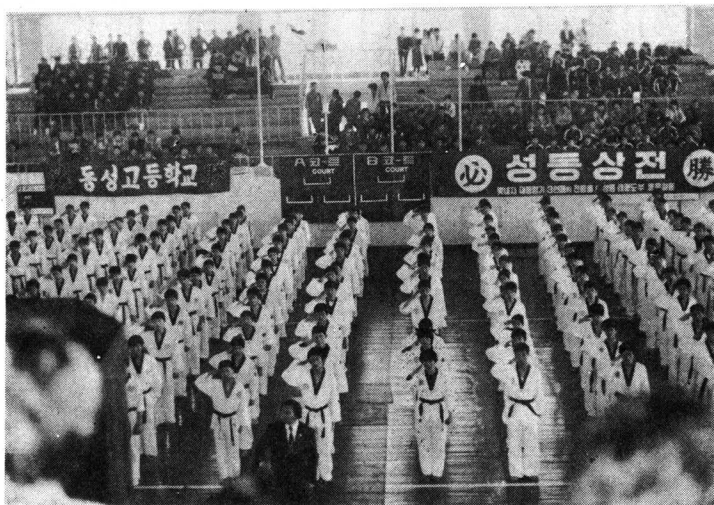


전두환 대통령의 축전을 현지의 조기성 참사관이 전달해, 선수단이 집합한 가운데 김두원 단장이 이를 낭독하고 있다.

82년도 전국 종별 신인선수권 대회

경기분과 위원장 김 봉 기

1,180명의 신인선수들이 7일간 격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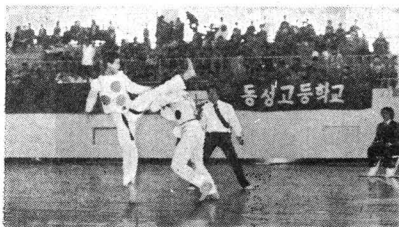


82년도 전국 종별신인선수권대회가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국기원에서 열렸다. 단일 대회로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돌파한 약 1,200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대회는 중등·고등·대학·일

반부와 여자부의 5개부 46개 체급별 신인선수권자를 뽑는 금년의 「오프닝, 게임」이라 할 수 있다. 대회 첫날 오전 10시에 김운용 대한태권도 협회장은 치사를 통해 「태권도가 세계적 스포츠로서 팔복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즈음에 우수한 신인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 발굴되어 주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올림픽 시범종목에 채택된 만큼 중주국의 태권도 선수로서 보다 세련된 매너를 보여 주길 바라고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의 계기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속개된 첫날 경기에서는 처음 출전한 참가 선수들이 긴

장한 타트로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145번째 게임인 고등부 반탐급전에서 청주상고 전연서선수가 유장훈선수를 맞아 1회 1분40초만에 옆구리를 뒷차기로 강타 다운을 뒀는 등 선전하여 관정승을 거두었다. 대회 이틀째인 3월 21일에는 의외로 열전이 벌어졌는데 계체실격이 39명이나 되어 선수들의 체중판리가 소홀함을 나타내었다. 또 신인선수권전이 자중대회의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라야 참가자격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선수들이 속속 적발되어 선수는 물론 코치들의 양식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한 관계자는 이런 현상을 고등부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직결되는 특기자 혜택에 따라 고등학생 선수들의 과욕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양심을 숙여 가면서까지 대학에 가야만 하느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날 180번째 게임 페더급 경기에서 포천중고의 하완선선수는 우금수선수와 1회전에서는 별다른 득

점없이 법전을 벌이더니 2회전에서 1분10초 경에 뒤편치기를 덩치에 차넣어 통쾌한 K.O승을 거두었다. 또 190번째 게임인 역시 패머급에서 한성고의 최장익이 이성주를 1회에 한번 다운시키는 등 압도적 경기운으로 낙승했다. 이날 폐



머급경기는 신인선수담지 않은 우수한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많았다. 한편 라이트급인 233번째 게임에서 안중종고의 박중석은 2회전에서 연기호의 얼굴을 왼발로 강타 연선수의 오른쪽 얼굴에 상처를 입히면서 K.O승을 거두었다.

한편 372번부터 531번까지의 게임이 속개된 대회 3일째에는 반칙으로 인한 실격승이 있어 특이 했다.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같으면 출처럼 나오기 힘든 장면이었다. 고등부 핀급 경기인 동대문 상고의 나걸수 선수를 천안상고 박기정 선수가 3회 1분 0초가 경과할 때 주먹지르기로 얼굴을 쳐 부상을 입힘으로서 실격패를 한 것이다. 이는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경고(-0.5점) 및 감점(-1점) 이상의 고의적으로 얼굴을 공격하여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때는 공격한 사람을 패자로 한다는 「룰」에 의한 것이다

대회 4일째와 5일째는 기량차이가 거의 없는 선수들의 신중한 경기운으로 특이한 경기는 없었으나 일반부경기에서는 감정적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 두명이나 나와 상대선수의 이를 상하게 하는 등 스포츠정신을 흐리게한 일도 있었다. 특히 기량이 모자라는 탓으로 득점을 많이 뺏긴 선수가 경기에는 이길 수 없자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사례는 비겁한 행위로 부끄러워 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일부 군인선수들은 「2등은 없다」는 감투정신에서인지는 몰라도 응원에 열중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는 소속팀선수가 지자 유리창을 깨는 등 부대의 명예를 더럽힌 일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부 경기에서는



승패가 선언되면 서로 상대방 코치에게 정중히 예절을 표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 지성인들이 역시 다르다는 관중들이 많았다. 대학부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웰터급의 유도대학의 최병조선수가 연세대학의 김범진선수를 맞아 계속 고전하다가 3회 56초만에 몸돌아차기로 턱을 강타 호쾌한 역전 K.O승을 거둔 장면이었다. 26일은 전체급 준결승과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판정에 대한 불복사태가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관세임원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반부 페머급 결승전에서 ○공수의 유상철이 비호부대 임병준에게 판정패하자 응원단 전원이 스탠드에서 뛰어들어 집단난동을 벌여 약 10분간이나 경



기가 중단되었으며 결승전을 관람하려고 몰려든 학생 등 관중들의 비난을 샀다. 이날 형편없는 것을 한 응원단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전쟁터와 정정당당히 싸워 심판의 판정에 따라야 하는 경기장을 착각한 듯. 한편 하루전인 25일에도 라이트 헤비급 준결승전, ○○부대의 김중자 대 성기봉의 경기에서 김중자가 판정에 불복 모포를 덮으며 빈병을 깨뜨리는 등 소동을 부리자 같은 부대 소속인 모대위까지 합세 채점표를 찢는 등 강요로써의 체통까지 찢어버렸다.



상자들은 앞으로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과
란을 물고오리 만큼 실력이 뛰어난 점으로 열전
7일간의 우여곡절을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경
기장에서 질서를 파괴한 비겁한 사람들에 대한
후속처리는 상벌위원회에서 엄중처리될 것임을
덧붙인다.

끝으로 이번 대회 기간 중에 노고가 많았던
협회의 임직원 여러분과 경기위원 및 심판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번에 표창을 받은 오
용진, 장순권, 전동욱, 김안자 심판원들에게 축
하를 드린다.

이번 82년도 신인선수권대회는 갖가지 전기
록 속에서 끝내었으며 새로 탄생한 184명의 입



〈입상자 명단〉

(중등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 위	김상래	청주남
		2 위	나근호	선덕
		3 위	김 용	단국
		3 위	최영우	경수
플 라 이	급	1 위	양춘열	보성
		2 위	연규성	형석
		3 위	유영창	청담
		4 위	안찬호	경수
밴	급	1 위	이찬희	형석
		2 위	민형규	성수
		3 위	정 한	한성
		4 위	안홍수	광동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페 더	급	1 위	엄명석	음성
		2 위	박태진	청담
		3 위	강병길	경수
		3 위	금창길	문산북
라 이 트	급	1 위	강명환	진천
		2 위	조의준	진덕
		3 위	황기연	목동
		3 위	김해국	경수
웰 터	급	1 위	진승구	문산
		2 위	박종환	원산
		3 위	김동규	문일
		3 위	한상곤	경선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미 들	급	1위	공호권	옥천	
		2위	김성준	문일	
		3위	유원홍	경수	
		3위	원유성	성수	
해 비	급	1위	이권희	마포	
		2위	김충근	선덕	
		3위	박정배	한성	
		3위	신준호	군산	

(고등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위	승영태	南大田高	
		2위	한성동	城東商專	
		3위	김정훈	만경고	
		3위	안덕기	麻浦高	
플 라 이	급	1위	박상만	南大田高	
		2위	홍영수	城東商專	
		3위	승병무	南大田高	
		3위	유태욱	항도실고	
밴	팀	1위	임종환	全南體高	
		2위	박기정	東大門商高	
		3위	지형진	大田體高	
		3위	민관철	문태고	
페	미	1위	정호영	全南體高	
		2위	조원권	大邱工高	
		3위	명원석	漢城高	
		3위	김대환	南大田高	
라 이 트	급	1위	김문현	만경고	
		2위	김성일	南大田高	
		3위	명규준	大邱工高	
		3위	최만호	시온高	
웰	터	1위	이승주	大田體高	
		2위	이강영	東星高	
		3위	유재성	大邱工高	
		3위	홍희열	東洋工高	
라이트미들	급	1위	이임근	금호고	
		2위	최갑봉	천호상전	
		3위	함윤수	은양고	
		3위	최민호	안흥전자	
미	들	1위	이계행	학다리고	
		2위	여태공	城東商專	
		3위	김득만	경민상고	
		3위	김진호	全南體高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라이트해비	급	1위	김성경	大田體高	
		2위	김상필	항도실고	
		3위	윤일선	城東商專	
		3위	고상진	시온고	
해 비	급	1위	김규만	군산중앙고	
		2위	김세명	仁川體高	
		3위	박경호	崇實高	
		3위	박용신	강천상고	

(대학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위	허범술	仁川體大	
		2위	정해덕	"	
		3위			
		3위	차주현	世宗大學	
플 라 이	급	1위	이상문	仁川專門大	
		2위	한기동	"	
		3위	노진기	"	
		3위	김종만	"	
밴	팀	1위	정창현	"	
		2위	천정필	"	
		3위	현대봉	"	
		3위	오부환	유대	
페	미	1위	안진석	신일전문대	
		2위	박상하	인천	
		3위	조병환	전국	
		3위	함승용	유대	
라 이 트	급	1위	정인천	"	
		2위	지화수	인천체대	
		3위	박만오	"	
		3위	강호일	"	
웰	터	1위	북경수	일천전문대	
		2위	김종만	"	
		3위	한인수	인천체천	
		3위	김창욱	전대	
라이트미들	급	1위	한상환	한양대	
		2위	이성국	유대	
		3위	이영기	인천체대	
		3위	구본기	"	
미	들	1위	김주명	"	
		2위	신형주	"	
		3위	한정호	유대	
		3위	이승인	신일전문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라이트해비급		1위	김재열	"	유대 인천체대
		2위	이계영		
		3위	신만순		
		3위			
해 비 급		1위	이백원	"	세종대 인천체대
		2위	고옥종		
		3위	조의장		
		3위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라이트해비급		1위	성기봉	동명	5공수
		2위	박완일		
		3위			
		3위	조만성	13공수	
해 비 급		1위	홍순천	13공수	5공수 참피온 신촌
		2위	황기성		
		3위	김구현		
		3위	홍정호		

(일반부) 續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위	정승영	중앙	간석 명지대 용인
		2위	이종원		
		3위	김성근		
		3위	백국현		
플 라 이 급		1위	이경근	한남	5공수 쌍용 5공수
		2위	김익중		
		3위	강경석		
		3위	이성철		
밴 팀 급		1위	노윤환	13공수	" 소림 온양
		2위	차도환		
		3위	이성환		
		3위	박찬규		
페 터 급		1위	임병준	비호	5공수 선우 13공수
		2위	윤성철		
		3위	임창일		
		3위	이인식		
라 이 트 급		1위	기기호	5공수	여주 박쥐 13공수
		2위	김서현		
		3위	연구현		
		3위	이택근		
헬 터 급		1위	강행위	5공수	비호 13공수 "
		2위	안대식		
		3위	이동춘		
		3위	정덕준		
라이트미들급		1위	김영훈	비호	" 5공수 13 "
		2위	이광호		
		3위	정영화		
		3위	양재복		
미 들 급		1위	신용호	"	5620부대 경부 5공수
		2위	장성우		
		3위	이현휘		
		3위	이상서		

(여자부)

체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급	1위	김효진	시온고	금호 성암고 영복고
		2위	배은정		
		3위	최혜숙		
		3위	김정임		
푸 라 이		1위	문숙현	동명고	성암고 " 동명고
		2위	김정화		
		3위	윤해경		
		3위	송소영		
밴 팀		1위	김명옥	청산고	은광고 성암고 仁川體大
		2위	송선희		
		3위	이연숙		
		3위	백진숙		
페 터		1위	이순애	은광고	" 성암고 " "
		2위	송영희		
		3위	최춘희		
		3위	이연옥		
라 이 트		1위	송영숙	"	청상 전남체고 동명
		2위	김소영		
		3위	이형순		
		3위	송혜경		
헬 터		1위	박우수	전남체고	청산고 대전체고 청산고
		2위	김지숙		
		3위	한춘애		
		3위	김소양		
미 들		1위	이희경	영동도창	대전체고 청산고
		2위	최영한		
		3위	송진희		
해 비		1위	장영란	청산고	선일여고 안양삼촌
		2위	김현숙		
		3위	이선아		

82년도 신인선수권 영예의 우승자



▷ 위 : 고등부 1위, 아래 : 중등부 1위



▷ 위 : 대학부 1위, 아래 : 여자부 1위



▷ 여자부 1위

세계로 뻗어가는 태권도

태권도가 IOC의 공인종목으로 채택된 후 지구가족들에게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이제까지 가라테가 판을 치던 곳에서도 태권도협회가 결성되고 경기를 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열리는 88올림픽에서 이미 시범종목으로 채택된바 있는 태권도는 「핀란드」, 「리베리아」, 「페루」에서 경기종목으로 공인되었다. 또한 유럽의 태권도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서독과 스페인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게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호수의 나라 핀란드

크고 작은 6만개의 호수가 있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핀란드



<개황>

면적 : 337,009km²

인구 : 470만(1969년 추정)

수도 : 헬싱키

인종 : Finn족

호수면적 : 총 면적의 11%

종교 : 루터파 복음교회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호수의 나라 「핀란드」! 극지의 얼어붙은 땅에서도 태권도는 그 정열의 뿌리를 뻗고 있다. 스스로 「수오미」(Suomi : 湖水의 나라)라고 자칭하는 핀란드인들은 국토면적의 11%에 달하는 호수에서 세계 최북단의 근대농업을 하면서

(북위 59°30'~70°05') 국토의 70%를 점하는 산림을 이용한 임업에 열심이다. 그러나 지리적 약조건을 극복한 핀란드인들은 강인한 의지를 자랑하며 독립의 기상이 풍부하고 상호협조의 정신이 드높아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다. 핀란드국민의 생활수준은 매우 높아서 농촌에서도 자동차가 집집마다 있다고. 또한 스포츠에 대한 열의도 매우 높아 전설적인 육상선수인 「파보·누르미」가 바로 핀란드사람이다. 그는 1920년 7회 올림픽에서 1만m에서 우승하였고 이어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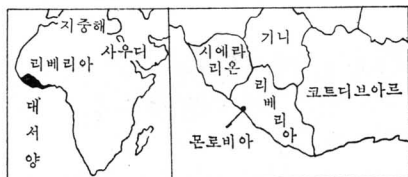
년 파리올림픽에서는 4종목에서 우승했었다. 현재 핀란드에는 우리의 황태진(7단, 인천출신)사범이 79년 이때 태권도의 얼을 심고 있다. 맨처음 2명의 수련생으로 시작, 각고의 노력으로「핀란드 태권도연맹」을 조직하고 산하 6개지부에서 600여명을 지도하고 있다. 황사범은 처음 핀란드에 왔을 때 하루에도 몇번씩 눈물을 삼키곤 했다고 한다. 한국사람이라고는 대사관원과 유학생 2명 밖에 없었고 게다가 유도·가라테의 방해 공작으로 핀란드 체육회의 가일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6개월마다 노동허가를 받으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오직 대한의 국기, 태권도인이라는 긍지로 버티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6개월 켜이나 눈이 내리는 겨울나라 핀란드에서 한알의 작은 태권 씨앗이 움트고 있는 한, 복구의 태권도는 얼어 붙지 않을 것을 그는 힘주어 다짐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리베리아의 태권도!

꼭 쟁구머리같이 생긴 아프리카대륙의 뒷통수 부분에 흑인 공화국 「리베리아」가 위치하고 있다. 최근 제3 세계의 대두로 아프리카의 국제적 지위는 대단히 향상되었다. 리베리아에 태권도가 상륙한 것은 81년 9월에 이범걸사범(6단)이 「사우디」에서 옮겨 왔을 때이다. 그는 『한국

아프리카

리베리아 인접국



〈리베리아 개황〉

면적 : 11만km²

인구 : 113만(1968기준)

수도 : 몬로비아(자유항)

인종 : 니그로 89%, 아메리카 니그로 8%, 백인 1%, 기타 1%

종교 : 카톨릭

기후 : 열대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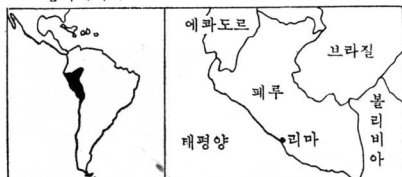
을 태변할 것은 태권도가 으뜸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이 지역에서 심혈을 기울리겠습니다』고 말했다. 리베리아 태권도협회장으로 혁명위원회 대변인 「제플러·그바투」씨가 선임되면서 협회활동은 활발해졌다. 이사법이 주축이 되어 현지 수련생들에게 품새, 용어, 겨루기등을 가르쳤다. 작년 10월 25일에는 「몬로비아」시의 중심가 로에빌딩에서 리베리아 체육성장관,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하고 이시영 주 리베리아대사동교포·언론 및 실업계 명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창립기념 시범대회를 가졌다고, 이사법은 82년부터 리베리아의 5천4백50명의 군인과 경찰 특히 경호실요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친다. 대서양이 내려다보이는 리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에서도 「타렛」, 「경베」, 「태권」, 「하나! 둘! 셋!」의 우리말 구령이 바야호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남미의 페루, 81년도 말에 협회 결성! 육군사관학교의 정식교과채택도!

남미의 페루에서도 태권도의 날개짓은 힘차다. 정의광사범(4단, 80년 파견)에 의하면 페루에서

남아메리카

페루인접국



〈페루개황〉

면적 : 128만5천km²

인구 : 1,320만(1969기준)

수도 : 리마

인종 : 백인 및 백인혼혈 53%, 인디언 46%, 일본인민종 1%

언어 : 스페인어

종교 : 카톨릭

기후 : 열대성기후

는 군의 전투병과 중에 무도병과가 신설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의광사범은 지난 80년 방한한 리치아르·브라더 육군참모총장이 우리의 육사생들이 보인 태권도시범에 감탄하여 귀국하는 즉시 사범파견을 요청하여 선발된 것이다. 현재 정사범은 페루의 육사와 하사관학교 및 경찰학교에서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언어장애때문에 처음은 당황했으나 우리말 용어와 구령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극기를 육사체육관에 걸고 예의법절에서부터 지도했습니다. 81년 11월에는 태평양 박람회 중, 「한국의 날」을 정하고 태권도시범을 보여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5회 세계선수권대회에 파견할 페루대표선수선발을 위한 선수권대회를 수도 「리마」에서 개최하여 페루체육회장인 「기에르모·그리피베스」씨는 즉시 공인을 했다고. 또 가라베 협회장이었던 「텔가도·압마시오」씨가 초대태권도협회장을 맡음으로써 태권도는 한층 콧대를 높였다고. 그는 또 수제자인 카를로스·침(2단)생도가 육사를 수석졸업하여 참모총장으로부터 받은 장검을 내게 주면서 「오늘의 영광은 사범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인사할 때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정사범은 에콰도르에서 열린 5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선수 9명과 같이 참가하여 훌륭한 기량을 발휘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 꽃핀 김정숙 3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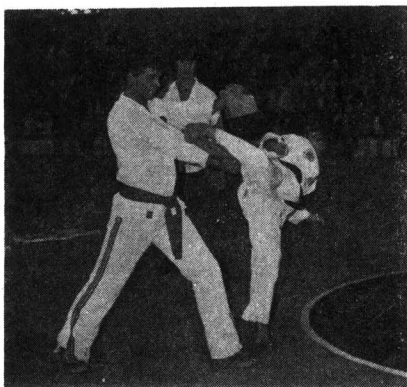
코흘리개였던 어린날, 무척이나 개구졌던 나는 오빠들의 천덕꾸러기였다. 태권도장에 갈 때



마다 귀찮게 쫓아다니던 덕에 군산의 화랑도장에서 시작한 나의 태권도는 국민학교 6학년일 때 1품의 허리띠를 두르게 됐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근처(광천) 미군부대에서 장교 아저씨들을 가르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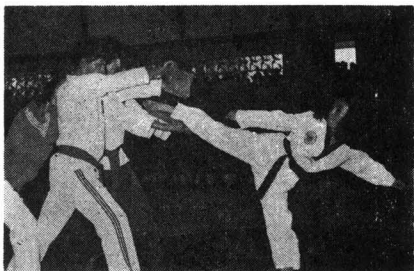
시작했다. 코가 유달리 큰 그 아저씨들, 어린 처녀 앞이라서인지 경례 한번 잘했던 것 같다.

15살에 벌써 3품이된 나는 미술시간에 보았던 「플라멩고」춤의 나라! 유명한 투우의 나라, 스페인에서 여자 사범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멋진 「오피스 레디」를 꿈꾸던 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하시는 아버님을 따라 1980년 9월 12일부터 스페인에서 살게 되었다. 그 때 부터 나의 생활은



태권도가 전부였다. 그해 10월 27일 「싼탄델」에서 처음 보였던 태권도 시범과 장구춤. 부채춤, 은 단발머리 검은 눈의 한국소녀를 일약 「슈퍼·우먼」으로 만들었다. 먼 아시아대륙의 동쪽끝,

한국에서 온 어린 처녀의 품으로 오직 태권도를 한 덕분으로 이역만리 유럽의 전통왕국 스페인에서 갈채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싼탄델」에서의 성공은 태권여성의 우아하면서도 폭발적인 「파워」에 「쇼크」를 받은 한편 동양적인 선의 아름다움을 선보인 춤사위에 매료된 덕이라고 본다. 나의 화려한 「메뉴」는 한번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싼탄델」에 이어 그해 11월 1일은 「비토리야」에서, 11월 15일은 「마드리드」에서, 또 12월 22일 「빌바오」에서 계속 태권도와 한국 춤사위를 연결해서 시범을 보여 많은 찬사와 격려를 얻었다. 게다가 스페인의 태권도 선구자이



신 여러 고단자 선배님이 협조해 주신 합동시범에서 나는 동료애, 이상의 태권도가족애를 피부로 느끼곤 했다. 이제 나는 스페인 어린이들을 지도하면서 또 순회시범을 하면서 태권도의 얼을,



한국인 특히 한국 여성의 우아함을 스페인국민들에게 깊이 심어 주겠다고 다짐한다. 지금의 나는 우리 말을 스페인 수련생들에게 가르치는 국어선생으로,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태권도의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선생으로, 우리의 춤을 가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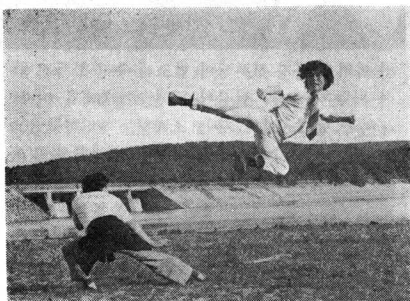
를 가르치는 역사선생으로, 우리의 춤을 가르치

는 무용선생으로, 더우기 국기 태권도를 지도하는 처녀 사범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곧 대학에 입학해서도 우리의 얼을 더욱 깊이 있게 가르킬 수 있도록 공부하겠다고 다짐한다. 한국 여성의 정숙함과 우아한 아름다움, 또 기개를 스페인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서독 도르트문트의 정호연사범

1977년도에 서독에 파견된 정호연사범이 소식을 전해 왔다. 그는 현재 Beckum, Soest, Hamm 3개의 도시에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으며 그간 40여명의 유단자를 배출하여 태권의 뿌리를 깊게 하고 있다. 눈코 뜰 사이없이 3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보급하는 한편으로 도르트문트 대학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정호연사범은 유창한 독일어 실력으로 지역 시민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유지급 인사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의사회와 경찰학교에서 개인지도를 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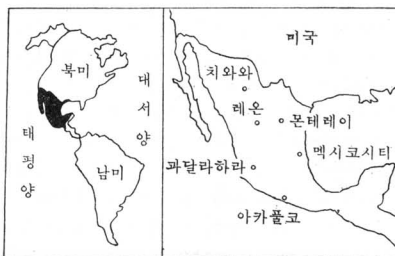
그는 근면 정직한 독일인들의 생활태도에서 배우는 점이 많다고 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욱 친근감이 든다고, 그러나, 합리적이면서도 철저한 독일인들은 운동을 하는 면에서도 따지



기를 좋아하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여 난처할 때도 있었다고. 요즈음에는 매주 토요일에 수련생의 부모들을 초청, 수련장면을 관람시키면서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한편 도르트문트시를 비롯한 인근 순회지역 도시들의 「매스콤」에서는 태권도에 관한 기사를 자주 실고 있으며 야외수련을 할 때는 인근 주민들도 참여하여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고 했다.

멕시코, 태권도의 새 무대!

대한태권도협회총무부장 이 석 원



〈멕시코 개황〉

면적 : 197만2천5백km²

인구 : 약 5천만

언어 : 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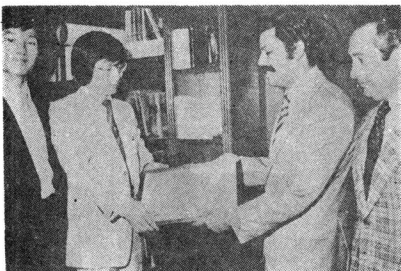
인종 : 멕시코인(60%), 토착인(30%), 백인(10%)

수도 : 멕시코시티(인구 1,000만 해발 2,240m에 위치)

1846년에 멕시코 아메리칸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은 대승하여 「텍사스」·「뉴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주를 멕시코로부터 흡수하고 대신 1,5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우리는 종종 서부영화에서 키를 넘는 선인장 「사보넬」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아왔다. 강대국 미국의 거대한 체격에 눌려 살아온 듯한 멕시코이지만 이제 그들은 년평균 경제성장률이 7%가 넘는 새로운 중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검은

황금인 석유가 쏟아져나와 「오일·머니」가 그들의 새로운 자존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벌써 1968년에 해발 2,240m나 되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을 치른 그들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북성에서 멕시코인들의 「화이트」를 치는 「와일드」한 주먹을 보아왔다. 또 스페인의 오랜 통치의 유물인 멕시코 투우를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낙후된 멕시코, 무법자의 총소리에 공포를 감추는 허약한 농부들의 나라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아스테크」문명이라고도 일컫는 고대 「마야」문화를 자랑하는 그들은 새로운 부국건설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1963년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문화협정도 되어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문



대원사범이 몇개의 태권도장을 개설, 보급에 여념이 없고 「과달라하라」시에는 정창환사범이 3년 전부터부터 태권도 「불」을 조성하여 5명의 한국사범이 활약하고 있다. 멕시코에는 가라테·쿵후등이 일찍 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폭발적인 태권도의 파괴력과 기동성있는 무술기법이 다혈질인 멕시코인들에게 인기가 높아진 것은 불을 보는 듯 빠른 이치. 이번 한달 남짓한 멕시코방문 중에 「과달라하라」시의 태권도보급현황을 파악하고 그 전망을 대다 볼 때 나는 멕시코인의 강건한 투쟁정신과 또, 그들의 유연성 넘치는 체격조건에서 볼모지나 다름없는 멕시코의 태권도가 떨어나가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간 중에 「과달라하라」시장과 공보실장을 방문, 감사장을 전달하고 한국·멕시코

양국간의 태권도를 통한 우호증진을 다짐하였다. 또 가라테협회에서 태권도로 전향하겠다는 희망을 비쳐와 새삼 태권도의 위력을 되새겼다. 한편, 「과달라하라」시장은 한국의 태권도협회와의 자매결연을 요청, 앞으로 이를 추진하여 계속 한국사범을 파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번 방문기간 중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준 정창환사범에게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리면서 차후,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태권도의 새 무대 멕시코에 뛰어 들어가 대한의 얼을 깊이 심을 것을 다짐한다.

홍콩의 봉석근 사범, 마카오에 상륙



홍콩에서 활약 중인 봉석근사범은 지난 3월 19일 「마카오」의 보안사령부를 방문, 부사령관 「나방제」씨에게 기증패를 전달하고 이 부대의 태권도 보급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나」부사령관은 태권도가 이 부대의 임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격찬했다. 한편 홍콩의 경찰이며 태권도인인 「장용무」·「정병리」씨와 홍콩의 중국인 태권도협회의 간사인 「심로생」이 동석했으며 마카오에서는 이 부대의 부처장 「타사」 부대장 「백덕교」씨 등이 배석했다. 이제 마카오에서도 태권도는 유력한 지원 세력을 얻은 것이다. 한편 봉석근사범은 대한태권도협회와 긴밀한 협조아래 제 5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의 준비에도 깊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 홍콩은 물론 마카오에도 태권도보급을 심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 5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Report of the 5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세계 태권도연맹(사무국제공)

〈편집자 주〉 다음은 세계 태권도연맹의 사무국에서 제공한 제 5 회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의 결과보고이다. 이에 의하면 총 54개국이 관제임원을 파견, 총회에 참가하고 36개국 의 선수 229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중주국 한국은 최경량급인 「핀」급과 최중량급인 「해비」급에서 예선탈락을 하고 나머지 8체급에서는 모두 우승,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종합우승을 함으로서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편 태권도의 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에 따라 폴란드와 헝가리등 공산권에서도 참가,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중 최대규모로써 성황을 이루어 그동안 대회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세계연맹의 실무진은 크게 보람을 느끼기도.



2월 23일 저녁 이번대회 전야제에서 시가행진을 벌이는 각국 선수단.
에콰도르 선수단의 열정적인 모습이 이색적이다.

A Scene of the parade in the Eve of the 5th W.T. Championships.

V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1. SCHEDULE OF ACTIVITIES

DATE	TIME	EVENT	PLACE	PERSONS CONCERNED
Feb. 13-17	00:00-24:00	Arrival & Pick up	Airport	National Teams
Feb. 18	00:00-24:00	Arrival & Pick up	Airport	National Teams
Feb. 19	00:00-24:00	Arrival & Pick up	Airport	National Teams
	08:00-10:00	Registration for Referee Seminar	WTF Office Edif. C.O.E.	Applicants
	09:00-17:00	Referee Seminar	Auditorium Edif. C.O.E.	Candidates
	09:00-17:00	Registration for Delegation	Organizing Committee Edif. C.O.E.	Members of the Delegation
Feb. 21	00:00-24:00	Arrival & Pick up	Airport	National Teams
	09:00-17:00	Referee Seminar	Auditorium Edif. C.O.E.	Candidates
	09:00-17:00	Registration for Delegation	Organizing Committee Edif. C.O.E.	Members of the Delegation
Feb. 22	00:00-24:00	Arrival & Pick up	Airport	National Teams
	06:00-17:00	Registration for Delegation	Organizing Committee Edif. C.O.E.	Members of the Delegation
	10:00-12:00	Referee Meeting	Hotel Ore Verde	International Referees
	14:00-17:00	Team Head Conference	Hotel Oro Verde	Representatives of each national team
	19:00-	Technical Committee Meeting	Hotel Oro Verde	Members of the Technical Committee and national Technical Directors
Feb. 23	21:00-	Welcome "Cocktail"	Gran-Chife	National Teams
	00:00-24:00	Arrival & Pick up	Airport	National Teams
	08:00-	Liaison Meeting	Hotel Oro Verde	
	09:00-	Drawing Lots	Hotel Oro Verde	Representatives of each national team
	10:00-	Executive Council Meeting	"	Members of Executive Council
	14:00-	General Assembly Meeting	"	National Delegates & Executive Council Members
	17:00-	Special Program	Adjunto	All the Participants
	21:00-	Welcome "Cocktail"	Sala del Dragon Dorado	All the participants
Feb. 24	08:00-	Weigh-In(2 Categories)	Coliseo Cerrado	Competitors concerned

DATE	TIME	EVENT	PLACE	PERSONS CONCERNED
	09:00-	Rehearsal for Opening Ceremony	Coliseo Cerrado	All the participants
	11:00-16:00	Eliminations	"	Competitors concerned
	18:30-18:50	Teams Parade	"	All the participants
	18:50-19:00	Opening Ceremony	"	All the Participants
	19:10-19:25	Folklorical Exhibition	"	
Feb. 25	08:00-	Weigh-In(3 Categories)	"	Competitors concerned
	11:00-16:00	Eliminations	"	"
	19:00-23:00	Semi-finals & Finals	"	"
		Awarding Ceremony		
Feb. 26	08:00-	Weigh-In(3 Categories)	"	"
	11:00-16:00	Eliminations	"	"
	19:00-23:00	Semi-finals & Finals	"	"
		Awarding Ceremony		
Feb. 27	08:00-	Weigh-In(2 Categories)	"	"
	11:00-16:00	Eliminations	"	"
	19:00-23:00	Semi-finals & Finals	"	"
		Awarding & Closing Ceremony		
	24:00-	Banquet	Sala del Dragon Dorado	All the participants
Feb. 28		DEPARTURE		

2. Participants in the 4th Executive Council Meeting

Guayaquil, Ecuador

Feb. 23, 1982 10:00~12:00 am

Executive Council

Members

Un Yong Kim

Marco Saila

Josiah Henson

Abdel Darwish

J.J. Thoutenhoofd

Heinz Marx

David Rivenes

Chong-ho Bae

Chong-woo Lee

Woon-kyu Uhm

Yuan, kuo-ch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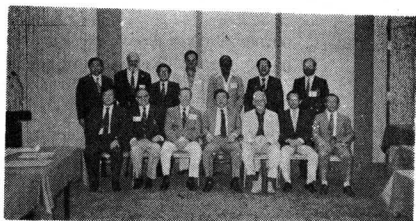
William McWen

Auditor

Nam-suk Lee

Observer

B. Th. Dedegbe



세계 태권도 연맹의 실행위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Members of the WTF Executive Committee)

3. Participants in the 5th General Assembly Meeting

Guayaquil, Ecuador

Feb. 23, 1982 14:00~17:00

Executive Council Members

Un Yong Kim	1
Marco Saila	2
Josiah Henson	3
Abdel Darwish(proxy : Alaa Zaki)	4
J.J. Thoutenhoofd	5
Heinz Marx(proxy : Kloweit Manfred)	6
David Rivenes	7

Chong-ho Bae	8
Chong-woo Lee	9
Woon-kyu Uhm	10
Yuan, Kuo-cheng(proxy : Yuan, chen-wen)	11

Bahrain	Yousif Essa	12
Libya	Kholid Bogend	13
Lebanon	Riekallahmound	14
Jordan	Mas Bazadouaw	15
Ghana	Kwak, ki-ok	16
Mauritius	Hung Wai Wing	17
Morocco	Benomar M'Hammedi	18
Benin	B. Th. Dedegb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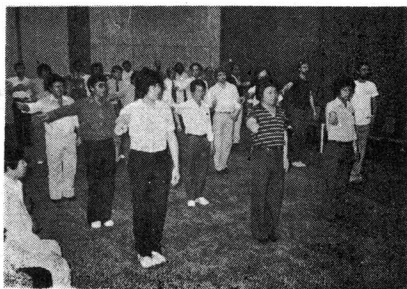
제 5 회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광경.
The 5th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WTF.

Europe

Sweden	Paul G. Hoglund	1
West Germany	Wolfgang Schulz	2
Belgium	Dewymmer Albert	3
Austria	Reza Zademohammed	4
France	Duguet	5
Denmark	Alex Jensen	6
Italy	Antonio Dimaggio	7
England	G. Prowse	8
Spain	Luis Baguena	9
Poland	Janusz Swierzynski	10
Hungary	Janos Koncz	11
Netherlands	Buitenhuis F.G.	12

Asia, Middle East & Africa

Singapore	Lim Teong-chin	1
Japan	Nobuyoshi Takahasi	2
Australia	Yong Youl Oh	3
Korea	Choon Seong Hwang	4
Chinese Taipei	Ju Lin	5
India	P. Andrew Gurung	6
	(no credential/observer's)	
Cyprus	Iosif Hadjiosif	7
Saudi Arabia	Al Hussain Saad	8
Cyprus Turkish Federated State	Eyup Zafer Gokbilen	9
Egypt	Ossama El Koussy	10
Iran	AliM odiri	11



국제 심판 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심판들이 싸
인 연습을 하고 있다.

(Referee Seminar)

PAN-AM

U.S.A.	Moo Yong Lee	1
El Salvador	Victor Osorio	2
Costa Rica	Jesus Adilio Lopez	3
Brasil	Aporandy Cunha	4
	Moraes	
Argentina	Perez Colman	5
Venezuela	Chong Koo Lee	6
Virgin Islands	Roy Washington	7
Peru	Chung, Eui-hwang	8
Chile	Chun, Young-kun	9
Puerto Rico	Rafael Serrano	10
Colombia	Lee, Ki-jeong	11
Panama	German Vergas	12
Mexico	Dai Won Moon	13
Curacao	Ashwin Feliz	14
Honduras	Julio C. Alfaro	15
Ecuador	Juan Alberto Sanchez	16
Surinam	Tirion Cecil	17
Paraguay	Miguel Leon	18

4. 제 5 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전적

체 급 별	등 위	성 명	국 적	비 고
FIN	1	Jose Cedeno	Ecuador	82. 2. 25
	2	Cesar Rodri Guez Luna	Mexico	
	3	Dae Sung Lee	U.S.A.	
	3	Azofra Emilio	Spain	
FLY	1	전 응 환	Korea	82. 2. 24
	2	Chen Chia Su	Chinese Taipei	
	3	Ertugrul Turgay	W/Germany	
	3	Fernando Celada Cruz	Mexico	
BANTAM	1	김 중 기	Korea	82. 2. 26
	2	Jesuo Benito	Spain	
	3	T. Le Thltes	Netherland	
	3	Chung Sik Choi	U.S.A.	
FEATHER	1	장 명 삼	Korea	82. 2. 27
	2	Ignacio F Bladnco A.	Mexico	
	3	Marchione Rattaele	Italy	
	3	K'Do-Ho Wang	Chinese Taipei	
LIGHT	1	박 오 성	Korea	82. 2. 25
	2	Juan Posales	Spain	
	3	Alfonso Qahhaar	U.S.A.	
	3	Buedo	France	
WELTER	1	박 천 재	Korea	82. 2. 26
	2	Oscar Mendiola Cruz	Mexico	
	3	Jose Alfonso	Spain	
	3	Lindsay Lawrence	Great Britain	
LIGHT MIDDLE	1	정 국 현	Korea	82. 2. 27
	2	Duvdn Canga	Ecuador	
	3	A. Garrido	Spain	
	3	Helmat Gartner	W/Germany	
MIDDLE	1	김 상 천	Korea	82. 2. 25
	2	Rashid Hassda	Bahrain	
	3	Javier Mayen Men	Mexico	
	3	Earl Taycor	U.S.A.	
LIGHT HEAVY	1	하 용 성	Korea	82. 2. 26
	2	Nedhat Mansy Fahim	Egypt	
	3	Luttihais	Netherland	
	3	Ireno Fargas	Spain	
HEAVY	1	Dirk Jung	W/Germany	82. 2. 24
	2	Ro Yce Kim	U.S.A.	
	3	Rafael Dwvesa	Spain	
	3	Scalella Dario	Italy	



5. 국가별 메달 집계

등 위	국 가 명	금	은	동	비고
1	KOREA	8	0	0	
2	ECUADOR	1	1	0	
3	W/GERMANY	1	0	2	
4	MEXICO	0	3	2	
5	SPAIN	0	2	5	
6	U.S.A.	0	1	4	
7	CHINESE TAIPEI	0	1	1	
8	EGYPT	0	1	0	
9	BAHRAIN	0	1	0	
10	ITALY	0	0	2	
11	NETHERLAND	0	0	2	
12	FRANCE	0	0	1	
13	GREAT BRITAIN	0	0	1	
Total		10	10	20	

6. 시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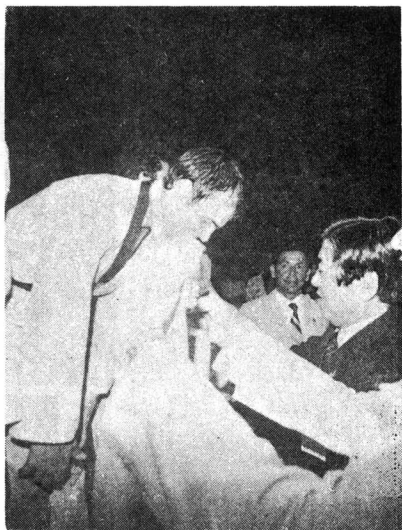
1. 우승컵 수여

1위.....한 국(금 8개)

2위.....에 파 돌(금 1개, 은 1개)

3위.....서 독(금 1개, 동 2개)

2. 장려상 및 감투상의 기타



헤비급 시상식 광경 서독의 「웅」선수
(Heavy Weight Champion Dirk Jung from W/Germany)

가. 장려상

나 라	참가선수	지 역 별
1) 카라파이	7명	PAN AM
2) 브 라 질	8명	PAN AM
3) 영 국	7명	EUROPE
4) 일 본	6명	ASIA

나. 감투상

1) 알 젠 틴	7명	PANAM
2) 이 태 리	10명	EUROPE
3) 리 비 아	9명	AFRICA

다. 모범 심판상

Luis Alonso Veliz(Spain)

라. 최우수 선수상

김 종 기(Korea)

비전(Vision)을 가지라

er갈여! 者의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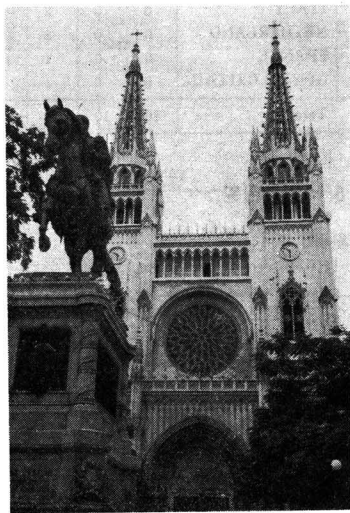
erererer한 마디er

옛날, 세 사람의 벽돌 공인(工人)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당신네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은 첫번째 공인은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두번째 공인은 「1시간에 ○○원의 품삯을 받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질문을 한 사람은 한참 걸어가서 세번째 공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 세번째 공인은 위를 쳐다보고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 말입니까? 저는 대성당(大聖堂)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 크나큰 정신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원히 남을만한 성당말이외다」

이 세사람이 그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아마 앞의 두 사람은 그대로 인생을 벽돌공인쯤으로 보냈으리라. 그러나 대성당을 짓는다고 마음 속에 그리고 있던 세번째 공인은 결코 벽돌을 쌓는 공인으로 끝나지는 않았으리라 틀림없이 감독자가 되었거나 도급인(都給人)이 되었거나 또 혹은 건축기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 속에 확실한 비전을 그리고 있는 사람은 성공의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일본순방 수행기(隨行記)」

朴 成 烈

(동아일보 기자)

〈편집자 주〉

고사리들의 조그마한 맨발과 맨손이 일본 속에 한국 국기 태권도를 뿌리 깊게 심고 왔다. 재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曹光實) 초청으로 어린이 국가대표시범단인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단장 李 晚杓 교장: 사범 李 奎珩) 29명이 16일동안 일본의 8개 도시를 돌며 11차례나 시범을 보이고 온 것. 이들 시범단은 가는 곳마다 태권도 바람을 크게 일으켰고 70만 재일동포의 가슴에 새삼 한국민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그 활약이 눈부셨다. 또 이들 시범단은 민간의교까지 폭 넓게 해병으로써 '포마 의교사절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다음은 지난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동안 일본 주요 도시 순회시범에 나섰던 어린이 시범단을 수행, 이들의 활약상을 널리 보도한 동아일보 박성열 기자가 저술의 글이다.



〈박성열 기자〉

■ 어린이들이 일본에서 태권도 바람을 일으키다 ■

4학년 6명, 5학년 10명, 6학년 10명 등 모두 26명. 이것이 서울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을 이룬 전부였다. 10~12살의 아직 동네 개구장이 티를 벗지 못한 이들이 지난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일본의 도쿄교오(東京) 교오베(神戶) 교오토(京都) 오오사카(大阪) 나고야(名古屋) 후쿠오카(福岡) 오카야마(岡山) 와카야마

(和歌山) 등 8개 도시를 돌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일본 속에 태권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 것이다.

■ 재일 대한 태권도협회 초청으로 일본에 가게 되다 ■

미동국교 시범단의 일본 원정은 일본에 '태권도 바람'을 일으키고 말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재일 대한 태권도협회 조 광실 회장(52세)의 초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재일 대한체육회 부회장이기도 한 조회장은 이번 어린이 시범단의 일본 왕복 비행기값·일체를 부담하는 등 남다른 지원을 해 준 것은 물론 시범단이 일단 일본에 도착한 그 날부터 일본을 떠나는 날까지 16일동안을 함께 먹고 자며 어린이들의 뒷바라지를 도맡아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지니고 있는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일본 생활 32년에 이번처럼 마음 뿌듯 했던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 어린이 시범단이 해병 국위 선양은 정말 체육훈장감이었어요”

조 회장은 모든 시범이 끝난뒤 어린이들의 조그마한 맨발과 맨손이 해낸 성과에 대해 이치럼 높히 평가했다.

■ 일본의 태권도 보급은 미개 상태였다 ■

일본에서의 태권도 보급은 아직도 미개한 상태였다.

물론 일본의 무술 가라테(空手道の 일본식 발음)의 본고장에서 태권도가 뿌리를 내리기란 어려운 일인 줄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훨씬 더 일본에서의 태권도는 백지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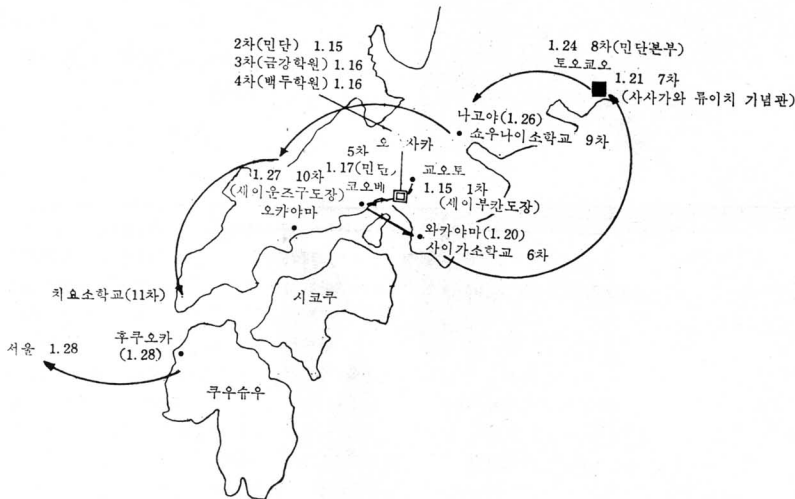
태권도가 80년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83차 IOC 정기 총회에서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승인을 받았고 세계 태권도연맹(WTF)이 IOC가 공인하는 국제연맹으로 승인을 받은 뒤 온 국민이 오는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길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까운 일본이 태권도를 모르고 있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일본이 아주 최근 들어 태권도에 대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WTF의 가맹국으로 협회가 결성된 나라는 57개국으로 늘어나고 태권도가 뿌리를 내린 나라가 107개 나라로 불어나는 등 태권도 외교가 일단 성공했다고 볼런지 몰라도 유독 일본만은 치외 법권 지역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일본 태권도협회가 생긴 것은 지난 80년 10월이었으나 WTF에 정식으로 가입한 것은 81년 5월이었다. 미국이 73년도에, 자유중국이 73년, 서부도이칠란트가 73년에, 말레이시아가 73년에 싱가포르가 73년에 태권도협회를 만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에서 태권도의 보급은 너무나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지난 78년 동남·북 아시아 7개국(홍콩·자유중국·말레이시아·타이·싱가포르·필리핀·구암)을 비롯 79년 미국의 주요 도시(뉴우요크·워싱턴·로스엔젤레스 등) 80, 81년 자유중국 등



우리 어린이 시범단이 시범을 보인 일본의 도시들

을 방문, 그 나라의 태권도 보급 현황을 취재
 도한 적이 있는 기자의 눈에는 일본에서의 태
 도 보급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임을 직감했다.

약간 빗나간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자유중
 국의 경우는 최근엔 무섭게 저변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기자는 똑똑히 눈으로 보았다

지난해 8월 어느날 자유중국 기룡시의 한 국민
 학교를 방문했을 때엔 장 경국 총통이 이 학교
 태권도부 어린이들과 기념 사진촬영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물론 이 학교는 전교생이 모두
 태권도를 특별 활동 시간에 배우고 있었다.

이 학교 뿐이 아니었다. 기룡 시내의 모든 국
 민학교는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하도록 기룡시
 시장이 정책적으로 정해 버렸다는 이야기까지 들
 었다.

이와 같은 자유중국의 실태와 일본의 경우를
 비교한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선 우스개 거리밖
 에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에파도르
 에서 열린 제 5회 세계 선수권대회에 일본이 처
 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한데다 지난해엔 가라테 7
 ~8단의 지도자들이 내한하는 등 바람직한 일들
 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 태권도협회의 산파역을 맡았던 조 광실
 재일 태권도 협회 회장은 “현재 협회 등록 선수
 는 약 300명이요 도장이 70여개로 불어났고 태
 권도 인구는 출잡아 3천명정도 될 것”이라고 말
 하고 “일본에서의 태권도 보급에는 국가적인 차
 원의 폭 넓은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 태권도와 가라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었던 교오토의 1차 시범 ■

미동국교 시범단의 1차 연무는 지난 1월 15일
 (일요일) 일본의 고도(古都) 교오토시에 있는
 세이부칸(正武館) 도장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시범 행사는 큰 구경 거리였다. 한국의
 태권도를 비롯 일본의 가라테 검도 합기도 유도
 거합도(居合道=일본 고유의 검술) 등 동양의
 무술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차례로 연무시범



교오토 세이부칸 스포츠 관장이 시범에 앞서 이 규
 형 사범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을 보인 것은 좀처럼 찾아 보기 드문 일이었다.

이 자리에서 태권도는 어린이들로만 구성된
 시범단에 의해 소개된 반면 가라테는 어린이 및
 청소년, 성인, 시범단이 코르게 선을 보였고 유
 도를 비롯 거합도 등 다른 무술은 주로 청소년
 시범단이 그 무술의 위력을 펼쳐 보였는데 특히
 태권도와 가라테를 비교 검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가라테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 다 ■

가라테계는 최근 들어 경식(硬式) 경기법을
 새로 만들어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경식 가라테 경기란 안전 방구(安全防具)
 를 착용하고 중전보다 훨씬 과격한 경기를 가지는
 것이다. 이 새 경기는 최근 들어 계속 내리
 막길로 치닫는 가라테를 되살리기 위해 안전함
 을 쓰고 있는 가라테인들에 의해 창안된 것.
 새 경기에서는 얼굴과 머리 뒷 면을 완전히 보
 호하는 특수 헬멧을 쓰는 점이 중전의 가라테
 경기 방식과 크게 다른 점이였다.

물론 이 경기에서도 가슴받이 호구와 살보대
 등은 중전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이 앞면 보호용 헬멧은 검도, 야구(포수용)의
 마스크처럼 볼록 튀어 나온 것인데 앞면은 포리
 카아 포네트라는 유리처럼 투명체의 특수 수지

(樹脂)로 만든 것으로 유리 150배 이상으로 튼튼해 200kg의 충격을 가해도 깨어지지 않는 최신티 방구였다.

일본은 이 새 방구를 2년 전에 개발, 지난해 11월 교오토의 세이부칸에서 경식 경기법 발표 기념 제 1회 국제 친선 가라테 대회를 가지는 등 새 방구 보급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옛날보다는 경기가 생동감있게 펼쳐짐에 따라 관중들의 흥미를 크게 북돋아주고 있어요.”

일본 가라테 거물급이자 몇해 전 알리와 이노키의 세기적인 격투기 대결때 심판을 본 세이부칸 스즈키 마사후미(鈴木 正文·53살) 관장의 설명이다.

“최근 들어 가라테의 또 한 가지 변화는 ‘틀려 차기’ 등 태권도 기술의 일부를 도입한 점입니다.”

조 광실 재일 태권도 협회 회장은 태권도 회장을 맡기 전에 가라테인이었기에 기술의 변천 과정을 이렇게 꼬집어 밝혀주었다.

한국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세이부칸 도장에서 시범을 할 때 이 경식 가라테 시범도 같이 있었는데 이 때 기자는 가라테 경기에서도 생각보다는 발동작을 많이 쓰고 있는 점에 놀랐다.

국내에선 가라테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라테는 주로 손을 쓰는 무술”이라는 선입관이 작용했겠지만 간혹 앞차기 옆차기 등 발동작이 나올 때마다 태권도와 가라테가 서로 닮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지난해 일부 가라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 태권도계를 돌아보고 간 적이 있다고 앞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이 일본에 돌아와서 “한국의 태권도는 배울것이 없다” “만약 있다면 태권도의 룰(규칙)뿐이다”며 큰 소리 쳤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종주국으로서의 한국이 앞으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 태권도의 새 경기용구 채택은 급우라고 본다 ■

경기용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태권도의 경기용구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 한다.

비 태권도인이 남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기자의 눈에는 어떤 방식이든 새 경기용구 채택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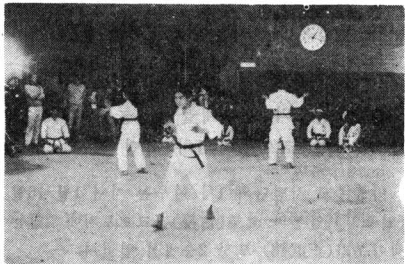
태권도가 IOC 종목으로 채택된 뒤 국내 태권도계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대로 연구작업이 진전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기자가 지난 79년 미국지역의 태권도 현장을 취재 보도했을 때, 워싱턴의 ‘준 리 태권도장을 방문, 크게 놀란 적이 있었다.

북성의 영웅 무하마드 알리에게 태권도를 가리켜 유명했던 재미 교포 이 준주씨(50살)가 경연하는 이 도장에서는 손과 발 무릎 등을 보호하는 특수 경기용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씨는 당시 새 경기용구 채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미국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태권도를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의 안전성을 고려, 손장갑, 발을 보호하는 특수신발 등을 개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개발된 새 경기용구가 미국의 일



가라테 소년들의 형(二품세)시범, 우리 어린이의 유연성에 못 미쳤다.

부 지방과 멕시코 등 남미지역에 보급된 상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약 3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에는 상당한 태권도인들이 이 새 경기용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대 스포츠 특히 아마투어에서는 선수들의 안전성을 가장 중히 여기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태권도의 고유성과 무술성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세계적인 조류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태권도인들은 얼굴과 손과 발 무릎등을 안전하게 해주는 어떤 새 보호 기구가 나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쿄토 세이부칸 도장에서 일본 가라테를 배우는 어린이들이 앞면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연습이나 시합에 임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 태권도인은 “당장 경기때에 적용이 불가능하든 연습때라도 선수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새 경기용구 채택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가라테의 시합을 구경하면서 태권도와는 다른 몇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심판 숫자에서 태권도 심판진은 주심 1명 부심 4명(경우에 따라 2명) 배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라테는 주심 1명 부심 2명 배심(감사역이라고 부름) 1명으로 짜여져 있어 서로 달랐다.

또 심판 판정 방법에서도 태권도는 자 라운드 가 끝난 뒤 주심이 부심의 득점표를 거둬 배심원에게 넘겨 판정을 내리는 반면 가라테는 시합 중에 깃발의 수신호로 득점을 즉각 판정, 바로 계시원 책상 위에 있는 점수판에 기록되게 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라테의 즉각 판정은 관중들에게 경기를 이해시킴으로써 가라테 경기에 흥미를 갖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

태권도 경기물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에 대비, 개정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엔 새로 만드는 룰은 태권도가 명실

상부한 국제 경기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완벽한 규칙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 뜻 깊었던 일본인 국민학교에서의 세 차례 시범 ■

일본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보여주는 일은 일본에 태권도를 심는 지름길이었다. 이런 기회가 이번 일본 시범에서 찾아 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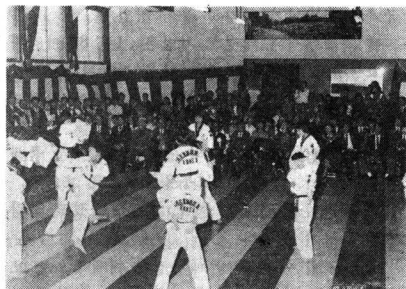
와카야마 시립 사이카(雜賀) 소학교와 나고야 시립 쇼우나이(庄内) 소학교, 그리고 후쿠오카 시립 치요(千代) 소학교 등 세 학교를 우리 어린이 시범단이 방문했던 것이다.

와카야마 사이카 학교 시범

와카야마시는 오오사카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버스편) 거리에 있는 인구 40만의 작은 항구 도시다. 일본의 체철 공장으로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쓰미도모(住友) 체철 공장이 있는 곳이며 일찍부터 우리 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은 모두 5천 400여명으로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사법단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지난 1월 19일 밤이었다. 와카야마에 고국의 어린이들이 대규모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와카야마겐(和歌山縣) 지방 본부(단장 金 昌仁)에는 대부분의 교포들이 나와 있었다.



이곳 교포들이 어린이 시범단을 맞이하는 모습은 한결같이 오랜만에 시집 보낸 딸을 만나듯 반가와 하는 그런 것이었다.

이날 밤은 시범단 어린이들이 5~6명씩 조를 짜서 이곳 교포들의 가정에서 민박을 했다. 민박은 어린이들이 우리 교포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며 교포 자녀들과 서로 우정을 두터이하는 계기를 준 뜻 깊은 것이었다. 한 마디로 이곳 교포들은 훈훈한 정으로 우리 시범단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번 시범단의 유일한 흥일점이었던 5학년 이지원 양은 이날의 민박에 대하여 “일본의 가정을 한 번 보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었어요. 상당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감명을 받았어요. 또 마침 제가 묵었던 송공 통일 평의회 조가랑(曹嘉郎)총재님 집에는 같은 나이의 딸 복자 양이 있어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다”며 당시의 소감을 자랑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다음날(20일) 시범단은 일본에서의 여섯 번째 시범을 갖기 위해 사이카 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는 외국의 어린이들과 친선 교류를 자주 하는 학교로 우리 시범단의 방문을 대환영했다.

또 사이카 학교 나카니시 카사오(中西 包夫) 교장은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 등을 오래전부터 연구하는 등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진한파였다. 시범단이 이 학교에 들어섰을 때 학교전물국이 계양대엔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어 나카니시교장의 창미를 한 눈에 알수 있었다. 교장실 벽에도 언제 준비해두었는지 태극기와 일장기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 학교에서의 태권도 시범은 1천 800여명의 전교생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물론 이곳의 우리 교포들도 대부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우리 시범단이 태권도의 기본 자세부터 품세 시험 겨루기, 격파 묘기 등을 차례로 보이자, 일본 어린이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곳 시범 때는 지방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요미우리 산케이 아사히 등 일본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와카야마 지방판에 4~5단 박스 기사로 사진과 글을 실었다. 그밖에 NHK, 와카야마 텔레비도 녹화방송을 통해 한국의 태권도를 널리 소개했다.

이 학교에서 시범을 보이기까지에는 와카야마 한국 교육원 박 원필(朴源泌)원장을 비롯 민단 조 회신(曹喜伸)부단장의 노력이 컸었다.

이 학교에서의 시범이 끝난 뒤 시범단은 운동장에서 열린 일본 민속 행사의 하나인 “돈도 야끼 집회”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일본 사람들이 정초에 갖는 것으로 일년중의 희망을 적은 종이 등을 모아 태우는 것이었다. 이 학교에서도 운동장 한 가운데 짚더미를 만들어 그 속에 어린이들의 희망을 적은 종이나 집 때문에 걸어진 운 집안의 희망을 쓴 붓글씨 종이 등을 넣고 그 더미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며 이 더미를 태웠다.

이런 행사를 처음 본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모두 신기한듯 구경했으며 주장 김 경호군은 이 학교 학년별 대표 어린이들과 같이 짚더미에 불을 붙이기도 하여 두 나라 어린이들간의 우정을 더욱 두터이했다.

이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 어린이들이 한국 동요인 ‘주먹 쥐고 손을 펴서……’라는 노래를 부르며 무용까지 펼쳐 보인 것은 펍 인상적이었다.

학교 시범이 끝난 뒤 시범단은 약 320년전 이곳 와카야마에서 일본인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권장하는 ‘부모장(父母狀)’이라는 유명한 글귀를 남기고 돌아가신 한국인 유학자 이 매계(李梅溪)선생 묘소를 참배했다. 1617년에 유학자인 아버지 이 진영(李眞榮)씨의 아들로 이곳에서 태어난 이 매계선생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와카야마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날 한 일본 청년이 그릇된 일을 많이 하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개탄한 나머지 ‘부모 모시는 글’인 부모장을 만들어 이를 여러 지방에서 본보기로 삼게 했다는 것.

이처럼 훌륭한 조상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시범단 어린이들에게 교훈적 의미를 주었다고 본다.

우리 모두에게 참고가 될 것 같아 '부보장'의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다.

“아버이에게 효도하고 법도를 지키며
염치와 겸손으로 제일에 충실하고
정직을 근본삼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마는 좀 더 다짐하기 위하여는
항상 가르치고 타일러 줌이 옳으니라”

〈이상은 노산 이 은상 박사가 일본글로 쓰여
져 있는 것을 번역한 것임〉

나고야 쇼우나이 학교 시범

서울 52, 나고야 27표……한국의 압도적 승리였다. 지난해 9월 30일 한 밤에 전해진 이 88년 올림픽 서울 유치 확정 발표는 잊을 수 없는 쾌보였다.

이 소식은 한국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던져준 것이었지만 일본 특히 나고야 시민들에게 뼈저린 아픔과 실망을 안겨주었던 것.

이런 패배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나고야에 한국 국기 태권도 시범단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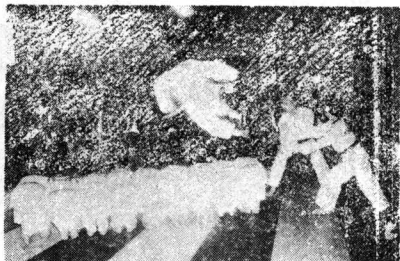
지난 1월 26일 오후 나고야 쇼우나이 학교 강당에서 이 학교 4학년 이상 6학년까지의 600여 어린이들이 모인 가운데 펼쳐진 우리 어린이들의 시범은 나고야 일본 어린이들의 기를 한꺼번에 꺾어버리게 한 행사였다.

미동국교 시범단의 절도있는 동작과 예의와 태권도 묘기는 이미 국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약 40분동안에 걸쳐 시범이 펼쳐지는 순간마다 일본 어린이들의 표정은 여러 모양으로 변했다.

시범단이 처음에 간단한 동작을 보일 때는 다소 놀라는 얼굴들이 었으나 갈수록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격파기술이 펼쳐지자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쏟아놓곤 했다.

일본 어린이들 가운데는 우리 시범단이 캐트린 송판조각들을 서로 가지려고 밀고 당기는 모



습도 눈에 띄었으며 또 어떤 일본 어린이는 솟제 깨진 송판 조각을 가방 속에 챙겨넣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날 쇼우나이 학교에서의 시범에는 이곳 주요 교포 인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 성공리에 시범을 끝낸 어린이들을 포옹해주는 등 높이 칭찬했다.

이 학교에서의 시범에 대한 이 지역 매스컴의 반응도 대단했다. 시범이 오후에 열렸는데 오전 일찍부터 시범단에 관한 문의 전화가 이곳 민단 지방 본부에 쇄도했을 정도였다.

이날 시범을 보도한 텔레비전 방송국만도 4개였다. 도우카이(東海) 텔레비, 주우쿄오(中京) 텔레비, CBS(중부 일본 방송), UHF(교육방송국) 등. 또 나고야에 있는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코리아의 태권도 신동(神童)들 나고야에서 묘기보이다”라는 대문짝만한 제목 아래 일제히 보도했다. 또 각 신문들의 중간 제목에는 ‘태권도는 서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 매스컴들의 진지한 보도 태도를 보고 기자는 88년 올림픽을 서울에 빼앗긴 이곳 시민들의 당시의 아쉬운 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여하튼 나고야에서의 시범은 ‘태권도의 시범을 통해 한국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준 뜻깊은 것이었다고 본다. 이곳에서의 시범은 일본에서 가진 아홉번째의 시범이었다.

나고야는 인구가 200만이나 되는 도시이며 이곳에는 우리 교포가 약 3만 5천명이 살고 있었다



후쿠오카 치요 학교 어린이들의 대환영을 받으며 학교 체육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범단.

후쿠오카 치요 학교의 시범

“한국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까. 치요 소학교”

이 글은 치요 소학교 체육관 무대정면에 붙었던 한국 어린이 시범단을 맞는 환영의 글이었다. 일본 순방 16일을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 11차 시범이었던 치요 학교의 시범은 지난 1월 28일이 학교 체육관에서 700여명의 전교생과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재일 교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범은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엮여졌다. 일본 어린이들이 직접 태권도와 가라테를 비교할 수 있게끔 두 무도가 동시에 선보여졌던 것이다.

먼저 가라테의 소년 시범단이 출연, 주로 손 동작에 의한 묘기를 보여주었고 이어 여성 가라테인들이 나왔고 다음에는 성인 시범이 보여졌다.

후쿠오카는 쿠우슈우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뛰어난 가라테인들이 많은 곳으로 이름난 도시였다. 성인 시범 때는 이케다(45세·7단)등 유명한 사범들이 모두 나와 가라테의 진수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 60세 이상의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백발을 휘날리며 시범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조금만 나이 먹으면 일선에 서 물러나 버리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꼭 대조

적이었다.

이어 태권도가 우리 어린이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건강이 염려되었으나 어린이들은 지도자 이 규형 사범의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독려를 받으며 한 동작 한 동작을 처음과 다른 없는 정성어린 자세로 펼쳐나갔다.

처음에는 간간히 나오던 박수소리가 갈수록 세차고 계속되어 시범이 끝날 때 즈음에는 체육관이 온통 환호로 뒤덮였다.

이 치요 학교는 우리 교포 자녀가 50여명이나 다니는 학교였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태권도 시범은 더욱 의의가 컸었다.

시범이 끝나자 이곳 교포 자녀들이 시범단 어린이들에게 물려와 서툰 한국말로 자기도 한국인이라며 악수를 청했다. 교포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높은 긍지를 심어준 순간이었다.

교포 자녀들은 시범단 어린이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주고 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우리말을 몰라 몹시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민족 교육이 절실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다.

이 학교에 다니는 교포 자녀 중 구미좌장(具美佐江 6년)·강신(3년) 남매는 이날 태권도 시범을 본 소감에 대해 “머칠 전 텔레비전에 태권도가 소개되었을 때 아버지(具一祐次)께서 태권도가 한국의 고유 무술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말하고 “오늘처럼 자랑스럽고 마음 뿌듯한 날이 없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교포 자녀들은 한참 동안 시범단 결을 떠나지 않았다.

시범이 끝난 뒤 한·일 친선의 행사도 곁들여졌다. 치요 학교 어린이들이 환영의 노래, 피리연주 등으로 시범단의 방문을 축하했고 이의 답으로 우리 시범단도 도라지 등 우리의 민요와 풍요 등을 들려주었다.

또 두 나라 어린이들은 서로 물어보고 싶은 말들을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본 어린이들은 “몇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좋은가 발을 얼마나 높이 찰 수 있는가?” 등등 주로 태권도에 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런 대화의 시간은 두 나라 어린이들이 서로

를 알게 하였고 더욱 친하게 해주었다. 우리 시범단이 학교를 떠날 때는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밖에까지 쫓아나와 작별을 못내 아쉬워했다.

후쿠오카 한국 교육원 이 남교(李南敎)원장은 이번 시범단의 치요 학교 시범에 대해 “일본속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한민족에 대한 차별 의식을 없애주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후쿠오카는 부산에서 비행기로 30분 거리밖에 안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로 우리 교포들이 2만명이나 살고 있었다.

■ 영친왕 아들 이 구씨, 토오쿄오 민단 시범에 참석하다 ■

토오쿄오에서 어린이 시범단이 태권도를 선보인 것은 지난 80년 8월에 이어 두번째였다. 1, 2차 모두 제일 대한태권도협회의 조 광실 회장이 스폰서가 되었다. 첫 번째 시범이 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치루었다면 이번 토오쿄오 시범은 완벽에 가까운 준비 작업에 의해 진행되었다.

토오쿄오 시범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사만 흠여보더라도 대성황을 이룬 행사였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주요 인사로 영친왕 아들 이 구(李玖 50세)씨를 비롯 마사코여사(親子·이 방자 여사의 동생) 장 총명 민단 중앙본부 단장, 조 영주 상임고문 스즈끼 료오로 세이부칸 도장 판장 아시야 민족 동맹 양 원석 명예 회장과 사노 회장 등이 자리



영친왕 아들 이 구씨와 마사코 여사가 토오쿄오 민단 본부에서 시범단을 격려해주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이 구씨.

를 빛내주었다.

이조 26대 왕이었던 고종의 아들 영친왕(이조 28대 왕세자)과 일본 왕족이었던 방자 여사 사이에서 난 이 구씨와 마사코 여사는 지난 1월 24일 토오쿄오 민단 중앙 본부 8층 대강당에 도착 시범을 앞둔 어린이 시범단에게 훈시를 통해 “손 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 국위를 떨쳤듯이 어린이들도 국가 태권도를 통해 나라를 빛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두 분은 어린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해주었고 아울러 선물도 나눠주었다.

이러한 두 분의 격려는 헛되지 않았다.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일본 텔레비가 녹화 방송하는 가운데 열린 토오쿄오 시범을 어느 시범보다 멋지게 선보였던 것이다.

토오쿄오 시범은 일본 텔레비(NTV)가 24일 오후 6시와 25일 오전 7시의 골든 타임을 이용, 일본 전역에 두 차례나 방영했다.

이러한 일본 텔레비의 방영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날 기자는 호텔방에 방영 내용을 지켜보았는데 NTV에서는 뛰어난 편집 기술로 시범 행사의 주요한 부분만 간추려 소개했다.

특히 이날 방영 내용 중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린이들의 동작 일부가 슬로 비디오로 방영된 점이었다. 슬로 비디오로 비쳐진 동작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몇배로 위력적으로 보였다. 그 밖의 모든 동작도 생동감이 흘러넘치게 보였다. 한 마디로 일본 텔레비전 카메라 기술진의 높은 수준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다.

토오쿄오 시범의 또 한가지 특징은 태권도와 가라테가 동시에 선보여진 점이다. 우리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에 앞서 열린 이날의 가라테시범에는 일본에서 첫 손꼽는 가라테 사범들이 총출연했다.

전일본 가라테 강유회(剛柔會) 전임 사범 야마구치 고우시, 가네자와 히로가즈 사범 등은 현재 가라테계에서는 최고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들이 모두 이날의 시범 행사에 나와 지니고 있는 기량을 모두 선보였던 것.

또 강유관 소속의 가라테 소년시범단도 나와 수준급의 묘기를 펼쳐보였다.

쿄오토 세이부칸에서 가라테를 구경했었지만 이곳의 수준은 쿄오토보다 한 수위였다. 역시 일본의 수도답게 토오쿄오에는 뛰어난 무술인도 많았던 것.

토오쿄오 시범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참석 시범단 어린이들이 나라를 빛내는 현장을 지켜 보고 향수를 달래기도 했다. 또 약 100여명의 교포자녀들도 민단 중앙본부 강당을 가득 메웠는데 이들은 모두 토오쿄오 한국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교생이었다.

이날 시범을 지켜본 교포 어린이들 가운데 흥성될 군은 “태권도가 가라테보다 훨씬 세다”며 “나도 태권도를 배워 나라의 명예를 떨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꿈을 털어놓았다.

토오쿄오 시범을 마련했던 조 광식 회장은 이날 성공적으로 시범이 끝나자 시범단 이 만표 미동교 교장과 이 규형 사범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또 비디오 시스템(TV 카메라 등) 한 벌을 기증, 시범단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사를 표했다.

토오쿄오 시범은 NTV 이외에도 주간 포스트 토오쿄오 타임즈 등에서 ‘화보특집’으로 크게 보도했고, 그밖의 다른 신문들도 대서 특필, 토오쿄오에서 태권도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특히 종합 주간지로서 일본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주간 포스트는 지난 2월 13일자의 ‘토픽 추적’이라는 고정란을 빌려 2페이지 화보로 어린이 태권도 시범을 소개했다. “서울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태권도가 일본에 오다”라는 제목을 달았고 6장의 크고 작은 어린이들의 시범사진을 실었다.

또 도오쿄 타임즈는 2월 2일자 4면 반 페이지를 할애, “태권도, 일본에 기술을 뽐내다”라는 제목 아래 시범단 어린이들의 활약상을 사진과 글을 곁들여 화보로 소개했다.

이처럼 도오쿄오 시범은 이번 11 차례 시범중 최고의 성황을 이루었고 거둔 성과도 가장 높았다. 한편 시범단의 도오쿄오 시범은 일본에서 가진 여덟번째 시범이었다.

■ 장 훈 선수가 시범단 어린이들을 일히 격려하다 ■

최근에 일본 프로 야구 선수 생활을 그만 둔 장 훈(張勳)선수의 인기는 요즘도 대단하다. 그는 현재 일본에선 야구 해설가로, 고국에 와서는 한국 프로야구위원회 총재 보좌역으로서 큰 몫을 하는 등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몸이다.

장 선수는 일본 스포츠의 꽃인 프로 야구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3천안타의 신기록을 수립, 영웅적인 대접을 받은 스타다. 장 선수는 남다른 민족애를 지니고 있는 재일 동포로도 유명하다. 일본에서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일본인들은 자주 장 선수에게 귀화(국적을 바꾸는 일)하도록 권했으나 아직도 몇몇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 선수가 지난 1월 15일 일본 오오사카 민단 지방 본부에서 있던 성인식(成人式) 행사의 연사로 참석했다가 한국에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오쿄로 돌아갈 계획을 뒤로 미루고 어린이 시범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시범단 어린이들의 하루 스케줄은 몹시 팽팽했었다.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쿄오토 세이부칸시범을 마치고 곧장 쿄오토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오오사카 민단에서의 시범에 참석하게 되어 있었던 것.

오오사카 시범은 예정보다 약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오오사카 민단 본부에는 마침 일요일과 성인식을 맞아 4~500명의 재일 교포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이 시범단을 맞는 모습은 뜨거운 동포애에서 나온 것이었다. 민단 본부 문밖에서 양쪽으로 늘어서서 시범단이 도착, 강당으로 들어갈 때까지 힘찬 박수로 환영했다.

재일 태권도협회 홍 상인(洪祥寅)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범에는 오오사카 지방 본부 서 영호(徐永昊)단장, 오오사카 영 운영 총영사 양 원석 아시아 민족동맹 명예회장, 장 훈 선수 등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우리 어린이들이 능숙한 모습과 씩씩한 기상으로 교포들 앞에 서자, 교포들은 일어서서 환호했다. 이곳에 교국에서 어린이 시범단이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린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교포들을 놀래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시범이 계속 되는 동안 교포들은 모두들 났이 나간 듯했으며 한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강당이 떠날듯이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주었다.

시범이 끝나자 몇몇 교포들은 시범단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보는 등 시범단을 통해 전국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장 훈 선수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린 시범단원들을 일일이 손을 잡아보며 머리까지 쓰다듬어주며 “정말 잘 한다. 일본에 있는 동안 가라테의 쿷대를 완전히 꺾고 화랑의 얼이 담긴 태권도를 널리 알려달라”며 당부했다.

장 선수의 이러한 격려는 우리 시범단의 사기를 크게 올라가게 해주었다. 이곳 오오사카 민단에서의 시범은 일본에서 가진 두번째 시범이었던 것.

■ 배달민족의 긍지를 드높여준 오오사카 교포 학교 시범 ■

시범단의 제3,4차 시범은 오오사카에 있는 금강학원(교장 이 종찬)과 백두학원(교장 이 석중)에서 있었다.

이 두 학원은 모두 우리 나라 교포들이 다니는 학교다. 두 학원 모두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설립되어 있는 큰 학교였다.

시범단은 먼저 금강 학원을 찾았다. 유치원 50명, 국민학교 184명, 중학교 63명, 고등학교 90명 모두 387 명의 교포 학생들이 교문에서부터 두 줄로 나란히 늘어서 조국에서 온 시범단을 따뜻히 맞았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대부분 교포 3~4세로 일본에서 태어난 학생들이다. 그래서 우리말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고 자칫하면 조국인 한국을 잊어버리 쉬운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 이런 교포 학교가 세워진 것이었다.

백두 학원 교포 학생들도 우리 시범단을 대환영으로 맞았다. 백두 학원에는 전국 유치원생 30명, 전국국민학교 68명, 중학교 61명 고등학교 254명 등 모두 413명의 교포 자녀들이 다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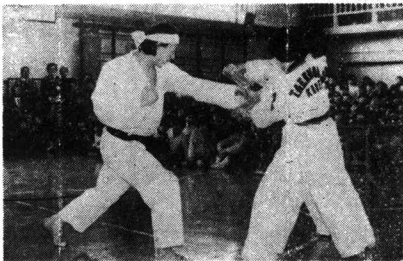
이날 두 교포 학교에서의 시범은 교포 자녀들에게 조상의 얼을 되찾는 계기를 준 값진 시범이었다.

처음 교포 학생들은 우리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이 시작되자 대부분 킬킬대며 웃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모습은 숙연해졌고 우리에게도 자랑스런 무술 태권도가 있구나 하며 조국을 재인식하는 듯 해 한편으로 마음 뿌듯했다.

전국국민학교 6학년 고 윤철 군은 “우리의 첫인 태권도가 이처럼 훌륭하고 멋있는 것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고 금강국민학교 6년 박 종실군은 “나도 내일부터 태권도를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동네의 일본 어린이들에게 한번 자랑해 보이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학교 안에서 매일같이 하는 교육도 민족적 긍지를 갖는데 큰 역할을 하겠지만 이번 시범단의 교포 학교에서의 시범은 미처 학교에서 못한 애국 애족심을 고취시키는 데 큰 몫을 해냈다고 본다.

두 학교 모두 우리 말 우리 글 공부에는 역점을 두고 있었으나 태권도 교육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 이 점이 매우 아쉬웠다. 판계당국에서 유능한 사범을 파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스런 일로 생각되었



오오사카 민단 지방 본부의 시범

다.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로 자랄만큼 성장했으면서도 자라나는 우리 교포 자녀들에게서 외면되거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먼 훗날엔 이들 교포 자녀들도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이들이 일본 사회속에서 꿈꿀 수 있게 자라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오오사카는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일본 전체 65만 교포 중에서 오오사카부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만 이상이 살고 있으며 오오사카시만 11만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오오사카시의 교포는 이쿠노쿠라는 지역에 5만이나 몰려 살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의 3사람 중 1명이 한국인이라고.

오오사카 교포 학교에서의 시범은 그곳 교포 학생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한 점과 아울러 한국인의 긍지를 느끼게 한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시범이었던 것

■ 고오베 교포 형과 누나들을 부끄럽게 만들다 ■

어린 이시범단이 일본의 5대 도시이며 세계적인 무역항인 고오베를 찾은 것은 지난 1월 17일 일요일.

이날 시범 행사는 고오베에 있는 효오코겐(兵庫縣) 지방 본부 6층 강당에서 열렸다.

마침 이날은 효오코겐 17개 지부에 사는 우리 교포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는 교포들이 성인이 되는 식을 갖는 날이었다. 이날 성인이 되는 여성들은 모두 예쁜 색동 치마저고리를 입고 고나와 식당의 분위기를 축제 무드에 젖게 했다.

먼저 성인식부터 시작되었다. 국민 의례가 있었고 국민 교육 헌장 낭독도 이어졌다. 그 다음엔 청년 회장의 개회사, 효오코겐 황 하천(黃河千) 단장의 인사말, 정 용구 고오베 총영사의 내빈 축하 등으로 식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은 몇번이고 몹시 의아스런 표정을 나타내곤 했다.

그 까닭은 우리 교포들만이 모인 큰 행사에서 대부분의 교포들이 일본말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는 데 의문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제일 교포 사회에서 공식 행사 때에 얼마나 많은 교포들이 '우리말 대신 일본말을 하고 있는 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막연하나마 교포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당연히 하겠지하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일게다.

이날 내빈 가운데 한 분은 축사를 시작하면서 "조국에서 온 어린이들 앞에서 일본말로 말하게 됨을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히고 축하의 말을 끝냈으며 행사 진행을 맡아 보았던 한 부장은 일본말은 한국말로, 한국말은 일본말로 통역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배달 민족의 피를 받고 태어났다면 우리 말과 우리 글은 할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각일게다.

이날 행사에서 이들이 모두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말만 한다는 등의 구차한 변명 등을 우리 시범단 어린이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시범단에게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기 그지 없었던 성인식 행사가 끝난 뒤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어린이들의 시간이 왔던 것이다.

효오코겐 지방 본부 빌딩은 최근 새로지는 건물로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강당은 꽤 큰 편이었다.

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이 펼쳐지자 장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성인식에 참석했던 약 500여 교포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린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질서있고 절도있게 움직이고 작은 눈망울들이 실새 없이 구르며 빛을 발하자 이들은 모두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보냈다.

시범의 클라이막스인 격파가 힘차게 펼쳐지자 조국의 어린 아우들 중에는 이처럼 자랑스런 아우들도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시범이 끝날 무렵 좁 한 교포는 “이번 시범단
와 교오베 시범은 성인식을 가진 형과 누나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등 큰 자극을 준 행사”였었다
며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교오베는 인구 145만의 대도시이며 이 속에는
약 7만여 교포들이 살고 있었다.

시범단은 교오베를 떠나기 앞서 여름 피서지
로 겨울의 인공 스키장으로 일본에서 경치 좋
기로 이름난 로코산(六甲山). 해발 932m 정상을
관망하기도 했다.

■ 소도시 오카야마에도 태권도가 뿌리 를 내리다 ■

오카야마시는 오오사카에서 신간선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다. 인구는 5만 5천명,
그 가운데 우리 교포는 약 8천여명. 이 도시는
일본 3대 정원 중의 하나인 코라쿠엔이 있는 곳
으로 공기 좋고 물이 맑기로 이름나 있다.

일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
도 이런 작은 도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한국의 국기 태권도를 심는다는 것은
뜻날을 생각할 때 값진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이다.

양 원석 아시아 민족 동맹 명예회장이 오카야
마의 가라테 지도자들을 설득시켜 이곳에서의
시범이 이루어졌다.

시범단이 이곳에 도착한 것은 지난 1월 26일
로 하루밤을 이곳에서 묵은 다음 27일 시내 동
산(東山)공원 안에 있는 세이운즈구(靑雲塾) 가
라테 도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범은 시범단이
일본에서 가진 열번째였다.

작은 도시이긴 생자보다 매스컴에서 큰 반용
을 보였다. 시범 당일 도장에는 오카야마 텔레
비, 산요우(山陽) 텔레비 및 지방 신문들이 총
출동, 태권도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이곳에서의 시범에서도 오카야마의 각관에서
뽑힌 어린 가라테 선수들이 가라테의 품새 등을
선보였고 이어 우리 어린이들의 화끈한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었다.

“태권도가 가라테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한 수

위다”라는 인식을 이곳 오카야마에 심어주는 순
간이었다.

이곳 가라테인들은 시범이 끝나자마자 태권도
와 가라테의 정식 교류를 제의했다. 시범의 성
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당시의
벽찬 가슴과 뿌듯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 가라테 총수 사사가와 류이치회장, 시범단과 1시간 가량 환담을 나누다 ■

우리 나라에서 재계 실업가로 이 병철(삼성그
룹) 정 주영(현대그룹) 김 우중(대우그룹) 회장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일본에서 사사가와
류이치(笹川 良一·82세) 회장이 바로 이에 해
당하는 일본 제일의 실업가다. 현재 선박 진흥
회, 일본 소방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사가와
씨는 전(全) 일본 가라테 연맹 회장직도 맡고
있는 관계로 한국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
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난 1월 21일 오후 한국의 시범단을 토
오쿄오 미나토쿠에 있는 사사가와 가별 회관으
로 초대 약 1시간 동안 시범을 지켜 보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그 다음날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의 회합을 갖
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긴 여행을 앞두고 사
사가와 회장이 이처럼 태권도 시범단에 시간을



사사가와 기넨회관에서 사사가와 회장이 시범단 어
린이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
째가 사사가와 회장, 그 옆이 조 광실 회장)

할애한 것은 보기 드문 예라고 그를 잘 아는 가라테인이 귀띔해주었다.

이날 사사가와 회장은 기념회관 2층 강당에서 펼쳐진 우리 어린이들의 태권도 묘기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미 태권도는 IOC의 올림픽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을 받아 세계적인 스포츠로 된 반면 가라테는 계속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라테의 총수로서 괴로운 심정일 것은 뻔한 이야기다.

쫓겨섬 칭찬안하기로 이름난 사사가와 회장은 이날은 예외였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시범단이 한 프로그램을 끝내기가 무섭게 박수를 보냈고 시범이 끝난뒤 어린이들에게 “썩썩한 기상에 놀랐다”고 말하고 “태권도 기술이 뛰어나다”고 칭찬해주었다.

사사가와 회장은 시범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어린이들에게 기념품을 일일이 건네주었으며 토요일도 근교에 있는 우주 박물관을 견학시켜주는 친절도 베풀어 주었다.

이곳에서의 시범은 일본에서 가진 일곱번째의 시범이었다.

끝으로 기간도 짧고 인원수도 작고 일정도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범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모두 어린이들의 노력의 결정체였다. 모든 영광을 어린이들에게 돌린다. 아무쪼록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조국에 태권도 금메달을 안겨주는 주인공이 되도록 항상 뒤에서 지켜보겠다. 다시 한번 재일 대한태권도협회 조광실 회장을 비롯 협회 관계자와 양 원석 아시아 민족 연맹 회장, 학교 당국 관계자 및 그밖의 협조자 여러분에게 보도에 적극 협조주신 점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대한의 태권 사절들,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다.

태권도지 구독 안내

① 년간 구독료를 소액환 또는 송금환, 수표로 보낼 것(아래 신청서를 함께!)

② 구독신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홍보과

구 분	지 역 구 분	국 가 명	년 간 구 독 료 (우송료포함)
제 1 지역	동부아세아	자유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 13.00 9,000원
제 2 지역	동남아세아	방글라데쉬, 브루나이, 태국, 버마,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16.00 11,000원
제 3 지역	중동, 유럽, 호주, 북미	아프가니스탄, 호주,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기에, 부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서독, 영국, 그리스, 그린랜드, 하와이, 아이슬랜드, 인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룩셈부르크, 모나코, 몽고,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스위스, 시리아, 스리랑카, 미국, 멕시코.	\$ 19.00 13,000원
제 4 지역	중미, 남미, 아프리카, 서 인도제도	알바니아, 알제리아, 앙골라, 알제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체코, 이집트, 가나, 자마йка, 케냐, 리비아.	\$ 20.00 14,000원
국 내		시·도 구분없이 동일함.	\$ 3.50 2,500원

(단, 82년도 체신요금 및 잡지대 기준임)

태권도지 구독신청

신청자 이름	발 아 불 곳 의 주 소	비 고
		태권도 수련경험이 있으신 분은 현 단(품)급을 적으세요

태순씨

최 경 철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위원회 임원확정

중앙협회는 3월 17일, 82년도 전문위원회 의장단을 비롯 각 분과위원회 부위원장급 이상 임원을 확정,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해외파견 중인 경기위원장 및 심판분과 부위원장 등을 교체한 정도의 소폭 인사변동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장관리분과위원회가 없어

지고 중앙협회가 국가단위 심사업무를 판장하게 됨에 따라 심사분과위원회가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전문위원회 의장단 3명을 비롯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대부분 유임 또는 전임된 신년도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전문위원회 임원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전 문 위 원 회	의 부 의 장	박 해 수, 권 만 경, 옥
경 기 분과위원회	위 부 위 원 장	김 석 봉, 만, 김 기 영, 삼
심 판 분과위원회	위 부 위 원 장	이 조 경, 영 수, 김 근 용, 길
심 사 분과위원회	위 부 위 원 장	안 박 창, 영 덕, 고 택, 철, 성
선수강화분과위원회	위 부 위 원 장	노 회 상, 열, 이 석, 승, 국
상 별 분과위원회	위 부 위 원 장	김 중 호, 영, 김 재, 용, 균
국 제 분과위원회	위 부 위 원 장	이 규, 주, 계, 문, 노, 춘, 길

1982년도 국기원기술심의위원회 임원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기술심의위원회	의 부 의 장	이 병 서, 강 로 정, 구
심 사 분과	위 부 위 원 장	김 용 창, 수, 최 남 동, 지
교 육 분과	위 부 위 원 장	문 입 화, 구 정 호, 조 한 우, 이 완 기, 김 학 근
연 구 분과	위 부 위 원 장	이 고 국, 화, 임 춘, 길, 한 상 진
국 제 협 력 분과	위 부 위 원 장	미 안 해, 옥, 조 근, 종, 우영일, 주상일, 정찬성, 김완희, 이황구, 이종찬, 강용문, 이고범, 서종환, 장재우
시 범 선 건 분과	위 부 위 원 장	김 정 인, 조 광 회, 정득, 김광호, 서인종, 한광열, 문선호
	위 부 위 원 장	김 규 형, 지 회, 용, 김원성, 이호영, 심명구, 이종관, 구정희, 최봉호, 차영훈

81년도 시 도지부 및 연맹총회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17개지부인 각 시도협회 및 각급 연맹은 지난해 12월 19일 중앙협회의 대의원총회에 이어 금년 1월 8일 중·고연맹(회장 : 김한선)이 뉴·서울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속속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지부는 82년도 사업규모를 크게 확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예산규모도 대폭 늘려잡았다. 이는 태권도의 지역적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 볼 때 고무적 사실로 보인다. 직할시 승격으로 별도의 협회를 결성한 대구·

인천등은 81년 예산의 3배정도로 예산규모를 책정한 것을 비롯 부산직할시협회에서도 서울특별시협회에 육박하는 4천4백여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확정함으로써 태권도계는 이제 「지방자치제」의 선도역할을 하지는 않겠는지? 한편, 62회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경남에서는 역시 지난해 1천8백여만원에서 금년에는 3천4백만원의 예산규모를 책정함으로써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는 것 같다. 또 중·고연맹은 4월 말경 제 8회 연맹회장기경탈전을 경북의 김천시에서 개최하는데 추가 소요되는 1천여만원이 증가한 3천8백만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서 타 연맹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각 시·도지부 및 연맹의 대의원총회 결과, 예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81년도 시도지회부 및 연맹총회 결과

시도지부및연맹	회 장	81년도결산액	82년도예산액	총회일자	총 회 장 소
서울시 태권도협회	엄 운 규	수입 46,812,900 지출 45,247,305	45,510,000	82. 1. 15	시체육회의회의실
부산 "	손 선 익	수입 26,299,800 지출 26,299,800	44,240,000	81. 12. 22	서라벌호텔회의실
대구 "	조 재 석	11,954,559 12,043,642	35,639,000	82. 2. 27	시체육회의회의실
인천 "	전 영 화	5,017,600 5,017,600	14,663,000	82. 2. 24	시협의회회의실강원
강원 "	김 성 태	10,856,733 10,856,733	9,850,000	82. 2. 21	도협의회회의실
경기 "	이 형 재	20,316,901 20,316,901	20,340,000	82. 2. 25	도협의회회의실
충북 "	전 운 덕	5,860,000 5,860,000	6,540,000		"
전북 "	강 상 원	9,171,430 9,171,430	13,262,000	82. 1. 21	전주카톨릭센타회의실
전남 "	김 두 원	24,255,900 23,293,124	32,282,776	82. 1. 9	도체육회의회의실
경북 "	염 길 정	25,140,866 25,018,433	32,532,373	82. 1. 10	도체육회강당
경남 "	이 도 계	18,791,261 18,424,240	34,000,000	82. 1. 27	동양체육관
제주 "	장 의 전	8,831,600 5,439,450	9,530,000	82. 1. 16	제주도태권도회관
국민학교태권도연맹	곽 경 배	12,456,290 12,456,290	19,493,900	82. 1. 16	반도유스호스텔
중, 고 "	김 한 선	15,498,223 15,498,223	38,781,348	82. 1. 8	뉴서울호텔

김운용회장, IOC의 올림픽운동 위원회 9인위원회 선출! 서울 올림픽 조직 위원회 집행위원에도!

지난 2월 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 IOC의 올림픽운동위원회의 9인위원의 한사람으로 선출되었다. 5월에 열릴 IOC총회에서 정식 발족하게 될 이 위원회에는 사마란치 IOC위원장, 토머스 켈러 국제경기연맹회장등이 위원으로 선임될 예정이고 보면 김운용회장의 위원직 피선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국인으로서 IOC위원이 아닌 정책수립기구의 최고위원으로 관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편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3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집행위원회 및 위원총회를 열고 김운용회장을 집행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초의 동조조직위원회 발족에서는 김회장은 조직위원으로 선출될바 있었다.

태권도 협회 상근 부회장에 엄운규 서울시 협회장, 태권도 아카데미 추진위원장에 이종우 전 세계연맹사무총장, 국기원 기술심의회 의장에 이병로씨 「롤백」



81년도 대의원 총회에서 부회장 선임권을 대의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은 지난 1월 22일 엄운규 서울시 태권도 협회장을 선임하고 사무국장에는 김용휘(동대문상고 교치)씨를, 태권도 아카데미 추진위원장에는 이

종우 전 세계연맹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한편 김순배 부원장이 겸임하던 기술심의회 의장직에 이병로 전 의장을 임명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인사조치는 김운용회장이 국제적인 업무량이 과중됨에 따라 중주국의 내실화에 하자가 있어서는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반영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부 태권도인들은 70년대 초기와 같은 부작용을 재발해서는 시대적 착오라는 기우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의 인사조치로 대다수 원로들은 명예로운 퇴직의 역사를 수립하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어 태권도계에도 목하 볼바람이 불고 있는 듯 하다고 뜻있는 이들은 입을 모았다.

유도 대학에 태권도 학과 신설, 정원 100명

대한유도학교(4년제, 학장 이상찬)에서는 태권도학과를 82학년도 부터 신설하고 정원을 100명으로 문교부의 인가를 득 했다고, 지난 2월에는 후기대학과 같이 신입생을 선발했는 데 무려 300여명이 지원 3:1의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학교측은 태권도학과 외에 격기학과에도 태권도 전공을 원하는 100여명의 지원자들이 몰려왔다고 했다. 학교측은 학력교사 20% 내신성적 30

% 실기성적 50%를 배정하여 태권도학과 지원자들은 기본기, 기초체력 및 경기력(겨루기)을 주로한 실기점수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한편, 유도대학의 이규석교수(7단)는 태권도학과 신설이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평하면서 앞으로 수 년 이내에 국가대표급 선수양성의 명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KBS 3TV(교육방송) 스포츠 교실에 태권도 방영, MBC TV뉴스센타에서도 스포츠 과학화에 태권도를 주요 취급.

최근 각종 매스컴 특히 「텔레비전」방송국에서 태권도를 비중 크게 보도하고 있다. 태권도협회 홍보과에 의하면 지난 2월부터 KBS TV교육방송(UHF)의 스포츠교실시간(매주 일요일 오후 2시 10분~3시 방영)에 태권도의 기초편과 경기편을 방송했다고 한다. 협회 박해만 전문위원장이 강사로 심명구(5단), 이종관(5단), 차용훈(4단) 및 장정남(여: 4단) 사범 등이 조교를 맡아 매주 1시간(50분)씩 7주 동안 계속 되었다고, 추운 날씨에도 국기원 팔각정에서 야외녹화를 해서 태권도인의 기개를 많은 시청자들에게 보여 준 강사와 조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한편 MBC TV에서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스포

츠 과학화에 카메라 초점을 맞춘 듯 태권도의 과학적 분석을 주제로 한 육사의 박승용 대위의 석사학위논문 「태권도의 장애물 넘어 격파의 영상분석」에 힌트를 얻어 수십개의 타종목을 대표하여 태권도가 스포츠 과학화의 선도역할을 하는 내용을 방영했다고 한다. 이날 녹화는 유도대에서 했는 데 마침 동남아 시범을 앞둔 선수들의 시범까지 녹화함으로써 많은 영상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MBC의 담당자이인 최용익씨는 태권도가 다른 어느종목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 놀랐다고 하면서 태권도인들의 연구자세에 펴이나 놀란 표정이었다.

82년도 심판 보수 교육

중앙협회는 3월 12,13양일에 걸쳐 Ⅱ·Ⅲ급 심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170여명의 심판 및 코치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는 일부 개정된 경기·심판 규정을 위주

로 협회의 황춘성 전무이사가 강의를 담당했으며 수강자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의 토론을 벌이며 정확한 심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석명수씨, 중앙협회에 승용차 기증!

지난 1월 8일 반도상사대표인 석명수씨가 승용차(포니) 1대를 중앙협회에 기증했다. 날로 격증하는 행정지원업무 및 경기업무에 따라 업무용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애로를 듣고 평

소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지녀온 석사장이 쾌히 승용차를 기증하게 됐다고. 한편, 협회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싱글 병글.....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전 지방에서 개최

중고 연맹(회장: 김한선 국회의원)에서는 제 9회 회장기 쟁탈전을 경북 김천에서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기로 했다. 지방 학교의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회는 대학진학에 특기자 혜택을 받기 위한 전국의 태권학생들의 폭 넓은 참가가 예상된다. 한편 단체전을 겸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의 태권도 강팀들의 참가가 예상되어 치열

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각팀 코치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경북 김천시(시장: 김광원)에서는 6만여 시민들과 함께 새봄의 체육행사로 치루게 될 이번 태권도대회를 맞아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특히 이번 대회가 펼쳐질 김천시립체육관은 새단장을 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전 부대 감사패 전달

제5779부대(부대장○○○)는 소병모 대위가 이끄는 태권도팀이 막강한 특전용사들의 터전이다. 지난 1월 13일 서울 근교의 5779부대를 김용훈회장을 대신하여 황춘성전무와 박명수 전문위부의장이 방문, 평소에 태권도 우수선수 양성에 공이 큰 부대장이하 매대장급 이상의 지휘관과 참모장 김진호 대령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자리에서는 올림픽의 종목채택전망과 군의 전투력 증강방안으로서 태권도가 이바지한 공적등에 관해서 상호 의견교환을 하는 등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안 사마란치 IOC 위원장 내한



4월 7일 내한할 사마란치 IOC위원장은 그 이틀째인 8일 오후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시범을 참관하며 태권도인의 환영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내한은 88서울 올림픽의 성

공적 진행을 위한 시설과 서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업무진척사항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며 태권도는 이번 기회에 국제적 스포츠로서의 진가를 발휘, 올림픽 프로그램 종목으로의 채택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연맹에서는 귀빈 접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한체육회의 81년도 우수선수에 동아대학교의 정찬선수 선정



대한체육회(회장 조상호)는 81년도에 있었던 각종 경기의 우수선수들을 가맹단체별로 1명씩 선정하여 시상했다. 태권도에서는 부산 동아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 찬(22세, 사진)선수가 선발되었다. 정

선수는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제 1회 월드·게인에서 태권도 종목의 라이트·헤비급 우승을 비롯, 국내의 경기에서 동체급의 패권을 휩쓸고 있었다.

경남협회, 사범 복지규정 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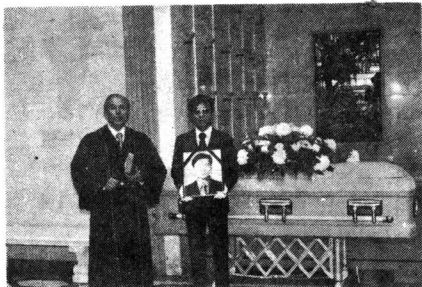


경상남도 태권도협회(회장 : 이도재)에서는 동협회 기획이사겸 지도위원인 조희삼(7단 : 사진) 사범의 제안에 따라 지 해 11월 22일 사범복지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4

단이상인 사범 및 심판자격을 소지한 자로경남협회에 등록된 자를 회원으로 한다.

또 회원의 사망시 50만원, 회원의 직계가족사망시 30만원 등가 종경조사에 3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더우기 85년후터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금이 역대에 도달하는 연도부터는 태권도 발전에 헌신한 원로들부터 올림픽 판판 및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한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한 자지의 태권도인들은 고무적인 사업 소식이라고 반가와 하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한 복지제도를 창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김정광사범 별세



지난 1월 3일 루이지애나에서 7개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김정광 사범이 한 미치광이가 휘두른 총탄에 우연히 맞아 사망했다. 그날 고 김사범은 도장에서 지도수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광란자의 총에 맞은 것이다. 고 김사범은 일찍

기 1967년에 파월 백마부대의 태권도교관으로 시작하여 72년부터 76년까지 국기원 시범단원으로 활약한 바 있다. 급서한 김사범의 제자들은 맑은 날, 바람을 맞은 듯 망연자실 하였으나 유단자들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고인의 뜻을 받들어 계속 수련하고 있다. 제자들은 김사범의 유물과 사진 및 증명서등을 정리해서 모셔 놓고 도장이름도 「불루·드래곤」이라는 그의 별명을 붙인 채 태권도수련에 여념이 없다. 삼가 서른 아홉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김정광사범의 명복을 빈다. 태권도와 더불어 그의 공적에 대하여 전 태권도인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역의 한 한국사범이 뿌려 가꾼 태권도의 묘목이 거목으로 자라기 위한 밑거름이 된 그의 희생은 길이 남으리라 믿는다.

<p.72에서 계속>

25. 1978년 10월 5일 각 중앙본관(9개관) 폐 새로 협회 중심제로 단일화.

26. 1978년 10월 26일 제 4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개최. (서독 슈투트가르트)

27. 1980년 7월 1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을 승인함과 동시에 태권도를 경기종목으로 공식승인. (모스크바 제 83차 IOC정기총회)

28. 1980. 11. 1~5 제 1 회 국제군인태권도선수권대회(CISM)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개최. (15

개국 160명 출전)

29. 1981. 7. 24~8. 2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제 1 회 월드게임 개최. 태권도등 16개종목, 김운용 세계연맹총재가 집행위원장으로 활약

30. 1982. 2. 24~27 남미 에콰도르夸야빌에서 제 5 회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36개국 229명 출전)

31. 1982. 2. 5 IOC집행위원회에서 태권도가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됨.

국 기 원 공 지 사 항

사법 자격증(소형) 발급 시작!

단(품)증 정정 절차!

단(품)증 재발급 신청 절차!

공 지 사 항

1. 사법소자격증(64절)을 사법지도자교육 제 32기(81.12.19)부터 발급하고 있으므로 희망자는(31기 이전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가. 신청서 1부(첨부 2양식)

나. 사진 1매(증명사진)

다. 수수료 1,000원

라. 우편 신청시는 우표 1매

2. 승단(품) 심사신청서 제출시 성명 및 생년월일을 본인과실(기타 사유등)로 단(품)증 대장에 기록된 사실을 정정하고자 할경우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제출바람.

가. 생년월일 정정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2) 본인 자필 이유서 1부

다. 성명정정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2) 공증서 1부(법률 사무소 발행)

(3) 본인 자필 이유서 1부

다. 위 가, 나항의 정정 수수료 5,000원

라. 위 가, 나항의 우편 신청시는 우표 1매

(결과 통보용임)

3. 대, 소단(품)증의 분실등 기타 사유로 재발급 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 바람.

가. 신청서 1부(첨부 2양식)

나. 사진 1매(증명사진) : 소단증에 한함.

다. 수수료

(1) 소단증 1,000원

(2) 대단증 3,000원

라. 우편신청시 우편요금 송금

(1) 소단증 : 60원(일반우표 1매)

(2) 대단증 : 700원(비니루 상자 및 우편료 포함)

대단(품) 및 소단(품)증 일부 개정

구분 단품	용 (현 행)			로 (개 정)		
	내 용	색 도	지 역 표 기	내 용	색 도	지 역 표 기
대 단 증	1. 국내 4단이상 단증	녹색	각지역표기	내 용 단 일 화	녹색으로 단일화	각지역표기삭제
	2. 서울 단증	청색	서울지역표기			각지역표기(현행과 같음)
	3. 각지역 단증	"	각지역이기			
	4. 해외 4단이상 단증	녹색	"	현행과 같음	황색(현행과 같음)	각지역표기(현행과 같음)
	5. 해외 3단이하 단증	청색	"			
	6. 국제없는 단증	녹색	"			
	7. 명예 단증	청색	무			무(현행과같음)
대 품 증	1. 서울품증	황색	서울지역표기	내 용 단 일 화	황색(현행과 같음)	각지역표기(삭제)
	2. 각지역품증	"	각지역표기			각지역표기(현행과 같음)
	3. 국제없는품증	"	"			
	4. 해외품증	"	"			
소 단 증	1. 해외 4단이상 단증	녹색	무	내 용 단 일 화	녹색(현행과 같음)	무(현행과같음)
	2. 국내, 외4단이상 단증	"	"			
증 품	국내외품증	황색	"			현행과같음(변경무)

태권도 수련이 아동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남녀아동의 신장·체중을 중심으로

정 찬 성
〈중앙대학교 체육학강사〉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방법
- III. 고 찰
- IV. 결 론

〈편집자주〉

우리들 일선의 지도자들은 학부형들로부터 흔히 이런 질문을 받는다.

“태권도를 하면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데 정말이냐?”고 또 비만증 어린이가 늘어가는 요즘에 “운동을 해서 더 많이 먹고 살이 찌지는 않느냐고?” 여기에 대하여 중앙대학교 강사인 정찬성 사범의 이번 연구는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태권도는 아동들에게 비만증을 없애주고 키를 크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선 사범들은 이런 점을 널리 홍보하기 바란다.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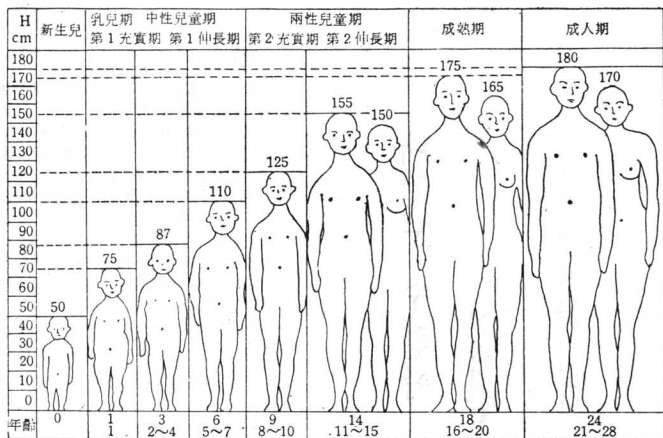
1. 연구의 목적

문명의 고도화로 인한 각종 공해는 신체발육이나 건강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고 있으며 인간활동은 점차 퇴보(退步)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直視)할 때 특히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운동을 추구하는 빈도(頻度)는 나날이 증가(增加)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체육시설을 증대(增大)시키고 있으며 실내의 Sports장이 많이 개설되어 있고 더우기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수련장도 어린이 교육의 장으로서 크나큰 기여를 하고있다.

시대적으로 요청되기도 하지만 항간에는 발육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과격한 운동량을 부과시킨 발육에 저해되는 요인이 된다는 말도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관점을 고찰하는 것도 운동과 발육에 관한 연구로서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서 필자는 20여년의 수련경험과 10여년에 걸친 학생지도를 통하여 얻은 태권도와 아동 신체발육에 따른 고찰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아동기의 신체발육 상황을 규명키 위하여 태권도 수련집단과 비수련 집단군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Sports 권장도(勸奨度)와 건강증진(健康増進)에 기여코저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표 1〉



2. 이론적 배경

ㄱ. 신체의 발육단계

인간의 발육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체의 구성이 생후 후천적인 인자, 예를 들면 환경이나 영양 또는 운동등을 통한 자극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발육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포가 증가하여 형태가 커지는 것이 성장이며 신체의 기능이 분화되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달하는 것이 발육이지만 이러한 요소를 한데 묶어서 체력이 향상됨으로 편의상 이것을 발육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신체의 발육단계를 「슈트라쓰」씨의 이론에는 표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ㄴ. 아동기 신체발달의 특징

아동기는 신장, 체중이 함께 연간 증가량이 거의 일정하고 9세까지는 남자가 약간 여자보다 크나 10세 경에는 여자가 남자를 능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신장에서는 12세, 체중에서는 13세경까지는 계속되지만 그 후는 다시 남자가 여자를 능가하게 된다.

한편 성인과 비교해보면 신체·각부의 균형이 다르다. 머리가 비교적 크고 다리가 짧다. 즉 10~11세경은 두장상을 기준으로 하면 6두장 정도이

며 13~15세경에 이르면 7두장 정도가 된다.

더우기 아동기는 일반적으로 몸이 말라 있는 시기이며 특히 9~10세경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근태에는 신장이 뛰어나게 자라고 있으며 소독의 증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영양과 운동의 불균형(不均衡)이 원인이 되어 도시에서는 비만이 많아지고 있다.

3. 연구의 전제

본 연구는 시기적인 제약이나 조사의 난점등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한키로 하였다.

1) 서울시내 국민학교 학생중 1학년부터 태권도 운동을 계속한 어린이를 추출하였으나 전체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2) 해당된 학교 아동중에서 양군을 추출하였다

3) 신체발육상황은 개인차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4) 조사의 자료는 직접측정과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신체상황부분을 발해하였다.

5) 자료의 지원은 각학교의 담임교사들의 협조로 구성되었다.

6) 지방과 타 Sports와도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7) 논문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하여 3학년 신체검사 결과 동일 체격조건을 추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계획

본 연구를 위하여 1980년 신체검사가 끝난 기간에 일차 신체상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1981년 일차 자료를 얻기 위하여 서울시내 각지역별 아동에 대한 추출인원을 확정하였다. 구분은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강남으로 나누어 남자 240명 여자 120명 총 360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1981년 5월에 태권도수련집단과 비수련집단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남·여별로 분류하여 신장과 체중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상의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지방과 외국 아동의 신장과 체중을 비교 분석하려 하였으나 실행치 못하고 7월 5일부터 10일동안 자료분류 및 통계를 실시

〈표 2〉 각 구역별 추출인원 현황표

구분집단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중 부		강 남		계	
성 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태권도수련집단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120	60
비 수련 집 단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20	10	120	60
계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40	20	240	120

3. 자료처리

개인 측정치를 합산하여 남녀별로 비교, 태권도수련집단과 비수련집단의 양군별 비교, 1년차 등으로 그 편차를 소숫점 2자리까지 %분율에 의거 산출하였다.

III. 고 찰

1. 대상의 신체상황

조사대상의 3학년 신체검사시 신체발육상태를 파악하여 평균을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하여 양군을 비교분석하였다.

양군의 비교는 수련군과 비수련군으로 나누어 신체의 발육상황을 중시하였으며 남여로 구분하였다.

논문을 완성하기 전에 분석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으며 특히 태권도수련과 신장, 체중과의 관계에 관한 규명에 역점을 두었다.

2. 대상의 표집

서울시내 국민학교에서 남녀별로 층화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태권도 운동을 장려하고 있는 학교 1개교씩 총 6개교에서 태권도운동을 하고있는 아동 30명(남 20명 여 10명)과 하지않는 아동 30명(남 20명 여 10명) 즉 1개교에서 양군 60명씩 총 360명(남 240명 여 120명)을 동일체격을 중요시하였으며 추출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3〉

집단	신체상황		신 장(cm)		체 중(kg)	
성 별	수련군	비수련군	수련군	비수련군	수련군	비수련군
남	128.1	127.0	25.9	26.1		
여	126.5	125.9	24.29	24.30		

신장면에 있어서는 3년동안 태권도를 수련한 아동의 평균신장은 128.1cm이고 비수련 아동의 신장은 127.0cm로서 태권도를 수련한 아동이 1.1cm의 신장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여자는 태권도 수련아동이 평균신장 126.5cm이고 비수련아동은 125.9로서 태권도 수련아동이 0.6cm의 신장차를 나타냈다.

신장면에서는 전체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아동이 발육에 있어서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

으며 여자에 비하여 남자가 더욱 발육이 좋은 상태를 나타냈다.

체중면에서는 태권도수련을 한 남자아동의 평균은 25.9kg이고 비수련군은 26.1kg으로서 0.2kg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여자는 태권도수련아동의 평균체중은 24.29kg이고 비수련군의 아동은 24.30kg으로서 0.01kg의 차를 보였다.

체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크나큰 차는 없으나 수련집단보다 비수련군이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장의 비교

(평균치 단위 : cm)

집 단	학 년 성 별	1학년때	2학년때	3학년때
수 려 군	남	115.0	120.5	128.1
	여	113.4	119.3	126.5
비수련군	남	115.2	120.8	127.0
	여	114.0	118.5	125.9

남자의 경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1학년때를 보면 태권도수련집단이 115.0cm 비수련집단군이 115.2cm로서 비수련집단이 0.2cm가 더 발육을 보였고 2학년때는 수련군이 120.5cm, 비수련군이 120.8로 비수련군이 0.3cm의 성장을 보이다가 3학년때에는 수련군이 128.1cm, 비수련군이 127.0cm로서 태권도수련군이 1.1cm의 현저한 발육을 나타내고 있다.

여자의 경우 운동을 시작하여 1학년 때를 보면 태권도수련집단이 113.4cm, 비수련집단이 114.0cm로서 비수련군이 0.6cm가 더 발육되어 있으며, 2학년 때에는 태권도 수련군이 119.3cm 비수련군이 118.5cm로 수련군이 0.8cm 발육을 보였고, 3학년 때에는 수련군이 126.5cm, 비수련군이 125.9cm로 태권도수련집단이 0.6cm 더 발육을 보였음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볼때 남·여 공히 3학년에 와서는 태권도수련집단이 더욱 성장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태권도수련의 효과에서 체력을 증진시키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자세를 교정하여 아동의 성장발육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

는 것이다.

〈표 5〉 체중의 비교

(평균치 단위 : kg)

집 단	학 년 성 별	1학년때	2학년때	3학년때
수 려 군	남	19.5	23.4	25.9
	여	18.8	22.5	24.29
비수련군	남	19.3	24.0	26.1
	여	18.7	22.8	24.30

남자의 경우 운동을 하기전 1학년 때를 보면 태권도집단이 19.5kg이고 비수련집단은 19.3kg으로 수련군이 0.2kg 더 무겁고 2학년때에는 태권도수련군이 23.4kg, 비수련군이 24.0kg으로 비수련군이 0.6kg 더 무거우며 3학년때에는 수련군이 25.9kg 비수련군이 26.1kg으로 비수련군이 0.2kg 더 무거움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남자아동의 체중의 비교에서는 수련에서의 체중의 감소는 평균치로 보아 현저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운동을 하기전 1학년 때를 보면 태권도집단이 18.8kg, 비수련집단이 18.7kg으로 수련집단이 처음에는 0.1kg 더 무거웠으나, 수련을 시작하여 2학년때에는 22.5kg과 22.8kg으로 0.3kg의 편차로 비수련집단이 0.3kg 더 무거워짐을 알 수 있다. 또한 3학년 때에는 수련집단이 24.29kg 비수련집단이 24.30kg으로 비수련집단이 0.01kg 더 무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태권도집단이 다소 체중이무거워 보이고 있으나, 2학년, 3학년에 갈수록 체중의 현저한 감소를 보여 태권도수련으로 인한 체중의 정상적 감량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1. 結 論

태권도운동집단과 비운동집단의 신체발육상태를 국민학교 저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규명 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적으로보아 큰 차이는 없으나 운동집단의 신장이 크며 체중은 감소 현상을 나타냈다

2) 대상이 한창 발육기에 있는 아동들이므로 운동을 계속 부하시켜 6학년까지의 결과를 고찰한다면 더욱 신빙성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3) 개인차에 대한 오차도 있으나 영양관리, 환경, 운동량 등을 감안하여 볼때 절대성의 값이 타고는 단언할수 없다.

4) 운동집단의 체중이 비운동집단보다 적다는 이유는 태권도수련을 통하여 피하지방의 제거나 분비물 증발에 의한 간접적인 원인을 시사할 수 있었다.

5) 본연구를 통하여 태권도수련집단이 신장의 저해가 된다는 관념은 탈피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었다.

2. 提 言

지금까지 상술한바 태권도수련아동군과 비수련군의 신체발육관계에서 보면 발육기에있어 심한 격차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나 운동권장에 따른 몇가지를 제언코자 한다.

첫째 : 발육기에 있는 남녀아동들에게 투기운

동을 권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육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 투기운동 특히 태권도운동을 통한 신체발육의 저해관념은 일소되어야 하고 널리 계몽되어야 한다.

셋째 : 각급학교와 유아교육에 투기운동을 보급화 하기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구현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고 세계적인 추세나 국가시책으로 대두한 조기교육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강인한 정신력과 아울러 강건한 체력을 위하여 아동의 태권도 교육은 지극히 바람직한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문헌〉

1. 윤인호, 저 체육심리, 문천사 1976년.
2. 강중환, 저 정신위생, 재동문화사 1972년.
3. 이병위, 저 체육측정, 춘조사 1971년.
4. 조구연, 저 통계학개설, 학원사 1972년.
5. 정찬성, 저 운동역학, 명지출판사, 1981년.
6. 문교부, 체 육자료총서, 운동적성 1973년
7. 문교부, " 체육평가 1973년

태권도 상식

홍보과 제공

흔히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현재의 태권도가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서 태권도 가족들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의 비약적 발전을 이룬 중주국의 태권도가족으로서 최소한 우리의 연혁 정도는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중주국을 찾는 외국인이나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려야 하겠다. 다음은 간추린 태권도의 연혁이다.

1. 사적 고찰

태권도는 한국의 고유 무예로서 약 2000년전 (BC 37)삼국시대부터 행하여 졌으며 고증을 살펴보면

가. 고구려 초기 수도였던 환도성(통구지방)에 있는 왕조의 고분인 자저총, 삼실총, 무용총의 현실에 태권도의 자세가 그려진 벽화가 있음
나. 신라시대 화랑도들의 도수무예로서 익혀 왔음.

다. 경주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은 부조된 막기의 자세를 취하고 있음.

라. 고려시대 국자감(당시 국립종합대학)에 강예제를 설치, 태권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

마. 이조시대 정조 14년(서기 1790년)에 왕의 명을 받아 이덕무가 저술한 무예도보 통지에 태권도(당시 택견, 수박희, 권법, 변, 자저등의 호칭)가 수록되어 있음.

2. 1945년 8월 15일 해방후 산발적으로 사도계 진본가(청도관—이원국, 연무관(지도관)—전상섭, 송무관—노병직, 창무관(YMCA)—윤병인 무덕관—황 기)들이 자자 후배육성에 이바지하였음.

3. 1950년 6월 25일 동란후 군소도장인 오도관, 한무관, 정도관, 강덕원, 연무관, 수무관, 창현관, 문무관, 상무관, 청양관, 국무관, 홍무관, 평무관, 충무관, 청무관, 진무관, 무학관등

40여개관이 난립되었음.

4. 1961년 9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 창립.

5.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로 가입 승인.

6. 1963년 10월 9일 제44회전국체육대회(전북 전주) 태권도 종목 참가.

7.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 변경.

8. 1972년 11월 30일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국기원)준공.

9. 1973년 1월 10일 군소도장 정비(송무관, 한무관, 창무관, 무덕관, 오도관, 강덕원, 정도관, 지도관, 청도관인 9개관으로 축소 정비)

10. 1973년 5월 25일 제 1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한국 서울)

11. 19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창립.

12. 1974년 8월 7일 국기원 재단법인 등록

13. 1974년 10월 18일 제 1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한국 서울)

14. 1975년 8월 28일 제 2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한국 서울)

15. 1975년 10월 5일 국제경기연맹(GAISF)에 세계태권도연맹 가입 승인

16. 1976년 4월 9일 국제군인체육대회(CISM)에서 태권도 경기종목으로 채택.

17. 1976년 5월 10일 작관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로 개칭(1관-9관)

18. 1976년 10월 16일 제 2 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호주 멜보른)

19. 1977년 8월 1일 태권도 총본관 탄생(9개관을 계열로 인정)

20. 1977년 9월 15일 제 3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미국 시카고)

21. 1977년 12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 사단법인 등록

22. 1978년 6월 28일 프레스월드게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한국 서울)

23. 1978년 8월 5일 태권도 총본관 폐쇄

24. 1978년 9월 8일 제 3 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홍콩)



제32기 지도자 교육을 끝내고

교육문화위원장 이 규 정

82년 12월 19일 열흘 간의 지도자 교육을 마치고 111명의 사범이 배출되었다. 새시대가 요구하는 태권도 사범상을 확립하고자 국기원에 모인 방방곡곡의 태권도인들은 전에 없이 진지한 자세로 기초체육이론과 트레이닝이론 및 교육학 이론을 배웠다. 또한 태권도의 기본동작과 용어통일을 기하는 한편 품세의 정확한 지도를 위한 실습을 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철저한 통제아래 피교육생의 정신함양을 위해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은 태권도 지도자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인, 청소년의 선도자로서 체육활동은 물론 정신적으로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더우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생의 일관된 價値觀을 지니지 못한 채 일시적이며一回의인 감각적 쾌락만을 좇아 人生의 참맛을 모른채 삶을 영위한다고 볼 때 精神的 師道를 가르치는 사범이야말로 真正한 指導者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다시 이야기 한다면 태권도 사범은 武術로써의 技術을 전수하는 技能보유자가 아닌 武道로써의 태권도의 참뜻을, 배우는 修練生들에게 바르게 심어주는 스승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지도자교육의 과목에는 교육심리학이나 민족사관, 또 건전한 생활의 지혜인 「액트레이션」과 같은 피교육자의 이해에 力點을 두고 있다. 이미 십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우리 사범교육은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아직도 자질을 의심케하는 사범후보자를 보게된다. 작년의 지도자교육생 중에 ○번 수강생의 경우를 보자. 머리는 어깨에 까지 닿을 만큼 치렁치렁했다. 또 그는 추리닝복을 열흘간 계속해서 교육장에서나 외부에서

입고 불결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 했다. 보다 못해 지적을 한 동료에게 그는 불손한 태도만을 고집했다. 물론 태권도인으로서 구도자의 자세를 지키는 것이라면 누군들 낡은 의복이라 해서 지적하겠는가? 요는 항상 단정하고 청결한言行을 하여야 한다는 지도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그는 망각했던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번 32기 수강생 중에는 사범의 됃됨이를 동료들에게 술신수범한 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특히 나이 40이 훨씬 넘은 모부대의 박대령은 나 어린 동료들에 뒤질세라 하루도 빠짐 없이 강의에 참석하여 존경을 한 몸에 모았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실제 행동에 옮겨 132명의 동료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향도의 역할을 한 것이다. 박대령은 군무에 바빠 텐메도 불구하고 강의시간에는 철저하게 노트 필기를 했다. 또 품세실습에서도 열성어린 태도로 몸을 뉘뉘 돌리며 선두에서 모범을 보여 지도강사들이 보람을 느끼게 했다. 나는 군인이라는 그의 신분과 대령이라는 그의 계급에 앞서 그의 한 인간으로서의 생에 대한 자세가 그토록 진지하고 전력투구의 습관을 지녔다는 점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또 나는 태권도의 장래가 무한히 밝다는 것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되새겼다. 이번 32기 수강생들도 나와 같은 감동을 대부분 느껴서인지 박대령에 못지 않은 성의를 보여 기술심의회와 교육평가에서도 역대 지도자교육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강생들로 평가되었다. 이렇듯 지도자란 자기 人生에 대해 확고부동한 가치관을 지닌채로 전력투구하는 자세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

았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남에게 가르치기도 또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란 자기위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위치에 걸맞은 책임을 스스로 지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 태권도 사범은 기술이 뛰어난 기능인이 아닌 知·德·體가 함께 한 인격자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서 적은 이득에 흔들리는 비열한 사람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선도자로서 공익을 베푸는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명예를 누려야 할 것이다. 한편, 32기 지도자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드결과 다음 몇가지 의견으로 집약되어 이를 다음 교육에 참고하려고 한다.

첫째, 태권도의 세계적 현황과 각 분과의 규정을 프린트하여 배부하여 줄 것. 또한 과목별 강의 골자를 교재로 만들어 나누어 줄 것.

둘째, 교육기간을 15일로 연장할 것. 특히 집골·해부생리·교육과정작성·테크레이션·인간관계론·겨루기·시범·낙법 및 호신술등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지방에서 온 수강생들을 위해 새마을

연수원과 같은 합숙훈련제도를 건의함.

넷째, 공공기관 및 직장에 근무하는 유명 태권도인들을 대상으로한 야간교육제도를 둘 것.

다섯째, 군부부 중인 유단자들의 참여를 위해 각 군의 지휘체통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것. 또한, 군인들만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이상, 5가지 외에도 태권도 지도자교육제도에 참고할 건설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크게 다섯가지로 집약하였다. 아뭏든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번의 32기 사범교육에 참여한 결론은 이제 지도자교육은 정착기에 접어들었으며 단지 급변하는 현대 사회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을 사범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서의 위치확립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산지식을 상호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앞으로도 보다 발전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제도의 정립에 노력하겠으며 선배·동료 및 후배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글을 맺는다.

“素望의 跆拳道 三題”

李 京 明

(오스트리아태권도협회기술위원장)

I. 國技院

“태권도 중추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국기원은 착공 1년만인 1972년 11월 30일 완공. 문을 열었다. 서울시장남구 역삼동 산 76번지는 국기원 세계 태권도 중앙센터의 현주소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제 3한강교 건너편 구릉위에 세워진 태권도 센터. 국기원은 연건평 1천1백89평(대지 2천3백평)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의 규모, 경기장 면적은 2백27평으로 웅만한 실내경기장을 열수 있고

강의실, 회의실, 라커룸, 샤워실등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붕은 교유의 美를 나타낸 청다와로 되어 있으며 24개의 기둥으로 받쳐져 있기 설계는 이광노 서울공대 교수가 맡았다.

당시 대한 태권도협회는 시설비로 자체 기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 1억5천만원원을 국기원건립에 투입했다.”(당시 도하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임)한마디로 정성모은 고유미의 요람이라 하겠다.

국기원은 세계태권도맥카로 벽안의 수련생들의 순례가 끊어질 사이없다. 실로 외국의 수련생들은 국기원방문을 일생의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밤낮으로 수련하는 합찬 기합소리가 영동구룡위의 국기원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 피땀흘리는 수련의 대열에 끼어 技藝를 연마코저 하는 염원에 불타고 있다.

국기원 건물에는 원장실, 국기원 사무국, WTF본부, 국기원연구실 등이 있으며 각종 교육, 심사, 경기가 실시되고 있다.

1981년 대한태권도협회 정기총회에서 김운용 회장은 국기원 산하에 「태권도아카데미」를 신설 각종 교육 및 과학적인 경기기술 개발등을 연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도 없지 않으나 딱 고무적인 회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내지도자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어 자질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해외 사범교육은 全無해서 특히 아쉬움을 느꼈던 터인데 올해부터 태권도 아카데미 신설에 많은 기대를 가져 본다.

WTF뉴스레터를 이용 그리고 WTF 회원국, 해외주재사범에게 공문을 보내 단기코스 아카데미 교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

연중 프로그램에 의한 신청, 입교하여 받는 아카데미 과정은 해외사범은 물론 각국으로부터 성지순례하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기술향상 태권도인 단합과 우정교류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계기도 되겠다.

특히 오랫동안 조국을 멀리 떠나 주재국에서 한국의 얼 태권무예를 나름대로 심어온 해외주재 사범의 통일된 기술과 학문적인 이론습득은 물론 내실을 다지고 무도스포츠로 발돋움한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항간에서 일컫듯 국기원이 단지 단증만을 발행한다는 인상에서 탈피, 명실공히 국기원 본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태권도 메카로서 신뢰받는 세계태권도 중앙도장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태권도아카데미」에서 전문지 발간, 세미나, 각종교육 심사실시 등 삼위일체적 운영이 아쉽기만 하다.

II. 태권도인 복지기금제도

“대한 태권도협회는 태권도인의 노후대책과

복지기금을 마련키 위해 82년부터 1차5개년 목표 2억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협회는 연간 3억원의 심사비중 내에는 5%인 1천5백만원을 적립키로 했으며 83년에는 10%, 84년 15% 85~86년에는 20%를 적립해 모두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2차 5개년 계획은 87년부터 실시 6억원의 기금을 만들 계획인데 1,2차 계획이 달성되면 최소한 1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는 셈이다.”

이는 <태권도인 복지기금 5년계획 2억조성>이란 제하의 근간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내용이다.

그간 어떻게 해서 이와같은 方案이 착상되지 못했는지 한심스럽다만 태운은 감도 없지 않으나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이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다만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 사업의 영구성을 염원해 보고 태권도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 공포자에 대한 균등한 수혜혜택등 제도적인 시행에 기대를 걸어 본다.

복지기금제도는 태권도의 장래를 더욱 밝게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유공태권도인의 노후대책등 복지기금제도는 바로그 성실히 일할 의욕을 일깨우는 활력소라 하겠다.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유망신인 선수중 집안이 가난한 선수, 유공지도자, 그리고 노후에 불우한 유공태권도인이 수혜대상이 되어야겠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때 태권도인 복지기금제도 마련은 자못 의의가 깊은바다. 첫째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행정인의 자세확립 둘째는 지도자로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노력하는 겸허한 본연의 자세확립, 셋째는 유망신인 선수의 저변확대 등이 모두가 결국 태권도 중추국의 권위와 아름다운 전통으로 세계무도스포츠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태권도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III. 심판원의 권위확립

태권도가 경기화되면서 기술의 다양화는 물론

심판원의 자질향상은 당위적 선결문제라 하겠다. 빈번한 각종대회로 인해 선수의 기술화에 비해 심판원의 전문화는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라 하겠다.

각종 대회에 참가해 느끼는 심판원의 저질적 비양심적 판정등으로 인해 입게되는 자신의 품격 절하에도 당장의 승리에 혈안이 되는 사범이 아직도 있음은 저오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판정에 불만을 품은 관객, 임원등의 항의소동이 결코 는 이성을 잃고 주먹이 오가고 사이다병을 경기장에 던지는 등의 추태를 빚는 사례는 근절될 수 없는 우리들의 숙명적인 근성이 되어야 하는 건지, 냉철히 반성 시정해야 할 과제이기도하다.

해외에서 지도자로 생활하며 사범들이 주최했던 각종 친선대회를 통해 뼈저리게 체험한 사례를 들자면 너무도 부끄러운 얘기가 될 것 같다.

선수에 앞서 사범이 자기 제자가 지면 먼저 항의소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본부석에 와서 채점표 공개요구 심판원 경질요구등 앞장서서 항의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우리가 지도하고 기른 제자들의 제전에 정정당당하게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 승부를 겨루는 분위기와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사범의 자법의 자세가 아쉽기도 했다. 게다가 걸핏하면 고단자와 IR(국제심판원)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등 내세우는 자가발전이 그 사범의 質을 보증해주지는 결코 않는 법인데도 소심한 행위가 못마땅하기만 하다.

심판원 자질향상은 경기의 美化, 기술화를 조성하는 素因이라 할 수 있다. 선수의 스포츠정신 함양과 발휘는 자질높은 심판원의 운영에 달려 있다.

심판원은 규칙에 따라 엄정한 판정과 경기를 명랑하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하는 거다. 그로인해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게되는 아름다운 갈채와 성원은 무도스포츠로 발돋움하려는 활력소가 될 것이며 태권도인구 저변확대에

도 한 몫을 할 것이다. 또한 심판원에 대한 대우 개선 경기시의 결대권한 등을 보증하는 품토조성에도 힘 써야 하겠다.

WTF(세계태권도연맹)나 제 5 회 세계대회, 각종 국제 친선대회를 치르면서 특히 한국 심판원에 대한 不信僿을 외국인으로부터 얻게 된 셈이다.

그 실례를 보면 초청위원회의 일방적 구성, 심판원 배정규정에 있어 고단자 배신제도등은 자연히 한국인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 한국팀에 승리를 안기는 결과라 여겨 한국계를 경원시키는 경향이이다.

강력한 항의로 인해 이제는 국제별 배정, 배심원의 권한은 실추되어 단지 채점표를 계산하는 계산원으로 타락한 듯한 위치가 오늘에 이르러 있음에 우리 다함께 냉정히 반성해 봄이 좋겠다.

WTF경기규칙 제21조 심판원의 구성 및 배정 원칙은 이제 는 무시당하고 있고 이러다간 국제별 심판원의 구성, 배정원칙에서 탈피, 피부색 깔로 비화(飛火)하는 인종주의원칙적용이란 딜레마에 몰입하게 될까 자못 걱정스럽기도 하다.

경기/심판 기술의 보급화를 내세워 양산되는 IR, 그 국제심판원이 연 회비만 납부하고 자격증 소지자란 빛나는 경력만이 태권도의 발전에 얼마큼 질적 向上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계 IR는 점차로 고립되고 국제 심판원으로 초청받을 기회는 영원히 없게 되는 암울한 길목에서 고심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만 같다.

WTF는 이런 점을 감안, 질적인 IR의 양성전문화 등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또한 WTF 기술위원회에서는 경기 규정의 과학화를 위한 부단한 연구노력 관객 선수 그리고 심판의 삼유일체적 공감각(共感覺)을 느낄 수 있는 경기 「를」 개선 및 보완, IR의 보수교육, 세미나등 폭넓은 활성화 작업이 아쉽기도 한데 이는 비록 나 혼자만의 素望이 아닐 것이다.

바닷가에서...

최 근 종
구의도장 사범

눈부신 원광(圓光)의 탑을 쌓는다. 물거품으로 부터 차오르는 힘찬발 하이
얀 음물을 밟고 살쫓한 춤사위를 그리듯 양손은 허공에 원을 그린다.

파도 자락이듯 힘차게 뻗는 발차기, 반만년 민족혼 처럼 오늘 우리 가슴속
에 정기(正氣)를 불어 넣어준다.

한줌의 무게도 질량도 가슴 속에 산화해 버리고 대해(大海)의 웅지(雄志)를
담는다.

백의 민족의 면면한 흰바탕 옷을 입고, 오대양 육대주 지구촌을 향한 우리
태권도! 힘차게 외친다.

민족의 사자후 태권! 큰 바다를 向해서.....

만 남

세석도장 사범 양 철 기

김 형!

오늘도 부폰 회광과 기대감속에서 새벽길을 나섰지만 허탕치고 다녀왔답니다. 요즈음도 매 주 등산다니고 계십니까? 저도 한 때는 설악·지리·한라산등등 안 가본 데 없이 다녀보기도 하고 암벽도 다해 보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낚시가 더 좋아졌답니다.

아마도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한다는 옛글에 비취 저는 인자는 아니될까 봅니다. 저는 낚시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상쾌해 지니 말입니다.

출조 하루를 위하여 3,4일전부터 낚시매 손질 하라 낚시바늘, 먹이 준비하라 「버너」에는 이상이 없나 양념통은 찌작 있나 정리 하노라면 마음은 벌써 낚시터에 가 있습니다.

일요파부를 자청하던 집사람도 밤낚시 쫓아갔다가 너무 고생을 하여서인지 이제는 잘다녀오라고 인사까지 합니다.

김형!

새벽공기를 가르고 달리는 열차에서 부터 낚시의 쫓은 피기 시작합니다.

처음만나는 낚이 아닌 군을 만나면 나이가 많은 적전 지위가 높은 낚진 몇 년 전부터 사귀어온 친구같이 수다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로 만남이 시작된답니다.

물론 붕어 이야기이지요…….

낚시터에서는 붕어들과의 만남을 위하여 고요와 적막 속에 지내게 되므로써 우리는 서로 만남의 세월 속에 생활 하는가 봅니다.

김형!

너무 도장에만 전념하지말고 낚시에도 조금

발을 들여 놓으면 얼마나 좋겠소? 모두들 무도, 무도하고들 있지만 그 뒤편에 비치는 갈등 모락 험담 돈 돈하는 돈타령이 있고보면 우리 무도인들도 섬세하면서도 대범한 아랑과 양보와 친숙한 인간미가 있는 낚시철학을 공부하여야 겠다고 생각해 되는군요.

한눈에 펼쳐지는 수평선, 깊이몰 모를 침묵이 깃드는 저수지하며 멀리보이는 아름다운 산세! 들판에는 새봄을 손짓하는 아지랑이! 정말 인간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며 더욱 낚시에 빠지게 되는가 봅니다.

원래 무도는 돈이 있건 없건 제자가 있건 없건 그 비법은 혼자만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라면 공의 사상을 부르짚는 김형이 생각나고 보니 낚시도 마찬가지로 잡혀도 좋고 안잡혀도 좋고 월척이라도 올린다면 누가 인정해주건 말건 나혼자 그대 그순간의 희열을 간직하고 보면 낚시와 태권도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군요.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 도장을 새로히 시작하게 되고보니 걱정이 태산 같구려 지년번에 하도 혼이 나고보니 겁이 다 나는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였던가요. 축재와 향락과 명예에 사는 인간의 3대 부류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청소년 선도사업이다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니 분명, 우리는 명예에 속하는 인간인것 같구려.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같군요. 이권이 개입되니 말입니다.

김형!

이런 저런 번잡함 다있고 올해는 낚시한번 시작합니다.

물론, 저의 조수로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서사법 따라서 바구니들과 식사
담당 조수로 시작한 낚시이지만 이제는 제법 잘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리 정하고 앉으면 잡히진 안잡히진 끝
날 때까지 끈덕지게 놀려 앉아 있지요. 줄이 엉
키면 끊어 버리고 새로 매어 쓰면 손쉬워도 차분
히 한올 한올 풀어 쓰고 비를 맞으며 「칸메타」
불빛아래 줄림, 모기, 추위, 나 자신과의 싸움
에서 이기는 힘을 배웠답니다.

제자랑 같이만 우리집 귀엣동이 현민이 윤정
이가 世上에 태어나기 위하여 깊은잠을 자고 있
을 때 잉어가 產母에 좋다가에 두번 출조하여
두번다 큼직한 잉어를 올려 產母가 보신하여서

인지 아이들 혈색좋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나
일거양득 아십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일찍부터 낚시와
인연이 있는가 보구려.

비록 오늘은 빈 바구니들과 들어왔지만 그 바
구니는 결코 빈 바구니가 아니랍니다.

그 바구니 속에는 다음번 출조의 기대와 창조
주의 오묘한 섭리와 대자연의 풍요와 신성함과
내일의 푸른 꿈이 가득차 있습니다.

金兄!

낚시가 우리 跆拳道人에게 얼마나 좋은가 한
번 시작하자구요.

매운탕에 소주 한 잔 곁들이는 맛을 생각하며
울해는 같이 다니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나의 수련기

충북 진천농고 2년 이 은 표

제가 태권도 도장에 나가게 된것은 본래 몸이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불안감에 못이겨 입관 했
읍니다.

동급생이나 후배들은 유단자, 유급자가 되어
있었고 저는 흰 도복에 흰 띠를 그리고 동작도
아직 낮에 익지도 않았읍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굳게 다짐
하고 학교가 끝나면 즉시 도장으로 달려가 열심
히 운동했읍니다.

흰 도복에 흰 띠를 두르고 도복이 땀에 흠뻑
젖어 축축했읍니다.

현기증이 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꼭 참고 꾸
준히 몸에 익숙해 지도록 열심히 노력했읍니다.

또한 집에서 매일 런닝을 했읍니다. 1달이
지나자 동작들이 차차 몸에 익숙해졌읍니다.

곧 승급심사가 닥쳐왔읍니다. 저는 이 승급심
사를 나의 성의껏 보기로 하고 집에와서도 저녁
을 먹고 마당에서 혼자 품세를 익혔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감 때문에 지쳐있었읍니
다.

드디어 심사!

부분 가슴을 안고 심사에 들어갔읍니다. 몸이

떨렸읍니다.

첫 심사라 그런지 좀 어색하고 동작도 연습때
보다 잘 안되었읍니다. 며칠후 급증이 나왔을때
9급이란 글자가 두눈에 비쳤읍니다.

저는 더 잘하겠다는 일념으로 급증을 소중하
간직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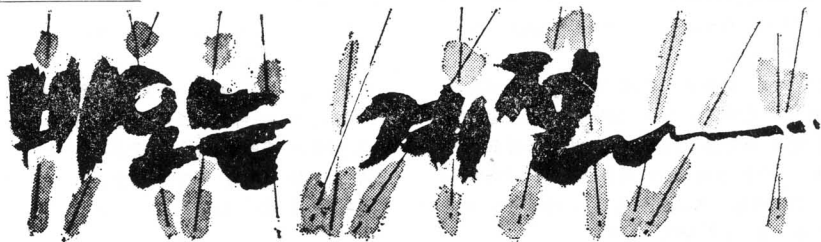
꾸준히 연습하고 승급심사에 응했읍니다. 급
이 차서 단심사를 기다렸읍니다.

입관한지 1년. 기다리던 단심사가 다가왔읍니
다. 저는 열심히 연습했고 동작 하나 하나에 정
신을 쏟았읍니다. 동작이 잡히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읍니다.

심사를 보고 1달이 흘렀을 때 판장님께서 “은
표야 이번 심사때 단증을 수여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이말을 듣고 한없이 기뻐했읍니다 꿈만
같았읍니다.

그후로 몸도 좋아지고 학업도 열중했읍니다.
체력이란 모든 생활의 근본임을 알았고 하면 된
다는 신념도 얻었읍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배웠
읍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노력 뿐입니다.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할것이며 친구들에게 태
권도를 널리 인식시킬 것입니다.



金 建 中

〈지난 줄거리〉

정통 무도인 한문호 판장은 10여년 동안 참신하게 몸바쳐 운영하던 도장이 무인이 도장이라고 '동료에게 고발을 당하는등 갖가지 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한판장은 희의를 느끼고 문사범에게 도장을 맡긴 뒤, 원주 치악산에 산중 수련을 하기 위해 떠난다.

그 무렵, 한판장은 미국 Q체육관 하사범의 초청을 받고 여권까지 발급 받았으나 결국은 많은 방황끝에 미국행을 포기한다.

그후 가슴아픈 무인이 도장이 겪는 설움을 극복하고자 침착한 도장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N판장의 배신으로 새로운 아픔을 맛보며 도장을 설립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날, 승단(품)심사에 문학생을 메리고 참석했다가 커다란 실망을 맛보게 된다. 하여 그는 그 실망에서 비롯된 울분을 텅빈 도장에서 수련으로 달랠때, 20대 후반인 여인이 한판장을 찾아온다.

아직도 한판장은 그 여인을 향해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럴만한 것이 그 여인은 바로 수년 전 이혼했던 한판장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그녀 역시 한판장과 같은 그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러나 분명 두 사람은 놀라움과 반가움과 씩스려움이 적당히 배합된 그런 감정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 어정쩡한 해후.

좁사 좁은 공간에 억지로 세워놓은 정원수처럼 영 어색하기만 했다.

이 결맞지 않은 모습은 역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났을 때처럼 당혹한 분위기만을 심어주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의 침묵이 얼마간 계속 되었다.

「왜일 이십니까?」

결국 한판장의 격된 음성이 경련이 일며 그 침묵을 갈랐다.

「오랜만이예요.」

그녀 역시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풀려났듯 가

벼운 한숨을 동반하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또 짧은 침묵이 그들의 가운데로 흘렀다.

그런데 군침을 맥갈없이 삼키며 촛점없는 눈동자를 굴리고 있는 한판장을 향해, 그녀는 청아한 음성으로 나죽히 그들앞에 깔린 침묵을 뭉개고 있었다.

「역시 변함 없으시군요. ...물론, 수신 교과서적인 줄은 알아요. 하지만 그 교과서적인 것이 실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생각 하세요」

한판장의 흠이라면 흠이 될 수 있는 성품의 정곡을 찌르는 그녀의 단호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한판장은 조용히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정직한 걸 좋은 것이라고들 해요 허나 정직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들 아세요? 사람들은 쉽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당신처럼 고지곤 대로 아니 융통성 없이 산다는 것은 피곤하거든요. ...어쨌든 당신과 제가 이혼한 건 경제적 원인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근원적인 것은 당신의 그 순진하리 만큼 철저한, 결벽증에 가까운 정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옳은 이유일 거예요。」

그녀는 침묵하는 한 관장의 자세에서 발발이라도 하듯 마냥 지껄이고 있었다.

「음…」

한관장은 입을 꼭 다문채, 코로 한숨을 내쉬듯 심호흡을 할 뿐이었다.

「제가 지금 다 지난 이야기 왜 되풀이하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늘상 당신의 그 생활자세를 바꿔주겠다는 우스운 집념이 당신을 보는 순간 발동했기 때문이에요.」

「우스운 집념?」

한관장은 뇌까리듯 다문 입을 열었다.

「왜요. 제가 우스꽝스러운가요?」

「그건 아니지, 다만 당신이 이제와서 집념을 발동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래요.」

부러질듯이 강한 어조로 짧게 말을 끊으며 그녀는 핸드백에서 팻땀한 검은 포지로 된 수첩과 같은 것을 끄집어 냈다.

「여권이예요.」

「…여권?」

「일주일 후 어쩌면 영원히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이민가게 됐어요.」

확실치 그녀는 영원히라는 단어와 이민이라는 말에 액센트로 더하고 있었지만 기실 그건 펄펄에 가까운 음성이었다.

「이민? …그것과 나와 아니 내 성격을 코치겠다는 그 우스운 집념과 무슨 상관이 있으?」

「있죠. 커다란 결단을 내리고 싶었던 제 나름대로의 분명한 결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로서는 뭐가 된지 중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당신과는 몇몇 전 서로의 관계는 이혼으로 인해 이별이라는 커다란 작업을 했지 않소. 이제 와서 당신이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우린 서로 결별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는 식으로 한관장은

의혹의 눈으로 무겁게 말했다.

「아니죠.」

「아니라니?」

「그럼 제 애길 조용히 들으세요. …저로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높히 평가해요. 단 그 융통성 없는 고지식과 결벽에 가까운 성격으로 인해 현실을 꺼그럽게 살아간다고 믿는 그점이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으론 당신이 그 점을 버리지 않는 한 항상 가난속에서 헤여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당신과 이혼이라는 여자로서는 엄청난 일을 스스로 원했겠지만…」

그녀는 갑자기 말을 끝을 흐리더니 짧은 침묵을 지켰고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 생각을 바꾸실 수 없어요?」

그건 이상주의에 불과해요 이상주의라든가, 그 이상주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 줄 아세요.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편히 살아도 힘든 세상을 어렵게 살려고 하세요. 세상과 아니 통속과 비속과 위선과 그리고 적당주의와 현실주의와 그리고 그 모든 이득이 올 수 있는 것들과 타협하세요. …전 결코 지금도 당신이 무능력하다고 평가하진 않아요. 다만…」

「다만 융통성없고 순진하단 말이겠지.」

「……」

「누가 뭐래도 난 내 소신껏 살고 싶은 거야.」

한관장은 단호히 말했다.

「소신?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저와도 이혼을 해야 했고 이제껏 삭월세 체육관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같이 운동했던 동료들, 모두 큼직한 체육관 그것도 자기들 건물아니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안단말야. 그네들 처럼 부형회다, 이사회다, 후원회다. 뭐다 해서 둘러리 세우고 추켜주면 된다는 거. 그리고 시합에서는 선수들의 인간성 상실이 오든 말든 잔인하게 키워서 금메달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도… 그 뿐인가 승단 승품심사에 가능하면 많은 관원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그것이 꼭 정도

(正道)인가? 돈 몇푼 때문에 한문호의 양심을 팔란 말인가?)

참으로 한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목이 메이는듯 겨우겨우하는 불규칙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라기보다는 자신의 가슴을 향해 구토하고 있었다.

「그게 왜 양심을 파는 행위예요?」

「...전 양심을 팔라는 게 아니예요. 다만 어느 정도는 현실과 타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더, 더이상 날 괴롭히지 말아.」

한판장은 이윽고 아프다못해 시려오는 가슴을 진정하듯, 무겁게 말을 끊었다. 흡사 납덩어리가 침몰하는 그런 어둡고 무거운 어조였다.

「.....」

그녀는 한판장의 그 모습으로 부터 무슨 말이며 해야할지 잠시 방향각각을 잃고 있었다.

또 다시 두 사람의 사이에는 두터운 벽이 쌓아지며 서서히 적막처럼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다만 한판장의 체내 비슷한 숨소리와 그녀의 앙동그라진 호흡이 시나브로 부딪칠 뿐이었다. 얼마쯤 그런 시간이 흘렀다.

습관처럼 짜느렇게 식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좁전에 펼쳐 보이던 여권을 매만지며 조심스럽게 침묵의 벽을 향해 말문을 열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물론 이젠 제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목적이기도 해요. 저로서는 얼마나 망설이던 문제인 줄 몰라요. 타협이 안된다는 생각 이전에 제 자존심이 허락할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만은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선 생각에서 결단을 내리고 드리는 말씀이니 진실로 대답해 주세요.」

「... 말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제가 이민가서 초청한다면 오시겠어요? 물론 재회하자는 우회의 수단이거나 의미는 아니예요. 다만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로는 돈벌이 잘 되는 외국에서 체육관을 경영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그건 당신의 이상을 좀 더 펼칠 수 있고 아울러 국위선양도 할 수 있다는 게 제본의예요.

어때요?」

그녀답지않게 시선을 아래로 끌며 의사를 타진했다.

「외국? ... 허허. 한문호를 한국에서 못살게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었군.」

비양거리듯, 한판장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과 는 달리 쉽게 말해버렸다.

「한사람 더락니요?」

「하사범 말야.」

「하사범요?」

「그 친구 미국간 지 한 오년 되더니만 날 오라고 하는 거야. ... 어쨌건 한 문호는 한국에서 떠나지 않겠어.」

한판장의 어조는 분명히 단호했다.

「네에? !」

「내 조국에서 아니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풍습에 얽매어서 조용히 내 소신껏 살고 싶은게 내 최선의 길이며 행복이라고 믿으니까.」

「.....」

그녀는 다시 또 언어를 잃어 버린 채, 급작스럽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헤메는 감정에 묻히는 기분이었다.

얼마간 그런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녀는 조물락거리던 여권을 핸드백에 집어 넣었다.

「그만 돌아가겠어요.」

짧은 인사말을 사무적으로 던지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밀치고 나갔다.

그런 모습을 한판장은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분명 무슨 말인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은 고추서고 있었지만 입밖으로 도통 나오질 않았다. 하지만 가슴에는 울췌넌스러운 비가 서서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속을 그는 질척대며 헤메고 있었다. 그건 자책에 가까운 채찍임에 분명했으며 또한 무형의 터널속에 감혀헤메이다 치쳐 쓰러진 미아임에 틀림 없었다.

「짜강—」

그녀가 현관을 벗어나며 밀쳐버린 문 닫히는 소리에 한판장은 잠깐의 혼미한 감정에서 깨어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문소리로부터 그는 지독

한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녀간 지 수삼일이 지나도록 그는 그 달 느꼈던 고독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했다. 오히려 점점 밀도를 더해가는 농도 짙은 고독으로 깊숙히 빠져 들고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그는 것처럼 땀땀하도록 고수하던 이상과 소신이, 고독의 양극에 침해 당하여 서서히 풀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또한 풀기 잃은 한판장의 이계전의 사상들은 한판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게 하고 있었다.

자화상 한판장의 자화상.

자신이 생각해도 흠짓 놀랄 정도로 초라한 초상이었다.

칼라텔레비전에 밀려 광 속에 처박힌 덩치만 큰 19인치 텔레비 처럼 불꽃없는 물건 같았다. 아니 그보다는 문화재도 될 수 없는 구닥다리 유성기마냥 쓸모없는, 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폐품같이 여겨졌다.

자신을 조립하는 기계라든 재조립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울려 치밀었다.

어느새 한판장의 내부에서는 혼들리는 싸움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 하려는 완전한 환멸과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본래의 사상이 한때 엉켜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었다. 이 두개의 전혀 다른 매듭들이 부딪치는 소리에 한판장은 오한을 느끼며 부르르 떨고 있었다.

모든 걸 잊은 채 귀를 막고 싶었다. 결론없는 두개의 아우성은 한판장의 아픈 가슴을 비수로 가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녀가 출국하는 날이 되었다.

술렁이는 마음은 있었지만 배웅이라는 건 열두에도 없었던 한판장이 추켜대며 공항으로 향한 시각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불과 얼마전이었다.

가까스로 출국 직전의 그녀를 공항 대합실에서 만날 수가 있었다.

그가 험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한 그녀는 반갑다기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운 표정이 되어

「나오셨군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

그는 말없이 겸연쩍은 낯빛을 하여 멀쑥하게 조금 웃어 보였다.

「잘 생각해 봐요.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기회는 있으니까요.」

그녀는 한판장이 배웅나온 것을, 자기 자신의 신념을 꺾은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그녀의 미소는 확실히 자신감에 넘친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판장은 그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결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물론, 완전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하여 그제까지도 열병을 앓듯 심하게 방황하며 흔들리며 질척대며 자신의 감정속으로 깊숙히 빠져들어 뒹뒹대지 않았던가.

아직도 한판장의 내부에는 방황의 그림자가 초겨울의 햇살처럼 미릿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커피나 한잔 하죠.」

어느새 그녀는 자동판매기에서 나온 종이컵을 한판장 앞으로 툭쭈 건네주었다.

「마지막 커피가 아니길 바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커피였었죠? 이제 마지막도 커피로 장식하는군요.」

그녀는 화장이 있는 얼굴을 조금 웃어 보이며 커피잔을 비었다.

이토록 그녀는 분명할 줄도 알지만 철저한 계산 하에서 행동하고 있었다.

한판장은 사슴처럼 순진한 눈망울이 되어, 좀 있으면 결별하게 될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어느새 출구를 향해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도 그 대열속에 끼어위해 걸음을 서서히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도 안타까움인지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한판장은 순간, 머리가 무거워지며 무너져 내릴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출구를 향한 대열속에 완전히 끼어들었다.

잠시후.

트랩을 향해 켄겔음으로 걷는 그녀의 뒷 모습이 보였다.

아직도 쌀쌀한 겨울바람은 그녀의 검정색 코트깃을 나풀거리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걷고 있지만, 한관장은 마음 속에서 새차게 내리는 소나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안녕!)

한관장은 안녕이란 만 외에 아무말도 던질 수가 없었다. 다만 그 안녕이란 의미가 이치럼 인간의 감정을 끌어놓을 수 있듯이 절실한 줄은 몰랐다.

벌써 그녀는 비행기 트랩의 중간쯤을 오르고 있었다.

한관장의 시선은 분명 그녀가 후들거리며 트랩을 오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즈막에서 그녀는 우뚝 멈추더니 한관장을 향해 한 손을 높이 흔들며 보였다.

그 흔들고 있는 그녀의 손으로부터 그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있었다.

어느새 그녀의 몸은 비행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갔다. 흡사 자신이 이 결별의 순간에 한 동태기의 몽글한 심연 속으로 빠져들듯이.

한관장은 두 눈을 꼬옥 감았다.

감은 눈의 망막 속으로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의 화사한 그녀의 얼굴이 담박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은 아지랑이의 아롱땀과 같이 아물거리고 있었다.

이륙을 알리는 비행기의 프로펠라 소리와 그 바람에 일으키는 먼지가 마치 자신을 감싸고 있는 불투명한 결단의 의지처럼 안개발이었다.

비행기의 몸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고 있었다 점점 기체는 하늘 꼭두배기로 치솟았다.

순간, 한관장은 체념을 배우듯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바로 그거다.)

한관장은 증열거리며 멀어져가는 기체를, 아나 종알처럼 점점 적어져 보이는 비행기로부터 인식할 수 있었다.

저 하늘에 떠있는 검은 점은 나의 내부에서 흔들림을 주었던 씨앗이었다.

그 검은 점을 씨앗으로 받아들여 키울게 아니라, 방황의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끝낼 수 있는 종지부로 생각하자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눈을 치켜뜨고 하늘을 쳐다봤다. 완전히 그 점은 사라지고 회색빛의 차거운 공같이 한관장의 미래처럼 펼쳐져 있었다.

인간이란런 누가 가질 수 있는 미련의 감정은 쉽게 그의 발길을 돌리게 하지 않았다.

얼마간을 기체가 떠나간 하늘을 장승처럼 바라보고 서있던 한관장은 몸을 격으며 발길을 옮겼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승객들이 입국수속을 마치고 한관장 옆을 스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대열에 어색하게 끼어 공향대합실을 빠져나왔다.

질서정연하게 줄 서있던 공항 택시들이 막 빠져나온 승객들을 싣고 미끄러지고 있었다.

한관장의 마음도 그 경쾌한 택시들의 질주처럼 가벼워지고 있었다. 이내 그는 뺨으로 스치는 겨울의 시린 바람을 심호흡하여 택시를 향해 스적스적 걸어갔다.

<제 1부 과거의 장 끝>

※ 비오는 계절은 제 1부 과거의 장 제 2부 현재의 장 제 3부 미래의 장으로 구성했으나 작가의 사정에 의하여 제 1부 과거의 장으로 끝냈습니다.

제103회 고단자 심사 합격자명단

5단 27명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유상철	54. 7. 16	서울 도봉 미아04-8
김창복	46. 4. 29	충남 대덕 대덕 읍내리210-3
이계국	48.10.22	서울 서대문 홍제3동305
최정호	54. 9. 22	서울 용산한남759-7
박용서	53.12.11	서울 관악 봉천3 15-3
강대현	54. 2. 24	서울 관악 신림9동 241-112
이상신	52. 7. 14	인천 북구 심정동514-22
이희중	52. 4. 9	서울 강남 방배12-23
안동훈	54.12. 9	경기 수원 영화37-29
강의성	52. 8. 10	서울 성북 동승2가251
김대희	54.11.27	경북 청송 안덕 교와동251
박용태	54.10. 4	서울 강동 성내동 531-9
최봉호	53. 7. 28	서울 동대문 상봉2동85-46
민문이	54.10.28	서울 종로 동승동129-140
박치경	53. 5. 8	서울 성북 길음1동559-9
전영국	53. 5. 16	서울 은평 불광 2동445-415
김광석	49. 2. 17	경북 안동시 평화71-278
정재형	52.12.13	경기 수원 장안56
이명호	49. 6. 26	경기 화성 오산리3리256
안영고	51. 3. 26	경기 수원 화서 30-4
안성훈	50.12.30	경기 수원 배산로3가106-3
신상은	51. 9. 21	인천 북구 갈산73
김양규	54. 2. 7	경북 영천 복안 상동409
장종식	52. 1. 1	경남 밀양군 읍내1동1구391
장길태	52.12. 7	서울 강동 천호461-95
조명구	53.11. 9	대전 중구 피정45-13
곽순규	48. 4. 19	대전 중구 피정71-12

6단 21명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김윤식	49. 2. 19	서울 강남 도곡 연동A.P.T50
유종범	47. 8. 5	경기 의정부 4동178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조규천	49. 7. 15	서울 성북 종암102-107
김의수	47. 7. 27	충북 충주시 역전717-2
서정관	46.10.10	경기 부천 역곡197-1
서병운	48. 3. 5	충북 충주시 교현247
박상선	49. 2. 20	경기 수원 화서107-13
김동원	48.11.19	충북 충주시 지현동619-6
이인경	47.10.17	서울 강동구 천호84-10
최유식	48. 9. 12	서울 강서 내발산593
김명철	49. 9. 10	서울 도봉 미아 6동637-117
김병무	46. 8. 13	서울 동대문 휘경동167-74
박창우	45.10.23	서울 중구 황학2278
안희균	49. 2. 23	서울 성동 금호3가1263
김군수	42.11.26	서울 강동 잠실1주공A.P.T22
임창규	42. 5. 20	서울 은평 갈현326-42
최영욱	39.11.11	서울 관악 감현1동군인A.P.T
박세환	46. 3. 3	경기 시흥 외왕삼리192-244
정판진	46. 8. 15	경기 부천 십곡1 101 14-3
임치락	26. 2. 25	대구 수성 병어 135-13
전현후	45. 3. 15	경남 창원 문화 188-3

7단 8명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김병운	35.10.20	서울 관악구 신림1413-13
박치갑	37. 8. 1	서울 구로 가리봉2동25-130
송상근	41.10.26	서울김남업구정동현대A.P.T63
엄주찬	39. 7. 31	서울 성동 마장동797-33
최광복	40. 8. 16	대전 중구 오정동223-102
정경덕	40. 4. 21	서울 강남 대치동287-96
이정웅	41. 8. 4	서울 관악 봉천 9 937-1
이규석	42. 1. 17	서울 중구 필동 3가10-10

32기 지도자 교육 합격자 명단

111명의 태권도사범이 새로 배출되었다.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열흘간의 지도자 교육을 거쳐 실기 및 필기시험의 엄격한 실력평가를 통과 태권도 지도자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들은 이번 교육이 매우 유익하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기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에 없이 강화된 통제를 하였으며 엄정한 출석확인으로 교육분위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이번 32기 수강자 중에 32명이나 사범자격증을 받지 못했는데 대부분 출석점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 32기 지도자교육에서 1위는 총 230점 만점에 197점을 획득한 27번 정재호사범이 차지했다. 특히 정사범은 학과시험에서 97점을 따내어 수석의 영광을 누렸다. 또 2위는 196.5점을 기록한 최진필사범으로 1위와는 0.5라는 간발의 차이를 뒀으며 이는 학과성적 96.5라는 뛰어난 성적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어 3위는 190점을 「마크」한 동지한사범이 차지했다. 이제 지도자교육은 최를 거듭함에 따라 그 질적 수준과 수강생들의 열의가 다 함께 향상되고 있으며 태권도를 올바르게 보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의 좋은 기회로 느껴진다. 다만 교육시설과 지도강사 확보등의 제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추진되는 태권도 아카데미의 설립으로 교육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다음은 이번 32기 지도자교육의 합격자 명단이다. 아무쪼록 새로 탄생한 사범들이 태권도 발전의 기수가 되기를 기원한다.

32기 사범명단

성명	생년월일	학단(품)	현	주	소
이용철	47. 2. 28	5	경기	동두천	보산436
유주환	57. 11. 29	4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591
안진기	57. 7. 13	4	경기	수원	화서250-5
김영곤	46. 9. 6	4	서울	성북	돈암1동51-8
임윤택	53. 1. 7	4	서울	관악	사당4동224-13
김상우	55. 11. 22	4	인천	동구	송림224

성명	생년월일	학단(품)	현	주	소
서석우	56. 3. 23	4	영등포구	양평동3가77-2호	
이용복	57. 9. 1	4	서울	은평	진관외동320-21
이규중	58. 4. 22	4	서울	관악	봉천9동937-1
김호섭	58. 1. 26	4	서울	종로구	무학동45-205
최홍기	57. 1. 5	4	경북	안동시	태화동251
김창진	45. 3. 3	6	서울	도봉구	미아2동776-20
김홍수	57. 3. 13	4	서울	구로구	독산동149-39
안웅남	52. 4. 12	4	인천시	남구	승의동406
권영안	50. 1. 9	5	경기	수원시	파장동246-2
배성민	58. 7. 2	4	서울	관악구	봉천7동54-12
서재양	48. 12. 22	6	강서구	화곡본동	978-15
김낙형	57. 3. 28	4	서울	강동구	잠실동34-25
이노준	58. 12. 25	4	서울	동대문구	면목5동164-25
이상신	52. 7. 14	4	인천시	북구	십정동514-22
박평열	53. 8. 13	4	서울	구로구	개봉동336번지
이인열	57. 6. 23	4	서울	강동구	문춘동87-7
강훈기	57. 8. 4	2	서울	성동구	성수2가16-8
김영식	56. 3. 4	4	서울	도봉구	화문동503-11호
정재호	40. 9. 16	7	서울	강남구	반포동239-1
임은기	54. 8. 4	4	전북	김제군	성덕면덕포리596
신우균	56. 2. 2	4	종로구	승인1동65-18	
조규봉	48. 1. 23	4	관악구	신림본동	10번지36호
김선정	57. 9. 14	4	서울	관악구	봉천3동산89번지
조철요	50. 5. 4	6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362-20
김보영	56. 1. 11	4	서울	성북구	돈암동606-619
조성배	56. 9. 29	4	서울	도봉구	미아2동791-813
김창학	57. 2. 10	4	서울	강서구	화곡3동205-14
김갑열	56. 9. 11	4	전북	군산시	소룡동1047-3
선우진	57. 2. 26	4	서울	도봉구	미아3동223-74
박배진	55. 7. 20	4	서울	성동구	홍익동573-1
김연식	56. 10. 27	4	서울	관악구	신림2동97-1
허영희	53. 1. 28	4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103번지
임종열	55. 1. 24	4	서울	성동구	행당2동317-754
윤경만	57. 4. 24	4	경기	파주군	광탄면반죽2리212
장원호	47. 3. 10	4	서울	서대문구	북악아현2동176-34
오윤탁	47. 10. 12	6	서울	종로구	구기동83-2
박노대	55. 2. 6	4	서울	은평구	응암1동197-1
김종문	58. 8. 26	4	서울	동대문구	당우2동465-3
윤영복	58. 8. 8	4	서울	도봉구	우이동23-46
박평택	54. 2. 26	5	서울	마포구	공덕동115-22호
서경무	49. 2. 22	4	서울	구로구	독산동 1072-5

성명	생년월일	현(단)	주소
김종명	58. 4. 2	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6-16
김선국	57. 5. 5	4	전남 무안군해례면 양월리 693
안국보	53. 10. 9	4	경기 동두천 생원2동821번지
오영종	57. 4. 12	4	서울 동작구 용두동20-17
홍대섭	58. 2. 5	4	서울 성동구 마장동469-3
이상득	41. 4. 29	4	충남 예산군대흥면 상중리 267
전봉안	56. 12. 3	4	서울구로구개봉1동7번지22호
김교천	52. 1. 8	4	경기 송탄시 중앙동318-2
이동환	57. 5. 30	4	경기도봉곡미아동460번지4호
조승익	59. 8. 19	4	경기고양군지도면 화경1리284
전일문	54. 2. 18	4	서울 관악구 봉천4동삼우 APT 3동302
김태규	56. 11. 26	4	서울 마포구 염리동 14번지
이상순	54. 3. 10	4	서울 관악구 봉천동 302번지
김동현	48. 11. 19	4	충북 충주시 지현동 619-2
석기환	48. 11. 16	5	경기가평군의서면청평리산13
원용목	49. 10. 6	5	강원 원주시 봉산1동1079-4
정기성	36. 12. 18	6	서울성북구종암동산2번지 종암APT
이성섭	50. 2. 17	4	서울 성북구 정동3동685-111
임광열	58. 7. 13	4	서울 강서구 목2동53-6번지
김옥남	42. 8. 3	4	서울 은평구 불광2동530-21
반강환	49. 3. 29	5	광주시 동구 지현동526-7
정성두	57. 4. 4	4	광주시 북구 중흥2동275-35
우성민	57. 10. 6	4	여주시 봉산동 250-4
전종열	55. 4. 27	4	전남여천화양면이목리530-2
박영근	50. 9. 5	4	광주시 화정동 777번지31호
이유용	55. 10. 25	4	전남 보성군 보성읍동문동62
차홍열	50. 9. 18	4	경기 수원시 고동동221번지5
황병기	55. 5. 16	4	경기강화송해면솔정리296-2
조선태	58. 3. 4	4	경기 화성군 마도면 슬항2리
박양춘	55. 12. 18	4	경기 성남시 단대2동488-23
최진필	53. 4. 15	5	경기 성남시 수진1동26-21
동지한	57. 11. 13	4	강서구 화곡동 332번지23

성명	생년월일	현(단)	주소
양명목	57. 2. 25	4	충남 보령군 대천읍동대리68
조명구	53. 11. 9	4	대전 중구 피정동 45-13
이형진	55. 3. 4	4	경북금릉군아포면대신동1346
장서희	56. 3. 13	4	인천시중구인현동1번지2-5반
황용수	56. 7. 7	4	인천시 동구 만석동28번지
이용환	55. 1. 13	4	인천시 남구 용현2동568
이순란	49. 5. 17	4	전북 옥구군 옥봉리67
오호선	52. 2. 19	4	전주시 인후동1가575번지
김진양	56. 10. 24	4	전북 전주시 고사동1가395-3
김태수	56. 6. 7	4	전북 김제군 금산면 용호리 5구123
고창원	49. 7. 21	4	전북고창고창읍읍내리572-4
정희철	55. 10. 13	4	경남 진주시 칠암동 418-4
김재춘	55. 5. 29	4	경남 울산시 예도동 344번지
강우석	52. 11. 24	4	경남 창원시 도전동338-7
김기태	56. 9. 2	4	부산시 남구 망미동산44-9
백남성	48. 3. 10	4	경북 안동군 임직면운산동82
천병태	58. 6. 14	4	경북 영일군 의창읍 학성동 139번지
이철호	53. 9. 1	4	제주시 전입동1106
강민호	55. 5. 15	4	제주도 서귀포시 법환동1447
허종순	57. 8. 7	4	제주시 삼도1동648-5
이석호	57. 3. 23	4	서울 성동구 행당1동96-36
오두석	38. 12. 26	5	인천시 남구 주안 1520-8
차서현	57. 1. 5	4	인천시 남구 주안5동20번지
김무인	56. 1. 1	4	인천시 남구 용현3동106번지
장치홍	55. 12. 15	4	경기포천군이동면장암리4111
이만희	56. 3. 15	4	강원[원성군 소초면판리산39
김석태	42. 12. 15	5	서울 도봉구 하계동67-26
소병모	53. 1. 22	5	서울 강남구 동작동반포APT
이현교	49. 12. 8	4	경기 용인군용인읍역북318-5
김용대	47. 3. 1	4	동작구 대방동391-35호
박만귀	35. 12. 12	5	서울서대문 남가좌2동224-66
황근류	52. 4. 8	4	진해시 자은동 658-9호

〈표지설명〉

3월 1일 대천앞바다는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의 날과 다름없이 파란것 같다.

틀리는 것만 같다. 독립선언의 합성이.....

그 힘에 두들실 며 올라 이제 힘을 바탕으로 한 민족통일애의 의지를 차 올리자.

백련인이 앞장서자.

125분의 1초로 적은 뛰여 열차기, 그래도 더 빠른 것만 같다.

—갈려 켜—

경기및 심판 규정 일부 개정 !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위원회 제공

◇.....지난 2월 23일 「에콰돌」에서 있었던 제 5 차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위원회의에서.....◇
 ◇.....경기 「룰」의 일부 개정이 논의,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전문.....◇
 ◇.....위원회에서도 경기및 심판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보완, 확정했다. 한편 지난 3월.....◇
 ◇.....14, 15 양일에 걸쳐 심판보수교육을 통하여 이번 보완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
 ◇.....했었다. 전문위원회(의장 : 박해만)에서는 지난 해 5천여명의 등록선수가 10여.....◇
 ◇.....차례의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 참여했으며 일선 도장과 학교에서 폭넓게 출.....◇
 ◇.....전함에 따라 경기및 심판규정의 상식화를 추진하기 위해 태권도지에 이를 수록.....◇
 ◇.....하기로 했다. 다음은 확정된 경기및 심판분과위원회규정이다. 다만, 심판의 싸.....◇
 ◇.....인법은 생략하였다.◇

경기분과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협회와 시, 도지부 및 각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경기대회를 통일된 규칙아래 원활하고도 적정하게 운영하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 본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경기를 수입, 집행하며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추첨
2. 대진표 작성
3. 선수계제
4. 경기중 선수관리
5. 경기진행
6. 성적 발표
7. 본회가 승인한 각종 경기대회 지도 및 감독

제 3 조 (구분) 본 위원회는 경기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재위원 약간인
2. 진행위원 약간인
3. 기록위원 약간인
4. 계시위원 약간인

제 4 조 (임원의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재위원
대회시 규정에 의하여 선수들의 공정한 제재를 담

당한다.

2. 진행위원

대회시 경기에 입할 선수를 호출하고 코트를 배정하며 경기의 진행을 담당한다.

3. 기록위원

대회시 경기의 판정 K.O 및 반칙, 기권의 승패 등을 정확히 기록하며 제반 경기에 관한 기록을 담당한다.

4. 계시위원

경기중 회전간에 유지시간 및 휴식 시간을 관리하며, 경기의 시종을 알리고, 주심이 카운트시엔 초간을 알리며, 경기시간 정지 요청시엔 중단된 시간만큼 경기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5. 의무요원

경기중 부상선수에 대하여 응급치료를 담당하며 부상선수에 대한 경기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제 5 조 (코치의 자격과 의무)

1. 코치는 태권도의 사범자격증 소지자로서 본회에 코치등록을 필한다.
2. 코치는 소속단체장으로부터 코치의 추천을 받고 본회에서 인정한다.
3. 코치는 경기중 지정된 코치석에 위치하여야 하며 자기측 선수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방 선수를 불리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코치는 경기도중 자기측 선수가 곤경에 빠졌다고

인정될시엔 수전을 경기장에 던져 기권을 알려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다. 다만, 정당한 공격에 의하여 다운되어 카운트중일때는 그 기권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5. 코치는 경기 종료후 판정의 의의가 있을때엔 대회본부에 서면으로 소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일체의 어떠한 항의도 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선수의 자격과 의무)

1. 선수의 자격

경기에 참가코자 하는 선수는 당해년도 선수등록을 필한자로 심신의 결격이 없는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선수등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가) 국민학교부

국기원에서 율러한 유품자로서 국민학교 5,6학년에 재학중인자.

나) 중학교부

국기원에서 율러한 유품, 한 자로서 중학교에 재학중인자.

다) 고등학교부

국기원에서 율러한 유단품자로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라) 대학부

국기원에서 율러한 유단자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자.

마) 일반부

국기원에서 율러한 유단자로서 만 18세이상인자

바) 외국인부

협회에 등록을 필한 유급자 및 유단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 여자부

협회에 등록을 필한 유급자 및 유(품)단자로서 여성

2. 선수의 의무

가) 선수는 경기 규정을 알고 지켜야 한다.

나) 선수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라도 심판 판정에 불복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경기중 상대방 선수의 파실로 인하여 입은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책임을 상대방 또는 대회본부에. 묻지 못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행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실을 범한 선수측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경기에 입하는 선수는 흥분제복용은 금지된다

다) 흥분제를 복용한 사실이 판명될시는 경기자는 실격된다.

제 7 조 (코치의 복장)

1. 코치는 팀에서 정한 단복 또는 튜리닝을 입어야 한다.
2. 코치는 본회에서 지급한 코치 표식을 왼쪽 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8 조 (선수의 복장)

1. 경기에 입하는 선수는 도복위에 몸통호구, 남살 보호대 및 팔다리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규격은 부록에 따른다.
2. 남살 보호대는 도복속에 착용하고 팔다리 보호대는 도복속 바깥 팔목과 다리앞 정경이에 부착해야 한다.
3. 제 1 항의 도복, 호구 및 보호용구 이외의 물건을 지니서는 안된다. ("에" 안경, 반지, 시계등) 다만, 주심의 허가를 얻어 신체부위에 봉대를 감을 수 있다.

제 9 조 (경기장)

경기장은 바닥이 목재 또는 에타폼(ETHA FOAM) 판 재료로 되어야 한다. 그 바닥면이 수평하여야 하고 크기는 가로 12m×12m의 정방형이어야 한다.

이안에 모든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경기장내 중앙부에 8m×8m 크기의 정방형틀 폭 7.5cm(백색)로 표시한 것이 경계선이며 경계선내의 지역이 경기장소이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경기장의 높이를 원바닥면과 같이 할 수 있다.

1. 심판원, 선수 및 코치의 위치표시

가) 주심위치 표시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석을 향해 1.5m 후방에 직경 15cm 크기에 흑색원을 그려 표시한다

나) 부심위치 표시

경계선 사방 각코너에서 경기장소 중심점을 향해 50cm 떨어진곳에 직경 15cm 크기의 원으로 표시하고 그 원위에 1, 2, 3, 4의 수를 그려 표시한다. 다만, 배심석에서 경기장소를 향해 좌측 앞코너를 1, 좌측뒤 코너를 2, 우측 뒤코너를 3, 우측 앞코너를 4로 하며 위의 각 위치표시위에 개인 의자를 준비한다.

다) 배심 위치

주심위치 표시로부터 앞면에 그은 경계선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곳에 책상과 의자를 준비한다.

라) 선수위치 표시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배심석을 향해 좌우로 각 1m 떨어진 곳에 직경 15cm 크기에 청, 홍

색의 원을 청, 홍 선수위치 표시로 한다.

나) 코치위치 표시

청 및 홍선수 위치에 가까운 경계선 중심점으로부터 각 3m이상 떨어진곳에 배심석에서 경기장소를 향해 좌측이 청코치, 우측이 홍코치 위치이며 그자리에 개인 의자를 준비한다.

제10조 (경기의 구분)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단일 및 복합방식)으로 구분한다.

1. 개인전

개인전의 경기 방식은 각 체급별로 실시한다.

2. 단체전

가) 단일방식

1) 단체전 단일 경기 방식은 참가선수의 체급의 제한이 없으며 제출된 명단에 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순으로 팀 대항전으로 하며, 매 경기시각 20분전에 선수 명단을 제출하며 그 순위에 따라 경기를 한다.

2) 참가 선수의 수는 정선수 5명, 후보선수 5명으로 하며 10명의 선수중에서 매 경기시마다 선수 교체를 할수 있다. 다만, 5명이상 참가하여야 팀으로 인정한다.

3) 경기가 양팀 동률일때에는 양팀 대표를 선출하여 3분 3회 연장전을 거행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나) 복합 방식

1) 단체전 복합경기 방식은 각 체급별로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를 한다.

2) 참가팀 선수의 수는 각 체급별 10명으로 하며 최소한 6명이상이 출전하여야 팀으로 인정한다.

3) 경기는 참가팀의 각 체급별 개인이 획득한 메달계 또는 등위에 의한 점수제 방식에 의하여 각팀의 종합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메달계와 점수제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경기방식)

1. 토나멘트전

가) 토나멘트전은 해당 체급에서 4인이상 출전치 않으면 그 체급은 경기를 인정치 않는다.

나) 참가 선수의 수가 4명 이상일때는 2라전에 진출한 선수의 수가 4, 8, 16, 32, 64명이 되도록 대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대진 편성표는 대진 상대 추첨 번호수와 합한 수가 3, 5, 9, 17, 33, 65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리그전

가) 리그전은 해당 체급에서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나) 리그전은 야패 도표의 방식에 의한다.

(“에” 리그전.도표)

이름	이름	1	2	3
1		×	○	○
2		○	×	○
3		○	○	×

다) 경기도중 사고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수 없는 선수의 성적은 사고당시까지의 일은 성적으로 결정한다.

제12조 (체급과 중량) 각부별 체급과 중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여자부와 외국인부는 별도로 할수있다.

체급	부별	고등학교 및 일반부	중학교부	국민학교 부	여자부
핀	급	48키로 까지	37키로 까지	26키로 까지	40키로 까지
플라이	급	48초과 52까지	37초과 40까지	26초과 28까지	40초과 44까지
밴텀	급	52 " 56 "	40 " 43 "	28 " 30 "	44 " 48 "
페더	급	56 " 60 "	43 " 46 "	30 " 32 "	48 " 52 "
라이트	급	60 " 64 "	46 " 49 "	32 " 34 "	52 " 57 "
웰터	급	64 " 68 "	49 " 52 "	34 " 37 "	57 " 62 "
라이트미들	급	68 " 73 "	—	—	—
미들	급	73 " 78 "	52 " 56 "	37 " 41 "	62 " 67 "
라이트헤비	급	78 " 84 "	—	—	—
헤비	급	84키로 초과	56키로 초과	41키로 초과	67키로 초과

제13조 (대진시간)

- 고등, 대학 및 일반부는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 중등, 국민학교 및 여자부는 2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한다.
- 본회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필요에 따라 1, 2회의 경기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대표자 회의)

- 대표자회의는 경기 개시 3일 이전에 예정된 장소시간에 본회 사무국에서 소집하며, 참가범위는 각팀의 대표자급으로 한다.
- 대표자회의 및 경기에 관한 문공은 1개월전에 발송해야 한다.
- 대표자회의 의장은 경기분과위원장 또는 그가 위임한자로 하며,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

의 결정한다.

제15조 (추첨)

1. 대진표 작성을 위한 추첨은 대표자회의의 각 팀 대표자급에서 한다.
2. 추첨의 순위는 경량급에서 중량급 순으로 참가팀 명의 가나다(alphabet)순에 의한다.
3. 추첨에 불참한 참가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16조 (계체량)

1. 계체량은 참가팀의 대표자 임의하에 지정된 장소, 시간에 계체위원회에 의하여 실시되며, 계체기는 정부 검정을 받은 공인磅 그대로 한다.
2. 계체량은 경기 시작 2시간전부터 시작하여 경기 시작 10분전까지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시간을 신축할 수 있다.
3. 계체의 순서는 경량급에서 중량급 순으로 실시한다.
4. 모든 선수는 경기가 있는 날마다 계체량을 받아야 한다.
5. 계체량은 나체로 하되 2회에 한한다.
6. 계체위원은 선수에 계체가 완료된 즉시 합격 여부를 구두로 해당선수에게 선언한다.

제17조 (경기의 진행)

1. 선수의 호출은 예정된 경기시간 4분전으로부터 1분 간격으로 3회를 호출하며, 3회 호출후 1분이 경과하여도 출전지 않은 선수는 출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을한다.
2. 경기는 매회전마다 주심의 "시작" 선언으로 시작되고 계시원의 경기시간 종료 신호에 의해 주심의 "그만"선언으로 종료된다.
3. 경기시작시 선수는 지정된 청, 홍 선수 위치 표시에서 배심석을 향하여 선다.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배심석을 향해 입례한다.
주심의 "좌우향우"의 구령에 마주보고 선후 "경례" 구령에 상호 입례한다.
4. 주심은 먼저 청선수 그리고 홍선수 순으로 복장 점검을 한후 "준비" "회전" "시작" 구령으로 경기를 시작한다.
5.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마주보고 선후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상호 입례한다.
주심의 "좌우향우"구령에 배심석을 향해 선후 "경례" 구령에 입례한다.
6. 주심은 채점표를 부심으로부터 받아 배심에게

전달한 다음 배심으로부터 승패 판정의 지시를 받은 후 청, 홍 선수 중간지점에서 배심석을 향해 선후 해당 선수의 팔을 들어 승자 선언을 한다.

7. 단체인(단일경기)에 있어서 양팀선수는 제출한 선봉, 진위, 중견, 후위, 주장순으로 배심석을 향해 종대로 선후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배심석을 향하여 입례한다.
주심의 "좌우향우"구령에 상호 마주보고 선후 "경례"구령의 입례한다.
8. 다음 경기장소 밖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전순서를 기다린후 순서에 따라 대전하며 선수는 개인전대와 같은 행사를 거쳐 경기를 진행한다.
9. 단체인 마지막 선수의 경기 종료후 양팀 선수는 경기장소에 처음 시작할때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선후, 주심의 "차렷" "경례" 구령에 입례를 한다.
주심의 "좌우향우" 구령에 배심석을 향하여 선후 "경례" 구령에 배심석을 향해 입례한다.
10. 주심은 배심의 판정 지시에 따라 승패를 선봉의 팔을 들어 선언을 한다.

제18조 (경기의 식전행사)

1. 대회본부는 다음과 같이 개최식, 폐회식 및 시상식을 거행한다.

가) 개최식

- 1) 선수입장
- 2) 개최선언
- 3) 국민의례
- 4) 개회사
- 5) 축사
- 6) 선수대표 선서
- 7) 개최식 종료선언

나) 폐회식 및 시상식

- 1) 선수 입장
- 2) 성적발표
- 3) 시상
- 4) 폐회사
- 5) 폐회선언
- 6) 선수퇴장

2. 입상한 선수가 시상식에 불참시는 상장 및 부상 수여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한자는 별도로 한다.
3. 입상된 선수는 규정된 배전도복을 착용하고 상을 받아야 한다.
4. 입상자 명단과 기록을 사무국에 이첩 보관케한다

제19조 (부칙)

1. 대회기간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상자를 색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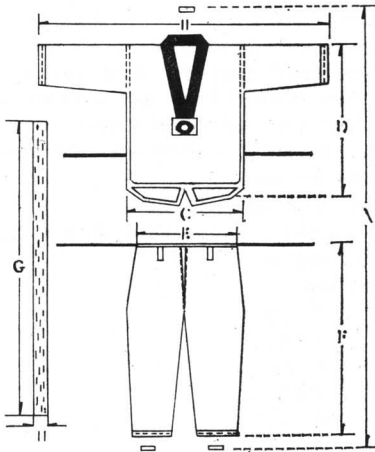
여 이에 대한 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 대회기간중 제기된 소청에 대하여는 즉시 소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며, 판정에 오판이 판명되었을 시엔 즉각 이를 시정시킨다.
3. 본회 소청심의위원회 세칙은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준한다.

〈부 록〉

세계태권도연맹(WTF)경기복장 및 안전보호구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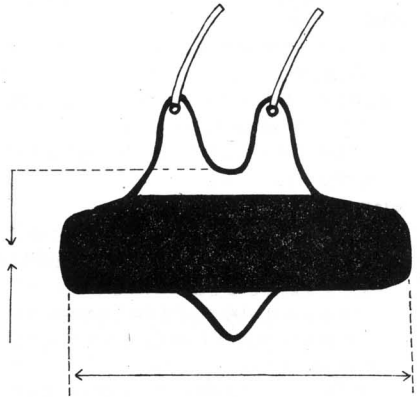
1. 태권도복(Uniform)



- 1) 도복의 색상은 상하 백색, 깃은 검정, 띠는 흑색
- 2) 상의 목부분이 "V"자 넥(Neck)로 되어 있고 전면 중앙 하단에는 "A"자로 타져 있으며, 양측은 사각을 이르고 있고 양측 겨드랑 밑부터 아래로 타져 있어 양측에서 접쳐 여며 입는다.
- 3) 깃의 폭은 4cm이며, 길이는 명치아래 3cm지점
- 4) 띠의 폭은 4.5cm이며, 2번 허리를 감아서 두 끝이 25cm~30cm 내려오게 한다.
- 5) 바지의 길이는 복숭아뼈까지이며, 하의 폭은 허리의 반을 넘지 못한다.
- 6) 소매의 둘레는 겨드랑 둘레의 반을 넘지 못한다.
- 7) 소매기장은 바깥 손목들기뼈까지 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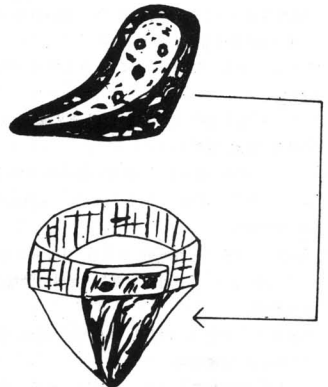
2. 몸통호구(Trunk Protector)

- 1) 조끼의 양어깨를 잘라 펼쳐 놓은 모양으로 착용 방법은 조끼를 반대로 입듯이 도복위에 착용하면



몸통 전체의 3/4면 이상을 에워싸게 되어 있고 뒷 등 노출된 부분에서 X로 접속하며, 흰색비닐 바탕에 몸통 부위에 청, 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 2) 보호구는 겨드랑 밑부터 끝반위 5cm 이상 덮어야 한다.
- 3) 길이는 목 밑에서 남심 끝부분까지
- 4) 호구속에 넣은 방력판재는 강한 충격공격을 받았을 시, 그 방력판이 지경이 20cm 넘는 원형성할 수 있는 강도가 되어야 된다.
- 5) 중량 1kg 이내
3. 남심보호구(Groin Guard)
- 1) 빠나나를 굵은 곡선을 따라 쪼개어 만든 "7"자 바가지를 살보데 앞 주머니에 넣어 도복속에 착용



하지만, 혹은 삼각팬티의 안에 주머니를 떠었다.
붙었다하여 도복속에 착용.

- 2) 바가지 가장자리 보호 컷은 자재는 질경 1cm의
원 혹은 타원형의 고무발로 스펀지로 강도가 17°
이상
 - 3) 바가지 재료는 두께 2.5m/m 이상의 나이론 혹은
포리카바(강도 350kg이상)로 뒴.
 - 4) 남심을 편안히 뒴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길울 것
4. 팔다리 보호대(Forearm Shin Guard)
- 1) 경기시 바깥팔과 앞다리정령이 혹은 앞 정령이끼
리 부딪혔을때 뼈가 상함을 방지할 수 있는 스펀
지컷은으로 수개의 공기 구멍과 수개의 돌기를 갖
고 있다.
 - 2) 두께 10m/m이상 강도 15°이상 E.V.A. 스펀지.
 - 3) 고무밴드가 부착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 4) 돌기와 공기구멍이 있어 수평, 수직, 원주 방향
으로 통풍을 시킬 수 있어야 되며, 피부와의 접촉
면을 적게하여 마찰을 적게하므로 피부가 보호되
어야 한다.

심판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 (목 적) 심판의 엄정증립과 공명 정대한 관
정을 기하며 심판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 업) 본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심판원의 판리, 감독 및 고가표 작성
2.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한 모든 경기대회의
심판원 배정 및 파견
3. 각급 심판원 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
4. 국제심판요원간선
5. 각종 심판강습회 실시

제3조 (구분 및 자격)

1. 심판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 심판원 : 배심을 담당한다.
나) 2급 심판원 : 주심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배심을 담당할
수 있다.
다) 3급 심판원 : 부심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주심을 담당할
수 있다.
2. 심판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1급 심판원은 국가원에서 윤택한 7단 이상자
로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후 전국 규모 대회에

서 20회이상 배심 및 주, 부심으로 참가한 자
또는 코치로 40회이상 참가한자.

나) 2급 심판원은 국가원에서 윤택한 6단이상자로
서 3급 자격증을 소지한후 전국 규모대회에서
15회 이상 주, 부심으로 참가한자 또는 코치로
30회 이상 참가한 자.

다) 3급 심판원은 국가원에서 윤택한 4단이상자로
서 사범자격증을 소지한후 3급 심판강습회를 수
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된 자. 다만, 심판자격
시험에 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심판원의 교육 및 자격시험)

1. 심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각급 심판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2. 심판원의 보충이 필요할 시엔 심판강습회를 실시
하고 각급 자격 시험을 실시한다.

제5조 (심판원의 구성 및 배정)

1. 심판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배심 1명
주심 1명
부심 4명(다만 경우에 따라 2명)

2. 심판원의 배정은 다음과 같다.

가) 배심원은 위촉된 자 중에서 순번을 정하여 배
정한다.

나) 주, 부심은 위촉된자 중에서 5명(또는 3명)을
1개조로 편성하며, 주, 부심 교대는 경기장 모
서리에 표시된 순번대로 교대한다. 다만, 부심
이 2명일 때엔 1,3번에 위치한다.

3. 심판원으로 위촉된자는 그 대회에 출전팀 임원이
될수 없다.

제6조 (심판원의 임무)

1. 주심

가) 주심은 경기의 시작과 종료, 갈려와 계속, 승
자의 선언, 감점, 퇴장, 득점 무효표시 및 계시
정지등의 경기 운영의 주도권을 가진다.

나) 경기종료직후 부심의 채점표와 본인의 채점표
를 배심원에게 제출한다.

다) 배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승패 및 득, 감점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때 자기의 의견을 진술
한다.

2. 부 심

가) 부심은 대전 선수가 득점하는 즉시 감점 및
경고는 주심이 선언하는 즉시 채점표에 기재한다

나) 경기 종료 직후 채점표를 주심에게 수고한다.

다) 배심 또는 주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득점,
감점 및 경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는 자기

의 소견을 진술한다.

3. 배심

가) 배심은 경기전반에 걸쳐 감독하며, 특히 주심의 감점, 경고 선언을 확인하는 한편 주심 및 부심의 채점표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종다수로 승자를 결정한다.

나) 주심 또는 부심이 오판을 하였다고 확인되면 그 오판에 대한 책임을 심판위원회 또는 대회본 부에게 징계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승자판정의 종류)

승자판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실격승
2. 기권승
3. K.O승
4. R.S.C승
5. 우세승
6. 경기 물수로 인한 승

제8조 (특 점) 주먹 또는 발기술로 다음의 공격부위를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공격 하였을 때 1점을 득한다.

1. 공격부위

발 기술 : 얼굴, 몸통부위

주먹기술 : 몸통부위

2. 득점 부위(반칙부위 제외)가 아니더라도 주먹이나 발의 강한 공격으로 배꼽이상을 맞아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1점을 득한다.

3. 주먹 또는 발공격을 가한 직후 고의로 넘어지거나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공격은 이를 유효 공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용어해설 : (제8조에 나온 용어 해설은 아래와 같다)

1. 주먹기술 : 바른 주먹(손가락을 말아 쥐어서 인지와 중지외 앞부분)으로 단일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2. 몸통부위 : 젖꼭지로부터 아랫배위의 전면 부분을 말하며 몸통의 등부위를 뺀 곳을 말한다.
3. 얼굴부위 : 얼굴 높이는 이마부터 턱 밑에 있는 목 쇄골 위까지이며, 양귀를 중심으로 한 얼굴 전면을 말한다.
4. 발 기술 : 복숭아뼈 밑 발부분의 어느 부위라도 사용하여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5. 정확한 공격 : 발과 손으로 인체의 주어진 공격 부위에 태권도의 기본기에 준한 바른 자세로 공격하였을 경우 상대가 움츠러들고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격.

제9조 (경 고) 다음 사항을 선수가 범하였을 시엔 경고를 선언한다. 다만, 경고는 전 3회전을 통산하여 경고 1회를 0.5점 감점하고, 감점 3점을 받은 자는 실격으로 간주하여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을 한다. 경고에 대한 싸인은 본규정 부록에 기술한다.

1. 상대를 잡는 행위
2.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3. 경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4. 무릎으로 공격하는 행위
5. 잡아 넘기는 행위
6. 손 또는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행위
7. 엄살을 부리는 행위
8. 경계선 주위를 맴도는 행위
9. 고의로 넘어지는 행위.
10.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행위
11. 남심을 공격하는 행위
12. 어깨 몸 또는 손으로 미는 행위

제10조 (감 점) 선수가 다음의 행위를 범하였을 시 1점 감점을 선언한다. 다만, 감점은 전 3회전을 통산하며 3점감점을 받은 차는 실격으로 하고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을 한다.

감점에 대한 싸인은 본규정 부록에 기술한다.

1.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2. 얼굴을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공격하여 상처를 입히게 하는 행위
3. 머리로 박치기 하는 행위
4. 주심의 “갈려” 선언후 고의로 공격하는 행위
5. 선수 또는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6. 선수가 경기장소(8m×8m)를 넘어서 경기장(12m×12m) 밖으로 나갔을 때

제11조 (“죽다운”과 “죽아웃”의 정의)

1. “죽다운”이라 함은 어느 일방의 선수가 상대방 선수의 공격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1에 해당 하였을 때를 말한다.
가) 발 이외에 신체 부분이 경기장에 닿고 있을 때
나) 공격의사가 없이 주저앉고 있거나 비틀거리고 서 있을 때
2. “죽아웃”(K.O)이라 함은
“죽다운”된후 주심이 카운트 “열”을 할때까지 경기 계속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죽다운” 발생후의 조치)

1. 주심은 어느 일방의 선수가 “죽다운”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갈려” 선언으로 공격 선수의 활동을 저지시키며 공격선수가 다운된 선수로 부터 먼거리에 위치하도록 하는 한편

나) 위를 확인하는 즉시 다운된 선수 절에서 큰소리로 “하나”부터 “열”을 1초 간격으로 외치는 한편 경과된 초시간을 수 신호로 알려야 한다.

다) 주심이 “열”을 카운트할때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엔 그 선수를 K.O 패로 인정,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 선언을 한다.

라) 주심이 “여덟”을 카운트할때까지 일어나서 선수위치 표시에 돌아와 대전의사를 표시하는 선수에 대하여는 그의 회복여부를 확인한후 “계속” 선언으로 경기를 속행시킨다.

마) 주심이 카운트하는 도중 각퇴전 또는 경기시간이 종료되어도 카운트를 계속하며 “열”을 카운트 할때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선수를 K.O 패로 인정, 상대방 선수에게 승자선언을 한다.

바) 양선수가 동시에 다운이 되었을 경우 주심은 양선수중 한 선수라도 회복이 안된 상태에 있으면 카운트를 계속하여야 한다.

사) 양선수가 동시에 다운이 되고 카운트 “열”을 셀때까지 다같이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엔 양선수가 다운될 때 까지의 일은 점수로 승패를 판정한다.

아) 금지된 기술에 의하여 다운된 선수가 발생할 경우 주심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얼굴을 손기술로 공격당하여 K.O된 경우엔 공격자를 패자로 한다.

2) 남성을 공격당하여 K.O된 경우엔 K.O된 자를 패자로 한다.

자) 주심의 판단만으로 위 사항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 임석 의사의 판정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부상과 협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2. 주심은 “죽다웃” 또는 “죽아웃”된 선수를 경기 종료지후 판의사에게 진찰시킬 의무가 있다.

제13조 (부상으로 인한 경기 중단에 대한 조치)

경기도중 한선수 또는 양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부득히 경기를 중단해야할 상태가 야기되었을 경우엔 주심은 “갈려” 선언으로 경기를 중단시킨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계시원에게 “시간” 선언을 하며 경기 시간을 정지시킨다.

2. 부상의 크기를 확인하고 경기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가) 경기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1) 부상당한 원인을 야기시킨자를 패자로 한다.

2) 부상을 야기시킨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부상까지의 점수로 승패를 판정한다.

나) 간단한 응급처치만으로 경기 계속이 가능한 경우

1) 1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의 치료를 허가한다.

2) 1분이 경과하여도 선수위치 표시에서 대전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선수는 패자로 한다.

3. 주심의 판단만으로 위사항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임석의사의 판정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부상과 협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14조 (주심의 싸인 종류 및 방식)

주심은 경기 진행에 다음과 같은 싸인을 하여야한다 (싸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 채점표 양식 및 기록방식(부록 채점표 양식)

채점표 기록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득점 1점은 1로

2. 감점 1점은 1로

3. 경고 1회는 0.5로

4. 승자 표시는 청, 홍 글자에 크게 0로 표시한다.

5. 동점일때는 매회전 득점 위에 V로 표시하고 판정판(득점)에는 가로안에 적게 0으로 표시한다.

제16조 (부칙)

1. 본위원회는 대회시 심판을 담당할 배심원 및 주, 부심이 해당 경기에 오판을 초래하여 물의를 야기시켜 심판분과위원회의 권위를 추락시켰을 때에는 본 위원회의 평가회의를 거쳐 전문위원회의에 회부시켜 다음의 처벌을 한다.

가) 경고

나) 기한부 심판자격 정지

다) 심판 자격 박탈

2. 본 위원회는 대회중 심판원의 성적평가와 행정처분 결과를 심판원 기록카드에 기재한다.

3. 본 위원회는 심판원 자격을 획득한후 3년간 심판 활동을 하지 않던지 또는 심판보수교육을 하지 않았을시엔 심판원 기록카드에서 자연 제적당한다.

Visitors

손님들



Colonel Antonio Rodriguez, President, Argentine NOC
아르헨티나의 안토니오 로드리게즈 NOC회장이 국기원을
방문 시범을 참관했다.



Mr. Adrian Paulen, Hon. President,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아드리안 폴렌
명예회장이 세계연맹을 방문, 명예
회원증을 받았다



Ashour Ben Khayal, the Libyan ▲
Ambassador to Korea

주한 리비아대사 카알씨가 국기원을
방문 명예단증을 받았다

C.C. Reedie, president, I.B.F

리더 세계배드민턴연맹회장이

▼ 세계연맹을 방문



81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The 1981 General Assembly of K.T.A



Opening Address
개회사를 하는 김운용회장



Chang Keun Inn, Auditor
of K.T.A
인창근감사의 감사보고



Choon Seong Hwang, Executive
director
황춘성 전무이사의 사업보고



Delegates
대의원들
좌로부터 박태만(중앙), 권정욱(중앙), 이종호(대구), 유재영(이천), 김성태(강원), 안종홍(경기), 상한철(전북), 조태열(전남), 김순배(중앙)



Delegates
대의원들
좌로부터 이학선(여성), 정관모(대학), 주성일(국교), 박학택(중교), 박용용(경남), 고익호(제주), 김 용(충북), 김일권(부산), 송봉섭(서울), 이금홍(중앙)

81년도 2차 이사회 K.T.A Meeting of Directors



Members of the Meeting
좌로부터 한봉수부회장, 김운용회장, 김진정이사, 인창근감사, 마의용감사, 황춘성전무, 회의 참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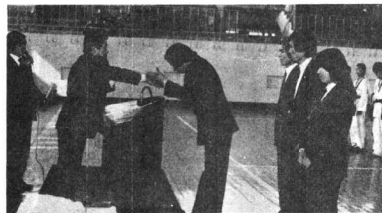


Directors
이사들
좌로부터 김영원이사, 박승복이사, 고희환이사, 최영훈이사, 권영찬이사

32nd Instructor Refresher Training 32기지도자교육 수강생



Participants in 7th Dan degree promotion test
11명의 7단 응급자들의 면접후에 기념촬영



Awarding prizes for exemplary referees
신인선수권대회가 끝난후 심판들이 표창을 받았다



Lecture for Attendants, 32nd Refresher Training
김순배부원장이 지도자 교육 첫 시간 태권도 예외규범을 강의하고 있다.

이런일 저런일 Tit Bit



"Yeop Cha Gi" by Miss Jung Sook Kim
스페인 주재 김정숙 3품의 날렵한 열차기



Kyu Seok Lee, professor of TKD, explain for the MBC TV News
about Sport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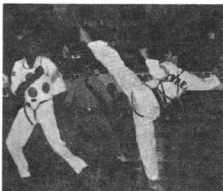
유도대학의 태권도학과 이규석교수가 MBC TV 뉴스의 스포츠 과학
화에 대한 특집프로그램에서 태권도의 과학적 분석에 관해 설명하고있다



Camp training in Kukkiwon
대표선수단 합숙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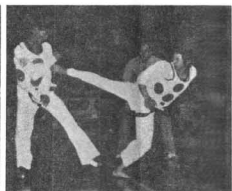
Dr. Kim award the Korea National Flag to Mr. Doo Won Kim, National team head,
김운용회장이 김두원대표선수단장에게 단기인 태극기를 수여하고 있다.



Competition, middle weight class
김상천선수(미들급)의 맹공



Give the game to Woong Hwan Jeon(Fly)
전용환선수의 활이 유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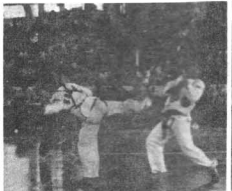
A Scene of Competition (Light)
라이프급 경기



Sang Chun Kim, Winner of the middle weight class
미들급 김상천선수의 압도적 판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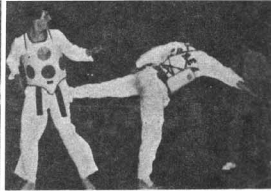
A Scene of Competition
플라이 체급, 열군강타



A Scene of Competition
후려차기, 육점의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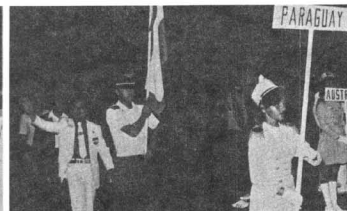
Sang Hyun Ma, Heavy weight player
헤비급, 마상현의 선전분투



A Scene of Competition
플라이 체급 공격



Opening Ceremony 입장식



Closing Ceremony 폐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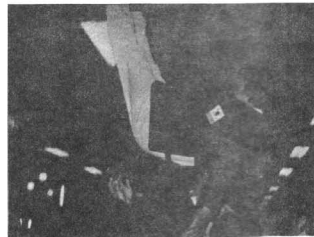
The 5th World TKD Championships in Ecuador. 제5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Feb. 24.82 - Feb. 27



Ecuadorian Folk dance in the Opening Ceremony
개회식에서 에콰도르 민속무용으로 참가선수단을 환영



Demonstration for Ecuador Navy men
대회기간중 에콰도르 해군부대의 초청으로 시범



Scene of Celebration
헝가테(김인수 코치)



Award of championship Cup. 1st: Korea 2nd: Ecuador 3rd: West Germany
한국은 종합우승으로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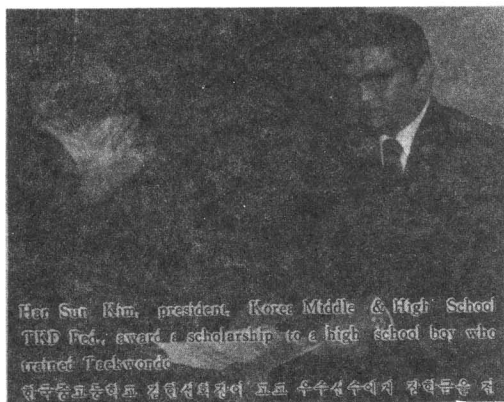
헝가테(김두원 단장)



Award Ceremony
라이프미들급 시상식(정국현선수)



Triumphal Return
3월 7일 김포공항에 개선한 한국선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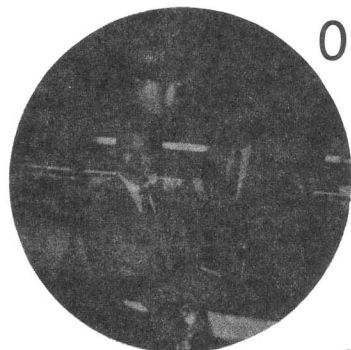


Han Sun Kim, president Korea Middle & High School TKD Fed., award a scholarship to a high school boy who trained Taekwondo

한승은교동학도 장학선정장어 표트 우수성수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엄운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제 4 차 세계연맹실행위원회 참석차 출국



이남석 세계연맹감사

이런일 저런일 Tit Bit



이종우 세계연맹실행위원



이금홍 세계연맹기술위원장



TKD demonstration "Poom Se" to be televised by KBS TV
KBS 3TV(교육방송)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50분씩 7주간 태권
도교실을 방영하기 위해 국기원에서 야외 녹화